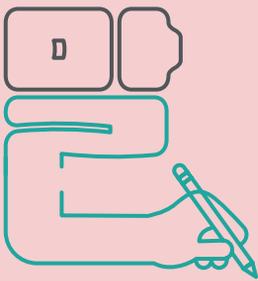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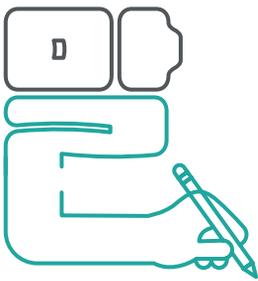
 삶의 가치.

 인문학이 

 하 다

 삶의 가치.

 인문학이 

 하 다

들어가며

1부 인문학, 동네를 걷다

- | | |
|--|----|
| 각자의 이야기, 각자의 도봉구
도봉문화정보도서관 | 10 |
| K의 미래, 동네에서 답을 찾다
마포구립서강도서관 | 18 |
| 남산도서관, 100년의 시간을 함께 걷다
서울특별시교육청남산도서관 | 26 |
| 인천이야기, 문학으로 꽃피다
서창도서관 | 32 |
| 낙중학(洛中學), 대구 유학의 뿌리를 찾아서
수성구립용학도서관 | 38 |
| 강서의 비석 탐방
강서구립꿈꾸는어린이도서관 | 44 |
| 박수근의 고향 “양구” 미술 속 인문학, 전지적 박수근 시점
양구교육도서관 | 52 |
| 나무와 문화, 나란히 걷다
달성군립도서관 | 58 |
| 취향의 발견과 기쁨, 사람과 마을을 잇다!
맨발동무도서관 | 64 |

2부 인문학, 과거-현재-미래를 함께하다

‘징계 맹갱 외에 밋들’ 과거-현재 그리고 미래 김제시립도서관금구분관	74
호모 레코르단스(Homo Recordans),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역사문화유산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	80
우리는 아직 길 위에서 서 있다 더불어숲도서관	90
만남과 헤어짐의 미학 익산시립황등도서관	96
그림책으로 만나는 우리 근현대사 양양교육도서관	102
훈민정음, 그 숨은 비밀을 찾아서 은평구립도서관	108
미래자서전으로 진로를 기획하라 순천시립도서관연향관	116

3부 인문학, 찬란한 인생을 꿈꾸다

위로와 희망의 인문학 성산도서관	128
평화와 인류애의 가치, 세계는 왜 싸우는가 울산남구신복도서관	136
신화, 인간의 삶을 말하다 광양시립중앙도서관	144
오늘부터 인생리셋! 인문학 삶의 무기가 되다! 의성군립도서관	150
인생을 클래식하고 찬란하게 보내는 법 대치도서관	158
숲·생태·인간 공존의 미래를 꿈꾸다 기장도서관	166
그림책, 그 무한한 매력으로 풍덩! 서귀포기적의도서관	174
그림책의 판 생각, 종이를 넘어 예술로 확장하다 청주기적의도서관	182
우리는 “읽고 쓰는 사이” 교하도서관	190
독자에서 작가로, 생각에서 세상으로 <제주독립출판> 탐라도서관	196

* 2022년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사업 우수도서관 수상기관 목록

* 2022년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사업 우수담당자 수상자 목록

들어가며

2022년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사업은 전국 272개 도서관에서 총 300개 프로그램이 운영되었다.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은 2013년, 유익한 인문학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삶에서 행복을 느끼는 계기를 제공하기 위해 시작해 2023년이면 10주년을 맞이한다.

“유익한 강좌들이 있어 행복했다”, “길 위의 인문학이 자신이 지나온 삶과 앞으로 살아갈 길을 보여주는 것 같다”, “자신의 고장 역사와 인물에 대해 자긍심을 키워주었다”, “강연과 탐방, 후속 모임을 함께 할 수 있어 좋았다”는 등 2022년 참여자들의 다양한 의견에서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의 목적에 맞게 운영이 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은 2013년 첫해 121개 도서관에서 시작했으며, 인문학을 통해 우리 삶의 가치를 정립하고 공동체 문화 활성화를 목적으로 도서관과 지역 주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공유와 공감의 시간을 함께 보내왔다.

최근 3년간은 코로나19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함께했다. 3년 넘게 지속될 것이라 생각하지 못했던 팬데믹 상황에 도서관도 많은 변화를 겪었고,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도 강연 일정 변경, 탐방 일정 연기, 수강률 저조 등으로 강연자, 프로그램 담당자, 참가자 모두 힘든 시기를 보냈다. 2022년도는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지면서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적절하게 활용하며 위드코로나(with Corona)를 향해 나아간 해로 대면 강연과 탐방이 늘어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2022년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은 새로운 일상으로의 회귀이며, 희망과 위로를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을 보냈다.

이제는 도서관뿐 아니라 박물관, 생활문화시설, 여행자 등 「길 위의 인문학」이라는 이름으로 실시하고 있다.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은 도서관과 지역주민들이 함께 인문학 강연과 탐방을 함께 공유하고 공감하며 다른 인문학 사업과 차별화된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길 위의 인문학」은 도서관의 대표 인문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해왔다. 지역에 굳건히 존재하고 있는 도서관과 인문학을 전파해 주

는 강사, 그리고 담당자, 지역 주민들 중 누구하나가 없다면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은 지금까지 올 수 없었을 것이다.

철학자 니체는 ‘모든 삶의 순간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하려고 한다. 그러나 우리는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은 우리에게 세상의 말을 하고 있다. 우리는 세상의 말을 듣고 찾는 모든 삶의 순간에 우리 주변 가까이에 도서관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 된다.

최근 챗 GPT가 이슈다. 무엇이든 GPT에 질문하면 답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는 챗 GPT만 있다면 무엇이든 해결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제대로 된 답이 나오려면 제대로 된 질문이 필요하다. 질문하는 힘은 인문학으로부터 나온다. 때문에 「디지털」이 중요해질수록 인문학은 더욱 필요해진다. 질문의 힘을 위해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은 우리에게 유익하고 가치 있는 프로그램이다.

2022년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우수사례집은 한 해 동안 우수프로그램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한국도서관협회상을 수상한 도서관과 담당자의 사례를 모았다. 그러나 여기에 수상한 도서관만이 우수한 프로그램은 아니리라. 2022년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을 운영한 272개 도서관, 107,783명의 강사와 수강생 모두가 우수하다고 할 수 있다. 이 사례집은 그중에 26개의 사례를 담아 향후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사업의 기반으로 활용되길 바란다. 포스트코로나 시대, 만남이 그리웠을 사람들에게 만남과 위로와 삶의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애써 주신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에 관련된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린다.

한국도서관협회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도서관
일회의
인문학



이제는 누구나, 어디서든
읽을 수 있는, 누구나
읽고 싶은, 누구나
읽고 싶은, 누구나
읽고 싶은

이제는 누구나

이제는 누구나, 어디서든
읽을 수 있는, 누구나
읽고 싶은, 누구나
읽고 싶은, 누구나
읽고 싶은

이제는
누구나

이제는
누구나

이제는
누구나



 **인문학,
동네를 걷다**

각자의 이야기, 각자의 도봉구

도봉문화정보도서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도봉문화정보도서관의 「길 위의 인문학」을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키워드로 정의해 본다면 #도봉, #마을기록, #글쓰기, #에세이, #세대공감이다. 인문학이 인간의 삶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일들을 연구하는 학문이라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터전’이고 우리가 사는 마을, 도시를 연구하고 기록하는 것이 가장 인문학다운 것으로 생각한다.

이 생각은 2020년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특별프로그램 ‘우리 동네 인문 교재 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계기가 됐다. 도봉을 배경으로 활동하는 청년인정협동조합과 협력하여 과거의 모습을 간직한 채 조금씩 변하고 있는 도봉구 쌍문동을 기록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도봉구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를 수집했고, 역사적인 인물의 흔적을 찾고자 했으며, 노포 사장님, 지역주민 인터뷰를 통해 과거와 현재를 함께 기록하고자 했다. 그렇게 『쌍문 모음.zip』이 탄생했다.

『쌍문 모음.zip』 제작은 마을기록으로 의미가 있었지만, 전문분야의 솜씨가 들어갔고 소위 ‘관(官)’에서 만든 자료집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또한 기록물은 누군가가 보아야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수동적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마을 기록이라는 목표는 유지하고 과정에 직접 참여하면서 인문학의 본질인 자아성찰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글쓰기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됐다. 마을기록이라는 부담스러운 목표를 참여자에게 제시하기보다는 쓰는 사람과 읽는 사람 모두 부담스럽지 않은 에세이 쓰기로 포장했고, ‘도서관과 함께라면 작가가 될 수 있다’는 개인적 동기도 부여했다.

모든 순간이 우리 글쓰기의 소재

프로그램은 ‘도봉’이라는 대주제를 바탕으로 사건, 장소, 인물, 시간이라는 4가지 소주제를 제시하여 개인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에세이를 쓸 수 있도록 구성했다. 글쓰기 교육뿐만 아니라 도봉이라는 지역을 알 수 있도록 교육커리큘럼을 짰다. 도봉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익숙함 속 낯섦’을 찾는 연습을 하며 강연을 통해 공부했던 장소를 탐방으로 직접 확인했다.

하지만 참여자들은 자유 주제가 아닌 도봉이라는 주제가 있는 글쓰기를 매우 부담스러워했다. ‘도봉’과 관련된 주제라고 하니 도봉이라는 장소만 주목하는 것 같았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터전’인 도봉에서 있었던 모든 순간이 소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시키려 노력했다. 참여자들은 본인의 평범한 일상이 소재가 될 수 있을까? 의구심을 가졌지만, 차츰 각자가 이해한 방법대로 도봉과 관련한 역사적인 사진을 찾아 쓰기도, 토박이 아버지에 대한 내용을 쓰기도, 추억이 있던 장소에 관해서 쓰기도 했다. 그렇게 2021년 <각자의 이야기, 각자의 도봉구>가 발간됐다. ISBN을 발급받고 참여자 모두를 작가로 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에 등록했다. 그렇게 2022년까지 2편의 에세이를 발간했다.

2021년 <각자의 이야기, 각자의 도봉구>는 20, 30대 청년 8명의 시각으로 도봉을 기록하는 31편의 글을 작성했고, 2022년은 50세 이상 중장년을 추가하여 총 19명이 부모 세대와 자식 세대가 바라본 도봉을 함께 담은 76편의 글을 작성했다. 도봉이라는 삶의 ‘터전’에서 찾은 ‘글감’은 지극히 개인적이지만 공간을 공유하는 주민들에게 보편적인 공감을 얻을 수 있었고 글쓰기 과정에서 특별하지 않았던 일상에 특별함을 찾아내며 자아성찰을 달성할 수 있었다.

우리는 서로 글을 읽고 합평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다. 특히 2022년의 경우 청년반과 중장년반을 동시에 진행했고 서로 쓴 글을 공유하고 읽도록 했는데, 직접 만나지 않고 단지 서로 글을 읽는 과정만 넣었을 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공감과 이해가 쌓이고 서로를 궁금해 하며 내적 친밀감이 쌓이는 경험을 하게 됐다. 출판기념회가 돼서야 서로를 만나게 됐는데 마치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람을 만나는 것처럼 서로 반가워했다. 세대가 다른 두 집단을 떨어뜨린 이유는 자유로운 발언을 해야 하는 합평 시간에 서로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염려 때문이었지만 오히려 함께하지 못함을 참여자들은 아쉬워했다. 추후 같은 기회가 있다면 청년반



과 중장년반이 함께 합평하며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다.

후기에도 언급이 되지만 참여자들은 작가님이라는 호칭이 주는 힘과 매력이 상당하다고 느꼈다. 책이 출간되기 전에는 참여자(또는 이용자)라고 부르다가 출간 이후에는 꼭 ‘작가님’이라고 불리드렸는데 2년 동안 이 점에서 만족도가 항상 높았다. ○○○ 작가라고 쓰인 현수막 밑에서 사진을 찍거나 인쇄된 명패를 기념으로 가져가는 분들도 계셨다. 작은 부분이지만 글쓰기 프로그램을 한다면 꼭 책

겨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공모사업은 방송국으로 따지면 파일럿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한다. 본예산은 당장 없지만 꼭 해보고 싶은 사업, 지속해서 할만한 가치 있는 사업을 외부의 시선으로 평가받고 수행한 뒤 다듬는 과정을 거쳐 본예산으로 안착시키는 것이 가장 이상적일 것 같다. 도봉문화정보도서관에서는 앞으로 글쓰기를 통한 자아성찰과 도봉의 일상을 기록하는 과정을 꾸준히 수행할 것이다. <각자의 이야기, 각자의 도봉구>가 그 초석이 될 것이다.



참여자 이야기

활동하면서 글을 보고 사람들이 궁금했습니다. 글을 통해 사람이 느껴지는 경험을 했고 직접 이야기를 듣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만나 뵙고 싶었습니다.

참여자 1

저는 자서전이 너무 쓰고 싶었어요. 이 과정이 책을 내는 과정인 줄도 모르고 시작했는데 도봉구와 글을 이어야 한다고 하니 괜히 했나 싶고 뭘 써야 할지 몰랐어요. 그러다 시니어분들의 글을 보았는데 너무 이쁜 거예요. 그것을 보고 내 방식대로 써야겠다고 생각했고 글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작가가 되어 내 이름을 새긴 책을 마주하니 벅차오르고 뜻 깊습니다.

참여자 2

어떤 인문학 강연에서 2천 년 전 키케로가 ‘온갖 잡놈이 책을 내고 있다.’라는 말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당시 필사였으니 책이 얼마나 귀합니까?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귀중한 책을 내는 현실을 비판한 것이겠지요.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생각해보니 2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람은 책을 내고 싶은 욕망이 있나 봅니다. 얼굴이나 신체를 드러내는 것 이상으로 글을 써서 자신을 나타내고 싶은 욕망이 강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책을 보니 흔한 말로 참 감개무량합니다.

참여자 3

일상을 여행처럼 경험한 이 과정이 너무 좋았습니다. 길 위의 인문학이 내가 지나온 삶과 앞으로 살아갈 길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젊은 작가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만나고 싶었는데 좋은 인연을 만들어준 도서관에 감사합니다.

참여자 4

우리는 이렇게 했어요



주제 세대 공감 에세이 - 각자의 이야기, 각자의 도봉구

유형 특화기획(유형특화)

강사 김남금, 김은경, 유환주

내용 **중장년반** 글쓰기 수업 일상이 여행이 되는 도봉구

- 1차 글쓰기란? 글쓰기에 중요한 것
- 2차 경험글쓰기, 과거 경험에서 글감 찾는 법
- 3차 오감 글쓰기
- 4차 글감 기록하는 방법
- 5차 퇴고와 피드백
- 6차 작가들의 에세이 분석과 토론 에세이 쓰는 법
- 7차 내 인생의 사건
- 8차 내 인생의 장소
- 9차 내 인생의 인물
- 10차 내 인생의 시간

청년반 글쓰기 수업 조금 낮게 시작하기, 비기너를 위한 글쓰기

- 1차 글쓰기 고민 타파&무엇을 쓸 것인가
- 2차 사람의 마음을 흔드는 문장만들기
- 3차 저절로 손이 가는 제목 짓기
- 4차 퇴고 시 살펴야 할 것들
- 5차 내 글 업그레이드 하기(1)
- 6차 내 글 업그레이드 하기(2)
- 7차 내 글 업그레이드 하기(3)
- 8차 내 글 업그레이드 하기(4)
- 9차 가독성을 높이자, 내 글 셀프 교정 교열(1)
- 10차 가독성을 높이자, 내 글 셀프 교정 교열(2)

중장년반, 청년반 각각 3회씩, 도봉구 바로 알기

- 1차 도봉구의 도시화 이야기
- 2차 도봉의 마을이야기
- 3차 드라마 촬영지가 된 쌍문동의 지역적 특징

- 일시** | **강연** | **중장년반** 2022. 6. 4.(토) ~ 8. 27.(토) 14:00 ~ 16:00
청년반 2022. 6. 18.(토) ~ 9. 3.(토) 10:00 ~ 12:00
- | **탐방** | **중장년반** 2022. 8. 7.(일) 10:00 ~ 17:00
청년반 8. 13.(토) 10:00 ~ 17:00
- | **후속모임** | 2022. 10. 15.(토) 10:00 ~ 12:00
- 장소** | **강연** | **중장년반** 도봉문화정보도서관 / **청년반** 온라인(Zoom)
- | **탐방** | 창동 모퉁이 → 양말협동조합 → 우영마트 → 여수학숙 → 쌍리단길 → 쌍문
 약국 → 남정현 가옥 → 우이천 → 덕성여대 → 백운시장
- | **후속모임** | 도봉문화정보도서관

K의 미래, 동네에서 답을 찾다

마포구립서강도서관

한국도서관협회장상



책과 꼭 닮은 서강도서관의 「길 위의 인문학」

마포구립서강도서관은 2008년 서울시 마포구 서강동에 개관한 공공도서관으로 서강동주민센터의 3층 일부와 4~5층에 도서관이 마련되어 있다. 우리 도서관은 꼭 ‘책’을 닮았다. 한 손에 쥐어지는 책 속에 무궁무진한 세계가 담겨있듯 우리 도서관도 실제로 방문해보면 규모는 작지만 그 안의 읽을거리와 알거리, 놀거리가 많은 곳이다. 그 중 배울거리를 가득 채워주는 인기 있는 강좌 중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이 있다.

우리 도서관은 이 사업이 시작된 2013년 <시인의 길을 걷다>부터 2018년 <인디(indie), 지속가능한 자가발전을 꿈꾸다>까지 마포지역의 문화콘텐츠를 꾸준히 발견하고 로컬리티 인문학의 새로운 가능성을 실험해왔다. 2019년에는 <고통의 곁에 서다>를 주제로 지역주민의 삶에서 주제를 발견하여 사회적 관점에서 풀어보고 화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2020년 <레고, 픽셀, 링크: 품격 있는 지구인을 위한 세 가지 질문>은 유례없는 바이러스 사태로 인간과 인간, 인간과 기술, 인간과 자연의 문제를 통해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는 진정한 문제는 무엇인지 화두를 던지고 고민했다. 2021년은 본격적으로 <공존, 잉여와 결핍의 재배열: 상상이 일상이 되는 즐거운 유토피아를 향하여>로 인간, 자연, 기술과의 공존을 모색하고 지역에서 우리가 함께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찾으려 했다. 그리고 이러한 사업은 지역주민에게 꾸준히 관심 받으며 성황리에 마칠 수 있었다.

사서들의 집단지성으로 발굴해 낸 지역의 가치, K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은 말 그대로 우리가 사는 길, 동네, 지역 안에서 인문학적 가치를 찾아내는 사업이다. 2013년부터 지금까지 10년의 발자취를 살펴보니 우리 동네에 대해 알 만큼은 다 안 것 같기도 하다. 2022년, 서강도서관이 주목해야 할 인문학적 가치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사서들은 고민에 빠졌다. 미래를 예측하는 책과 현재의 트렌드를 분석한 잡지 등을 읽으며 서강도서관 사서들의 집단지성을 모아 주제를 고민하다 보니 ‘K’가 떠올랐다.

현재 세계적으로 위상이 달라진 ‘K-콘텐츠’의 중심지는 단연, 마포이다. 디지

털미디어시티인 상암동, 디자인과 인디(indie) 그리고 카페로 표현되는 젊음의 거리 홍대와 상수동, 출판문화의 오랜 거점이자 서울에서 가장 많은 독립서점과 마포출판문화진흥센터가 있는 연남동과 서교동, 2024년 완공할 ‘한류·공연 관광 콤플렉스’와 세계적 기업 단지가 모여 있는 공덕동까지. 이토록 K를 잘 설명할 수 있는 지역이 또 있을까? 우리 도서관은 우리 동네 마포를 중심으로 K-웨이브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그 미래 가치에 대해 발견해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했다. 호자는 K라는 주제가 ‘인문학’과 대체 무슨 연관이 있는지 의아해하기도 한다. 하지만 K시리즈를 진행하니 그 의심은 사그라들고 ‘역시, K는 마포’라며 더 확신이 섰다. K 안에 담긴 한국인의 인문, 사회, 역사, 철학, 그리고 정서까지 모든 것이 ‘인간이 그리는 무늬’ 그 자체였다. 지역주민도 사업이 거듭될수록 K라는 다양한 분야에 대해 깊이 있는 읽기로, 쓰기로, 참여와 활동의 단계로 확대해 나아갔다.

마포에서 함께한 K의 기록

우리 동네 마포에서 어떤 K의 미래와 가능성을 찾을 수 있을까? 우선, 우리가 K에 대해 어느 정도 제대로 알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먼저였다. 여는 강연은 K-컬처에 대해 가장 광범위하게 이야기해 줄 최고 전문가를 찾아 나섰다. 바로 강유정 교수다. BTS로 대표되는 K-팝, ‘오징어 게임’과 ‘지옥’ 등 드라마와 웹툰, 푸드, 뷰티, 패션... 그 밖의 다양한 콘텐츠들이 K-브랜드를 구축했는데 이 모든 분야를 총망라하여 이야기했다. 하지만 K-컬처에 대한 반짝거림에 집중하기보다는 그 이면의 그림자에 대해서도 짚어내야 했다. 강유정 교수는 K-컬처가 지닌 세 가지 차별성(생산자/크리에이터의 탁월성, 지지자이자 감시자/협력자/비판자의 역할을 두루 갖춘 소비자의 차별성, 결과물의 신선함)에 대해 강연하며 앞으로 나아가야 할 K의 미래를 제시해주었다.

다음 초대석은 성신여대 심두보 교수와 함께 현재 해외에서 K-컬처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지, 한국인의 시선이 아닌 타인의 시선에서 바라보는 시간을 가졌다. 대체 왜 한국 드라마, 음악이 해외에서 인기 있는 걸까? 심두보 교수는 190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가 한류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는 한국 대중음악의 역사를 되짚었다. 모든 문화는 ‘혼종성’을 기반으로 성장하는데, K-팝 역시 타문화에 대

한 열린 태도와 타협의 연속으로 한국만의 특색을 지니게 된 결과물이라 한다. 오늘날 한류로 인해 한국인의 자신감이 높아지고 한국학/한국어 학습자가 늘어나는 소프트파워, 해외 대중문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깊이 있게 알 수 있는 시간이었다.



이어서 네 가지 분야의 집중 강연이 열렸다. 그림책, 문학, 클래식, 푸드 등 대표적인 K-브랜드에 대해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다.

K-그림책은 짧은 역사에 비해 세계 출판계에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글로연 오승현 대표는 K-그림책의 저력이 다양한 매력을 가진 작가진, 그림책 작가 양성기관의 확대, 질적으로 우수한 그림책을 만들기 위한 출판사의 노력, 0세부터 100세까지 아우르는 독자층의 형성, 그리고 시민 그림책의 힘에 이룬다고 했다. 서강도서관에서도 2021년 시민 17명이 그림책을 발간하여 오로지 서강도서관에서만 만날 수 있는 책이 탄생된 것처럼 말이다.

K-문학은 한기호 출판평론가와 함께 한국의 모든 것을, 한글로 쓴 한국의 책이 세계적 위상과 어느 정도 비례하는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K-문학에는 가족애, 우정, 연대를 중시하는 민족 정서가 잘 녹아있고 이것이 세계인의 공

감대를 끌어낼 수 있는 비결이다. 또한 디지털 출판의 3대 혁명과 호모스마트쿠스형 작가의 탄생으로, 특별한 재능을 가진 일반인들의 출판이 늘어나고 ‘타인에 대한 이해와 공감 능력’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 이렇수록 가장 중요한 건 큐레이션이라 강조했다. 방대하고 분절화된 지식정보 속에서 어떤 책을 선택하고 연결하느냐에 방점이 있는 것이다.

K-클래식은 송현민 음악평론가와 함께 세계 음악계에 ‘코리아’를 알렸던 음악 천재들이 다진 K-클래식의 숨은 역사, 젊음과 음악을 만나보는 시간이었다. 해외에서는 클래식뿐 아니라 발레, 성악 등 한국인의 활약을 보며 “도대체 한국은 어떤 나라인지” 호기심이 크다고 한다. K-클래식 성장을 이끈 건 예술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 정치구조와 맞물려 있다. 지금도 피땀 눈물로 연습에 매진하고 있을 우리 K-클래식 꿈나무들을 응원한다.

마지막으로 K-푸드는 노중훈 작가와 함께 최근 주목받고 있는 K-푸드의 근본을 한국의 마을과 골목마다 자리한 할매식당, 즉 풀뿌리 식당에서 찾았다. 한국의 가장 오래된 맛이 담긴 백반집부터 지역의 오리지널리티를 담은 지역 밀착형 식당들, 포장마차·가게 맥주까지 다양한 공간에서 사랑받는 음식, 최근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특이하고도 작은 밥집들까지.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음식을 준비하는 사람과 먹는 사람이 “더 너그럽게, 포용적이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음식을 즐겁게 받아들이는 것이다. ‘자극’을 넘어 한국의 ‘진정한 맛’이 세계에 널리 퍼지길 기대하며 강의를 마쳤다.

K의 주인공을 찾아 나선 길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의 꽃, 탐방에서는 K를 가득 담고 있는 우리 동네를 재발견하기에 나섰다. 마침 마포구에서는 관광 특화사업으로 ‘마포시티투어’를 운영하고 있었다. 홍대 입구를 시작으로 하늘공원, 문화비축기지, 한국영화박물관, 망원시장, 서울함까지 마포의 대표 관광지를 문화해설가와 함께 돌아보는 코스였다. “저 마포에 사는데, 이렇게 좋은 곳이 있는 줄 몰랐어요!” 쓰레기 매립지였던 곳이 오늘날 해돋이 명소인 하늘공원으로, 과거 석유를 보관하던 비축기지가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문화예술을 누릴 수 있는 문화비축기지로, 한국



영화의 역사적 흐름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한국영화박물관, 30년간 해양 수호의 임무를 다하고 퇴역한 서울함을 볼 수 있는 서울함 공원까지 다양한 우리 동네의 매력을 마음껏 느낄 수 있었고, 참가자들 역시 가장 만족한 시간이다.

후속모임에서는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예술 플랫폼 ‘서교예술실험센터’와 ‘서울생활문화센터 서교’에서 모여 ‘K’ 그리고 문화예술 콘텐츠 창작의 미래를 고민하거나, 콘텐츠를 함께 만들어 갈 참여자들이 지속적인 탐구와 활동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가자들은 올해 「길 위의 인문학」 사업에 만족하며 내년에 도서관과 함께 탐구할 인문학 주제에 대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의논했다.

이렇듯 서강도서관이 지속해서 깊이 있는 인문학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이유는 인문학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이용자의 몫이 매우 크다. 앞으로도 서강도서관과 이용자가 함께 성장해나가는 모습을 지켜봐 주시기 바란다.

우리는 이렇게 했어요



- 주제** 다시, 여기, 지금 [K-마포]
- 유형** 자유기획(기본형)
- 강사** 강유정, 노중훈, 송현민, 심두보, 오승현, 한기호
- 내용**
- 여는강연** K-Culture 빛과 그림자
 - 초대석** K-Wave, 타인의 시선
 - 집중강연①** K-그림책
 - 집중강연②** K-문학
 - 집중강연③** K-클래식
 - 집중강연④** K-푸드
 - 탐방** 동네의 재발견
 - 후속모임** K-미래, K의 주인공
- 일시** | 강연 | 2022. 7. 6.(수) ~ 2022. 9. 7.(수) 19:00 ~ 21:00
| 탐방 | 2022. 9. 17.(토) 9:00 ~ 13:00
| 후속모임 | 2022. 9. 17.(토) 14:00 ~ 16:00
- 장소** | 강연 | 서강도서관 3층 세미나실
| 탐방 | 마포시티투어(홍대입구~공덕)
| 후속모임 | 서교예술실험센터, 서울생활문화센터 서교

 **관장** 박민영 **담당사서** 송미선

 **홈페이지** mplib.mapo.go.kr/sglib/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165

 **연락처** 02-3141-7053



1부 인문학, 동네를 걷다

남산도서관, 100년의 시간을 함께 걷다

서울특별시교육청남산도서관

한국도서관협회장상



서울시교육청남산도서관은 2022년, 개관 100주년(1922년 개관)을 맞이했다. 개관 100주년을 기념해서 도서관의 역사, 문화, 건축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지식을 시민들과 공유하고자 했으며, 시민들은 새로운 미래를 만드는 활동에 대한 요구와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것을 파악했다. 그래서 관련 활동의 일환으로 남산도서관이 자리 잡은 지역(후암동)의 역사문화와 함께 도서관이 그 속에서 성장한 이야기를 되짚어보고자 했다. 특히 남산도서관이 100년의 시간 동안 거쳐 온 공간과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근대 건축사와 도서관사에 남긴 자취들을 돌아보고 남산도서관 개관 100년의 의의와 인문학적 담론을 시민들과 나누는 것이 목적이었다.

이에 일방적인 도서관 프로그램 제공이 아닌 시민들과 함께 <남산도서관 100년의 역사문화탐방길>을 개발하기 위해 시민들의 참여 중심인 '커뮤니티 매핑' 활동을 기반으로 미래 도서관 문화 확산을 위한 시민과의 소통과 참여의 기회를 마련했다.

구체적으로는 시민들의 배움-체험-활동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남산도서관 100년의 역사문화탐방길> 관련 자료(지도)를 생산하여 지속적으로 시민 커뮤니티와 교류를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활용을 유도하는 것이었다.

남산도서관의 역사문화 탐방길 개발

남산도서관 개관 100주년의 슬로건은 <시민을 품다 지식을 담다 미래를 열다>로, 「길 위의 인문학」은 이와 연계된 <남산도서관, 100년의 시간을 함께 걷다>를 대주제로 결정했다. 대주제 아래, 세부 주제 강연과 탐방, 시민참여를 위한 후속모임으로 구성되어 참여자에게 풍부한 인문학적 지식과 경험을 제공하고자 했다.





서울특별시교육청남산도서관은 2022년 5월부터 11월까지, 남산도서관 100년의 시간을 녹인 역사·문화·건축을 주제로 한 융합 인문학 강연을 준비했다. 1차는 남산도서관을 품은 후암동의 역사와 문화를, 2차는 남산도서관 100년의 공간과 건축이라는 2개의 주제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와 근대건축사, 도서관사를 아우르는 인문 통합 강연을 운영하였다.

특히 프로그램별 후속모임과 별도로 최종 결산모임을 운영함으로써 참여자들의 능동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성과를 나눔으로써 적극적인 의견 수렴과 피드백 교환을 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만족도를 높이고 향후 도서관 프로그램에 이용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인문학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남산도서관 100년의 시간을 함께 걷다〉는 남산도서관이 품고 있는 100년의 역사적 의미를 ‘함께’ 돌아보는 내용으로 진행했다. 특히 강연과 시민참여활동의 연계를 기반으로 참여자들의 몰입을 높이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커뮤니티 매핑’ 활동을 중심으로 시민 커뮤니티와 함께 〈남산도서관 100년의 역사문화탐방길〉개발을 추진, 2종의 지도 리플릿을 제작함으로써 시민들의 역사와 생활 속에 도서관과 독서문화가 공존하고 있음을 널리 알릴 수 있었다.



오프라인 지도뿐만 아니라 온라인(남산도서관 홈페이지)을 통해 커뮤니티 맵핑 결과를 공유하는 등 매체를 적극 활용하여 프로그램 활동을 기록한 점 또한 이번 프로그램의 포인트가 되는 점이라 할 수 있다. 시민들과 함께 모은 이 기록들은 홈페이지 내 남산도서관 100년을 담은 기념 게시판에 아카이빙하여 더 많은 시민들과 지역주민들에게 ‘시민 참여 활동의 결과물’을 공유하고 활용할 것이다.



참여자 이야기

서울에 살지만 서울을 잘 모르고 남산을 가지만 남산을 잘 몰랐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내려다보는 그곳 남산과 도서관, 내려다보는 서울 풍경에 그렇게 깨알 같은 사연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현장 답사 등 참여하신 분들도 열정이 대단하셨던 것 같고요. 진행하신 사서 쌤, 강사님 모두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어렵겠지만 앞으로 또 100년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참여자 1

안창모 교수님께서 역사적 흐름에 따른 남산의 변화와 남산도서관 100주년 기념에 따른 도서관의 변화를 알려주셔서 뜻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아는 만큼 보이고 느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역시나 공부는 끝이 없구나 느끼며, 제가 평소 알고 있던 역사적 사실들과 새로운 사실들이 거미줄처럼 엮이며 무릎을 탁 치는 짜릿한 이 한 순간을 위해서 계속 공부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수업을 잘 들을 수 있게 물심양면으로 기획부터 마무리까지 모두 앞장서서 이끌어주신 유현주 사서님께 제일 큰 박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수업 부탁드립니다.

참여자 2

후암동의 옛 이름은 두텁바위. 마을에 둥글고 두터운 큰 바위가 있었던 데서 유래한 이름이란 사실을 알아서 좋았습니다. 일제강점기 시대의 역사를 그대로 보여준 동네라는 사실도 새로 알게 되었습니다. 100년 된 남산도서관이 앞으로도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참여자 3

남산도서관만이 아닌 근현대 우리의 역사와 흐름, 우리나라 현대도서관의 시작까지 알게 된 알찬 시간이었습니다. 남산도서관과 그 일대를 주님으로서 더 애정어린 시선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매번 세심하게 챙겨주신 사서 쌤께도 감사드립니다.

참여자 4

우리는 이렇게 했어요



주제 남산도서관, 100년의 시간을 함께 걷다

유형 자유기획(기본형)

강사 안창모, 임완수, 정호경

내용 1차 남산도서관 품은 후암동의 역사와 문화:

남산도서관이 위치한 후암동의 역사, 지역 문화의 배경 탐구

2차 남산도서관 100년의 공간과 건축:

서울시 최초 공립공공도서관으로서의 남산도서관 100년의 역사와 건축

공간 탐구

3차 | 후속모임 Library Coming DAY:

프로그램 운영 결과 소개 및 관련자료 전시, 100년의 역사문화탐방 지도(2종) 공유회

일시 | 강연 | 1차 2022. 5. 11.(수) ~ 2022. 6. 8.(수) 10:00 ~ 12:00

2차 2022. 9. 16.(금) ~ 2022. 10. 7.(금) 10:00 ~ 12:00

| 탐방 | 1차 2022. 6. 15.(수) 10:00 ~ 14:00

2차 2022. 10. 14.(금) 10:00 ~ 14:00

| 후속모임 | 1차 2022. 6. 22.(수) 10:00 ~ 12:00

2차 2022. 10. 21.(금) 10:00 ~ 12:00

결산 2022. 11. 4.(금) 10:00 ~ 12:00

장소 | 강연 | 1~2차 온라인 ZOOM

| 탐방 | 1차 남산도서관 등 후암동 일대(한양도성유적전시관, 안중근의사기념관, 후암동 문화주책지 등)

2차 남산도서관 등 소동동 일대(명동, 소공동 대관정터, 남산둘레길 등)

| 후속모임 | (1~2차, 결산) 남산도서관 세미나실, 커뮤니티룸

 **관장** 김양주 **담당사서** 유현주

 **홈페이지** nslib.sen.go.kr

 **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소월로 109

 **연락처** 02-754-7338

인천이야기, 문학으로 꽃피다

서창도서관

한국도서관협회장상



서창도서관은 인천광역시 남동구립도서관으로 “지역주민과 함께 꾸준히 성장하는 남동구립도서관”이라는 슬로건으로 2012년 개관하여 2022년 개관 10주년을 맞이했다. 이에 지역과 인문학을 연계점으로 <인천 사계, 남동 만개>을 통해 인천 인문학을 남동구에서 꽃피우고자 하였다. 봄부터 가을까지 16차시라는 대장정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팬데믹으로 전 세계적인 사회 변화를 겪으며 지역에 대한 관심을 인문학으로 사유하고 변화하는 사회 현상을 이해하려 인문학 강좌에 대한 요구와 기대가 증가하고 있었다. 지역도서관으로서 서창도서관에서는 이러한 요구와 필요에 부응하기 위해 다양한 연령대의 참여자들이 생활 속에서 인문학을 자연스럽게 인식하고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인천과 남동’을 주제로 「길 위의 인문학」을 시작하게 되었다.

종과 횡으로 연결된 인문학의 또다른 길

지역을 인문학적 소재로 탐색한다는 것은 보편적인 현상이다. 서창도서관은 <인천 사계, 남동 만개>를 통해 시인이 문학으로 들려주는 인천, 역사가가 역사적 흔적을 찾아가는 인천, 영화인이 영상매체로 구현하여 입체적으로 전달하는 인천, 사진 작가가 기록 자료로 남겨놓은 인천을 인문학으로 탐색하였다. 강연과 탐방, 후속 모임을 유기적으로 운영하여 「길 위의 인문학」 취지에 부합했으며 이를 통해 참여자들은 인문학적 유대감을 형성하고 독서를 축으로 도서관-지역 주민-인문동아리가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인문학적 시간 속에 함께 있었다.



문학 작품으로 시와 소설, 수필 희곡을 한국문학관과 문학의 거리에서 글을 보며 해설을 들으며 인문학 현장을 함께 걸으면서 글과 시간이 살아있는 경험을 했다. 해박한 문학강연으로 다닌 도보 여행은 마침내 월미도에서 자리를 잡고 마지막 강연의 아쉬움을 문학 작품 속 이별의 모습을 상상하며 대미를 장식했다.

인천 역사를 시작으로 바다와 섬이라는 지형적 특징과 현재 확장되는 인천 도시를 종과 횡으로 조우하는 역사 강연과 탐방은 근대문물의 길목 역할을 한 인천항 갑문에서 출발하여 인천도호부관아, 장도포대지, 소래포구의 옛 모습을 재현한 소래역사관에서 협궤열차 탑승으로 여정을 마쳤다.



특히, 서창도서관의 특화 주제인 ‘영화·예술’을 본 프로그램에 접목하여 ‘인천’을 쉽지만 깊이 있게 전달하고자 했다. 영화감독의 코멘터리로 진행된 영화 속에서 문학 탐방과 역사 탐방으로 가 본 곳이 스크린에서 영상으로 나타날 때는 순간, 이 모든 것은 마치 계획된 것처럼 종과 횡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스스로 깨닫게 한 인문학의 또 다른 길이었다.

우리 함께 길 위를 걸으며

서천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참여자들은 매 차시 많게는 20페이지 분량의 강연자료를 받아서 입체적인 인문학 경험을 했다. 이러한 탐구형 참여 모습은 탐방에서도 마찬가지였다. 탐방 당일 막 출력한 따뜻한 강연자료를 받아서 읽으며 기록하며 함께 하는 길 위의 인문학은 때이른 폭염 속에 진행된 그 날을 오래도록 기억한다고 말한다.

또한 참여자들은 오랜만에 인문학 강연이 열려서 좋았고 해박하신 강연으로 2시간이 빠르게 지나갔고 일상 속에서 모든 것이 인문학과 다 관련이 있다는 말이 인상적이었으며 책에서 읽는 정보도 중요하지만 강연을 통해 당시의 시대적 이야기를 듣는 것도 흥미롭고 재미있었다고 많은 분들이 말씀해 주셨다. 이번 사업을 통해 참여자들의 공통적인 소감은 ‘관점’과 ‘도서 선택’이 달라졌으며, 무엇보다 자아의 격이 높아지는 경험을 했다고 말한다.

또 다른 시간을 준비한다

「길 위의 인문학」으로 수상할 수 있었던 것은 지역주민의 관심과 참여가 있었기에 좋은 성과를 냈다고 생각한다.

인문학은 “인간”에게로 향하는 모든 것으로 도서관에서 운영되는 「길 위의 인문학」을 통해 삶 속에서 인문학의 중요성을 깨닫고 답을 찾고 소통하는 즐거움을 발견하는 곳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이어가야 하겠다. 인문학 강연은 사회변화에 따른 현상을 이해하고 사고하며 삶 속에서 인문학이 일상적이며 의미가 있었다는 경험이 중요하다. 다양한 방법으로 표상되는 “앞으로의 인문학”을 준비하고자 한다.



참여자 이야기

인천에 거주하면서 몰랐던 문학과 장소에 대한 강연과 탐방이 기대 이상이었다. 인천이 근대에 중요한 길목이었다는 걸 알고 나니까 이전 인천이 다르게 보일 것 같다. 인천에 살지만 처음 듣는 인천의 미두취인소 터와 세관 이야기에 더위도 있으며 길 위의 인문학을 생생하게 체험하는 시간이다. 문학강연을 들었기에 한국근대문학관을 와봤고 앞으로 관심을 갖고 인문학 강연에 참여할 것이다. 인문학은 유익하고 꼭 필요하다.

참여자 1

점점 깊어지는 서창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강연 참 좋습니다. 문학 속의 인천을 강연과 탐방을 통해 살아있는 인문학으로 체험했으며, 시간 여행을 하듯 과거 속으로 들어가는 기분도 들었습니다.

참여자 2

사진은 글처럼 무슨 말을 하는지 의도를 알 수 있으며, 사진 한 장은 상상 이상의 것을 남긴다는 말의 의미를 알게 됩니다. 강연에 참여해서 물어보기는 처음이다. 감동적인 시간이었다. 사진으로 기억하는 작업이 숭고하다. 사라지고 소멸되고 잊히는 인천의 모습을 기록해줘서 고맙다. 사진으로 감정이 북받치고 눈물이 날 줄이야. 매번 다양한 주제로 인천의 이야기를 기획해줘서 정말 고맙다. 서창도서관에 자주 오게 된 계기가 되었고 다른 프로그램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게 되었다. 인문학을 어렵게 느끼지 않도록 강연과 탐방까지 너무 좋았고 고맙다.

참여자 3

인천을 배경으로 저예산으로 고군분투하는 감독의 강연에 푹 빠지며 들었다. 인문학을 영화영역으로 한 것은 참 잘했다. 국악을 하는 사람으로서 인천 영화감독을 만난 것이 의미 있다. 배꼽이 빠지는 경험을 했다. 인문학이 진지할 뿐 아니라 함께 웃을 수도 있고 자신만의 철학이 담긴 인천인 영화감독은 누구나 자신만의 영화를 만들 수 있는 크리에이터가 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해 주었고 누구나 영화를 만들 수 있다는 감독의 말에 영화를 전공하는 사람으로서 좋은 기획이었다.

참여자 4

우리는 이렇게 했어요



주제 인천 사계, 남동 만개, 인천을 주제로 네 영역의 인문학 향연

유형 자유기획(기본형)

강사 김윤식, 김희주, 백승기, 서은미, 이정선

내용 1차 인천이야기, 문학으로 꽃피다

제1강 향토음식으로 맛보는 인천

제2강 다방, 문학 작품의 무대가 되다

제3강 한국 문학 속의 인천 모습

제4강 | 문학 탐방 | 문학작품 속 인천 배경 장소 탐방

2차 100년의 역사, 근대 개항장에서 확장도시 인천으로

제1강 관문 도시, 인천의 역사 이야기

제2강 인천의 섬과 사람 이야기

제3강 다시 남동으로, 남동이야기

제4강 | 역사 탐방 | 인천과 남동구 역사의 현장을 찾아서

3차 Make your Incheon's film!

제1강 '오늘도 평화로운' 인천 시네마 키즈의 생애

제2강 한국 영화와 인류의 '시발점, 인천

제3강 인터스텔라 VS '인천' 스텔라

제4강 잔고는 비었어도 '잔고'와 인천의 영화는 계속된다

4차 도서관과 박물관 사이 사진으로 읽는 인천 문화의 힘

제1강 역사 속의 장면들, 인천을 찾다

제2강 인천이라는 기억, 사진으로 담다

제3강 아카이빙, 인천의 과거를 미래로 연결하다

5차 | 후속모임 | 글로컬의 부활, 우리는 지역 인문학으로 소통한다

일시 | 강연 | 2022. 6. 11.(토) ~ 9. 24.(토) 14:00 ~ 16:00

2022. 7. 5.(화) ~ 7. 19.(화) 10:00 ~ 12:00

2022. 8. 6.(토) ~ 8. 27.(토) 14:00 ~ 16:00

2022. 9. 3.(토) ~ 9. 24.(토) 14:00 ~ 16:00

| 탐방 | 2022. 7. 2.(토) 09:00 ~ 14:00 / 2022. 7. 26.(화) 09:00 ~ 14:00

| 후속모임 | 2022. 10. 8.(토) 14:00~16:00

장소 | 강연 | 서창도서관 다목적실

| 탐방 | 인천근대문화거리, 미두취인소터, 한국근대박물관, 월미도

인천항 갑문, 인천도호부관아, 인천향교, 장도포대지, 소래 역사관

| 후속모임 | 서창도서관 다목적실

낙중학(洛中學), 대구 유학의 뿌리를 찾아서

수성구립용학도서관

한국도서관협회장상



용학도서관은 대구·경북을 아우르는 지역학과 유학을 중심으로 한 동양학 분야를 특화하여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은 특히 우리 지역에 대해 다양한 강연과 탐방, 후속모임을 진행할 수 있는 사업으로, 용학도서관은 지난 2016년부터 7년째 이 사업을 통해 수성구와 대구 지역학의 기틀을 닦고 있다.

‘낙중학(洛中學)’은 도서관에서 대구유학에 대한 강연을 진행하던 중 계명대학교 철학과 홍원식 교수님을 통해 접하게 되었다. ‘낙중학’이란 낙동강 상류 지역의 퇴계 이황, 낙동강 하류 지역의 남명 조식이 활동한 영남의 중간 지역인 낙동강 중류에 형성된 유학을 말한다. ‘낙중학’이 학계에서 공통으로 쓰는 용어는 아니기 때문에 유사한 의미를 가진 말로 ‘강안학(江岸學)’, ‘대구권 성리학’이라고 학자에 따라 다르게 사용하기도 한다. 용학도서관은 영남의 중간 지역에서 형성된 대구유학이 가지는 고유한 특징이 우리 지역 대구의 정체성을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며 이번 프로그램을 기획하였다.

지역의 정체성을 지역주민과 공유하다

프로그램은 크게 2부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1부는 5회의 강연과 1회의 탐방을 통해 낙중학의 전개 과정을 시대의 흐름에 따라 퇴계(退溪) 이황, 남명(南冥) 조식, 한강(寒岡) 정구, 여헌(旅軒) 장현광, 한주(寒洲) 이진상 등 주요 인물들을 중심으로 알아보았다. 탐방은 성주와 대구 일대의 주요 문화재 및 서원 등을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2부는 대구로 범위를 좁혀 대구유학의 전개과정을 살펴보았다. 연경서원의 건립과 함께 계동(溪東) 전경창, 낙재(樂齋) 서사원, 모당(慕堂) 손치눌, 그리고 3세대 대구 유학자들의 활동을 중심으로 5회의 강연과 1회의 탐방을 진행하였다. 마지막으로 후속모임에서는 우리가 공부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지역의 정체성을 더욱 공고히 하고, 이를 통해 앞으로 대구와 대구유학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우리는 대구유학의 특징이 바로 회통성(會通性)임을 알 수 있었다. 영남학파의 양대 산맥, 퇴계 이황과 남명 조식의 가르침을 함께 이

어 받은 한강 정구는 성주에서 태어나 생애 마지막 6년을 대구에서 제자들을 가르치며 후학을 양성하였다. 한강을 통한 퇴계학과 남명학의 회통은 대구유학이 고유한 학풍을 가지며 발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대구유학의 회통



성은 오늘날 보수의 성지라 불리는 대구가 역사적으로 융합성과 개방성, 실천성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었음을 말해 준다. 용학도서관은 이러한 대구의 정신을 지역주민들과 공유하고 이를 계승하고 발전시킴으로써 우리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담당자로서는 처음으로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사업을 운영하면서 고민이 많았다. 도서관이 운영하는 중요한 사업 중 하나이고, 이용자들도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이다. 공모를 신청할 때부터 관장님을 비롯한 많은 직원들이 함께 고민하고 회의하며 준비하였다. 담당자는 한 명이지만 기획부터 홍보, 강연 준비, 영상 촬영과 편집, 탐방 진행, 성과자료집 제작까지 여러 강사님들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프로그램을 완성할 수 있었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2개월이 넘는 시간 중 탐방을 갔던 날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하루는 대프리카의 위세를 보여주듯 강한 햇별이 내리쬐는 더운 날이었고, 하루는 갑자기 거센 소나기가 내리는 바람에 탐방을 진행하는 내내 가슴을 졸였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열정적으로 강의를 진행하신 강사님과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보고 듣기 위해 열심히 참여한 지역주민들 덕분에 웃으며 마무리 할 수 있었다. 궂은 날씨 때문에 짜증을 내면서도 서로 그늘을 만들어주고 우산이 되어 주던 그 시간들이 우리가 길 위의 인문학 사업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들 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한다.





참여자 이야기

용학도서관이 유학사의 전문 영역을 특성화하고 있는데 대구유학에 대해서는 3~4번 정도 강의를 들었다. 처음 구본옥 선생님께서 대구유학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말 새로운 영역이었다. 대학에서는 지방사를 강조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보통 중앙사를 많이 공부하기 때문이다. 강의를 들으면서 우리 지역에 대한 새로운 내용을 많이 알게 되었고, 그 과정 속에서 계동 전경창 선생부터 3세대 대구 유학자까지 많은 내용을 공부하였다. 앞으로 역사와 함께 지방사를 중·고등학교 교과과정에 포함해서 공부하면 좋겠다. 자라나는 세대들이 새로운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말이다.

참여자 1

용학도서관에 10년째 다니며 해마다 대구유학 강의를 듣고 여러 체험도 하며 탐방도 가고 있다. 여러 교수님의 강의를 들으며 몰랐던 것도 알게 되고 보람도 느끼지만, 뭔가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다. 학문을 깊이 공부한 전문가로서 강연자가 나름대로 정립한 중점과 결론을 정확하게 짚어주고 소신을 정확하게 밝혀주면 좋겠다. 우리 지역에 대해 더 애착을 가지고 대구의 역사와 정체성에 대해 나만의 소신을 정립할 수 있도록 앞으로 좀 더 악센트 있는 강의를 기대한다.

참여자 2

유학이라고 하면 옛날 선비 등을 떠올리며 굉장히 옛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가 자라오는 과정에 항상 함께 있었다. 여러 부작용 때문에 청산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우리 생활 속에 아직 많이 남아 있다는 양면성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가치관이나 도덕적 기준은 대부분 유학의 테두리 안에 있다는 점에서 청산하기는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든다. 우리가 부정하고 고루하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유학의 밑바탕에 있는 민본주의 등은 오히려 서양의 민주주의보다 더 지고 지순하기도 하다. 우리의 피 속에 유학이 내재되어 있음을 무시할 수 없기에 이를 기저로 해서 우리의 미래를 열어가야 되지 않나 생각한다. 무조건적인 서구중심주의보다는 우리 미래 세대가 우리나라의 독창적인 문화를 이끌어가는 데 유학을 적극 활용하면 좋겠다.

참여자 3

우리는 이렇게 했어요



주제 낙중학(洛中學), 대구를 흐르다

유형 특화기획(주제특화)

강사 구본옥, 권상우, 이갑규, 이세동, 장윤수, 정우락, 추제협, 홍원식

내용

- 1차 '낙중학'의 전개 - 영남유학과 '낙중학'
- 2차 '낙중학'의 전개 - 여말선초의 낙중지역 사림제한
- 3차 '낙중학'의 전개 - 퇴계 이황과 남명 조식
- 4차 '낙중학'의 전개 - 정구와 장현광의 한려학파
- 5차 '낙중학'의 전개 - 한주 이진상과 주문팔현
- 6차 | 탐방 '낙중학'의 전개 - 회연서원, 한강종택, 청천서당, 하목정, 육신사, 도동서원
- 7차 대구유학의 전개 - '낙중학'과 대구유학
- 8차 대구유학의 전개 - 연경서원과 대구유학의 등장
- 9차 대구유학의 전개 - 『통강록』을 통해 본 대구유학의 특징
- 10차 대구유학의 전개 - 환국기와 대구유학의 분열
- 11차 대구유학의 전개 - 대구의 누정과 선유문화
- 12차 | 탐방 대구유학의 전개 - 사양정사, 병암서원, 계동정사
- 13차 | 후속모임 대구유학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일시 | 강연 | 2022. 6. 8.(수) ~ 8. 10.(수) 16:30

| 탐방 | 2022. 7. 9.(토) 09:00 / 2022. 8. 13.(토) 13:00

| 후속모임 | 2022. 8. 13.(토) 17:00

장소 | 강연 | 용학도서관

| 탐방 | 대구 및 성주 일대

| 후속모임 | 용학도서관

강서의 비석 탐방

강서구립꿈꾸는어린이도서관

한국도서관협회장상



꿈꾸는어린이도서관에서는 2020~2021년 <우리 동네 인문교육 자료개발 사업>의 최종결과물로 2021년 11월 『강서 한강변 누정의 어제와 오늘』이라는 책을 발간하였다. 이 도서를 기반으로 그 자료에서 심화하지 못한 부분을 보완하고 발전시키고자 「길 위의 인문학」 사업의 일환으로 <강서의 비석 탐방>을 기획하게 되었다.

도서관이 자리 잡고 있는 우리 고장, 서울의 강서는 옛 양천(陽川)으로 수많은 역사인물이 태어나고 활약한 곳이다. 현재 강서지역에 남아있는 묘역과 비석들뿐만 아니라 현대에 건립한 의성(醫聖) 구암(龜巖) 허준(許浚)과 화성(畫聖) 겸재(謙齋) 정선(鄭善)의 공덕비는 역사문화와 현대 시민의 휴식공간인 공원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있다. <강서의 비석 탐방>을 통하여 강서지역민들의 역사문화 교양을 함양하고 내 고장 사랑을 촉진하는 또 하나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2022년 「길 위의 인문학」은 기존의 프로그램과 연계 보완하여 ‘강서의 금석문’으로 주제를 심화하고 확대하였다. 내 고장에 있는 비석에 대해 조사하고 자료를 찾아 지역주민과 함께 비석을 세운 경위에 대해 알아보았다. 또 관내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해당 분야 전문가의 강의와 대담을 진행하여 일반인이 친근하게 인문학에 접할 수 있도록 하였다.



우리 고장 비석으로 지역의 역사와 인물 탐구

우리 도서관 프로그램의 특이점은 ‘지역성 강화’와 ‘향토문화전문가 양성’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동네 옛 양천은 삼국시대에서는 재차파의현(齊次巴衣縣), 통일신라시대에서는 공암현(孔巖縣)으로 일컬어지다가 고려 말에 비로소 양천현(陽川縣)이라는 이름으로 자리를 잡았다. 오랜 역사를 가진 이곳은 수도 서울의 관문으로 한강수로 및 강화와 개성 육로로 연결되는 군사적·경제적 요충지로 기능해 왔다.

한강변을 따라 형성된 기암절벽의 절경과 그곳에 건립된 수많은 정자들로 인하여 조선시대의 사대부들에게는 풍류를 즐기는 최고의 명소가 되었다. 자연히 이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한 수많은 인물들과 가문이 탄생하였다. 이들의 세거지(世居地)와 세장지(世葬地)가 대부분 여기에 형성되면서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풍부한 금석문물이 옛 양천 곳곳에 즐비하였다. 하지만 1960년대 말부터 1970년대 초반까지 대규모로 진행된 도심 개발과 도로 건설로 야산 일대에 산재해 있던 묘소들이 대부분 타 지역으로 이전되었다. 안타깝게도 당시의 열악한 여건 때문에 신도비(神道碑)와 묘갈(墓碣) 등 상당수의 중요한 금석문을 망실할 수밖에 없었다. 많은 제약 속에서도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소정의 성과를 도출할 수 있어 다행이라는 의견이 많다. 우리 고장의 역사와 인물을 탐구하고 확장하는데 중요한 지침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길 위의 인문학으로 향토문화전문가로 성장

비석탐방단의 구성과 활동은 우리 프로그램의 특화를 대변한다. 2020년과 2021년 「길 위의 인문학」 프로그램으로 진행된 ‘우리동네 인문교육 자료개발사업’(「강서 한강변 누정의 어제와 오늘」)부터 참여한 강사와 수강생을 주축으로 탐사단이 구성되어 사전 조사와 탐사 및 연구가 함께 이루어졌고 프로그램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실제로 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옛 양천 강서의 인물 115인이 발굴되었다. 이러한 성과는 ‘옛 양천의 금석문 이해’의 기반이 되었으며, 단행본으로 결과물이 출판될 예정이다. 따라서 「길 위의 인문학」사업이 초석이 되어 향토자료의 발간이라는 진정한 인문학의 결과물로 완성되었다고 자부한다.

10여 년 전부터 우리 도서관의 인문학프로그램(동양고전 읽기, 토요일인문학, 꽃보다 인문학, 오후학교 등)에 참여한 노장년층이 참가자의 대부분이다. 자연스럽게 인문학을 사랑하는 동아리로 성장했으며, 「길 위의 인문학」을 중심으로 탐사단이 결성되었다. 이들은 인문학프로그램과 더불어 향토문화전문가로 결속되어 거듭 성장하고 있고 향후에도 지속적인 활동과 소통이 계속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길 위의 인문학」 사업을 담당하면서 많은 회의와 희망을 안게 되었다. 코로나의 거친 물결 속에서 비대면이 아닌 대면강의와 탐방을 할 수 있을지가 가장 큰 걸림돌이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모집이 안 되면 어떡하나?’라는 점은 기우였다. 현실적으로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우리 고장의 비석’이라는 주제가 갖는 의미가 더 크게 다가온 것 같다.

첫 수업부터 강의실이 만원사례가 되어 거리두기원칙을 지키느라 고심을 해야 했으며, 특히 ‘비석에 투영된 타자의 삶을 경험할 수 있어 흥미가 있었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뿌듯함과 보람을 느끼게 했다. 앞으로도 「길 위의 인문학」 프로그램을 통해 인문학 강연과 탐방을 경험하고, 나아가 독서와 결합하여 책과 현장과 사람이 만나는 새로운 독서문화의 마당을 열게 되기를 희망한다.



참여자 이야기

옛 양천 강서의 어제와 오늘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유서 깊은 옛 양천과 현재의 강서를 이해하고 자부심을 갖게 되었다. 강연과 대담 등을 통해 강서의 역사에 대해 알게 되었고, 탐방을 통해 강연의 내용을 깊이 있게 이해하게 되었다. 비석에 투영된 역사와 문화를 통해 자신의 삶을 회고하고 미래를 계획하는 통찰력이 충만해졌다. 후속모임에서 마치 비석인양 액자로 만든 묘비명 쓰기가 특히 인상적이었다. 프로그램의 전과정(강연, 특강, 대담, 탐방)은 우리 고장의 역사와 인물에 대한 자긍심과 애郷심을 북돋아 주었다. 특히 후속모임으로 진행한 공감과 소통의 시간은 소중한 경험이 되었다. “자명(自銘), 나의 묘비명을 마음에 새기다”를 각자 작성하고 발표하는 기회를 통해 스스로의 삶을 통찰하고 여생의 목표를 다시 세울 수 있었다.

참여자 1





하루아침에 날씨가 뚝! 초겨울처럼 약간 쌀쌀하고 춥다! 기분은 시원하다^^
딱, 걷기에는 안성맞춤! 아침, 강서비석탐방 두 번째 시간, 봉제산에 오르면서 (문득 생각) 칠십 넘어 완전 은퇴의 시기, 그래도 항상 새로운 걸 배우고 싶고, 옛(고전) 것에 대한 궁금증이 항상 머릿속에 남아있는데... 내게 이 갈증을 해소 할 수 있는 「길 위의 인문학」 프로그램은 큰 행운이었다. 정말 고맙습니다. 김종명 박사님의 명강의! 새로움이 속속 입력됐다. 옛 양천의 역사와 지리, 인물, 금석문 등 10회 강의를 경청하고, 마지막 날 탐방이다. 영월 엄씨, 원주 김씨, 묘비석도 둘러봤다. 아, 그 시절의 그 분들의 지위(벼슬) 그 가문들의 내역 등... 조선시대의 사회상을 자상하게 설명 해 주셔서 새롭게 감(感)이 오고, 그 옛날을 상상 유추해 볼 수 있었다(아? 전번 주 개화산탐방을 같이 못한 게 못내 아쉽다!). 한편, 조선시대, 유교문화, 성리학들을 되새겨 보면, 작금의 현실과는 너무 다르지만 “죽은 자가 산 자의 신을 지배했다” 조상에 대한 섬김, 또 (족보)씨족사회의 내림. 당시 조상들의 뜻을 되새겨보는 시간이었다. 아, 단풍도 지고, 이제는 낙엽이 우수수 날린다. (이 올드맨은) 봉제산 둘레 길, 낭만의 시간~ 강서 비석탐방의 시간은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다. 꿈꾸는어린이도서관 모든 분들께 감사인사를 보냅니다.

참여자 2



강사 이야기

2022년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자유기획 프로그램으로 강서의 비석탐방을 진행하였다. 이는 현재의 서울시 강서구와 양천구 및 영등포구 일부로 구성되었던 옛 양천지역에 소개하거나 출토된 금석문을 고찰하고 탐사하는 프로그램이다. 사실 옛 양천은 우리나라 역사의 중요한 한 거점으로 기능해왔고 역사적 인물과 이야기들이 넘쳐나는 곳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석문 연구가 미흡하여 온전한 양천향토사를 완성하지 못하고 있었다.

본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진행하기 위하여 마치 연구프로젝트를 수행하듯이 여러 가지 보완 장치를 가동하였다. 우선, 묘역 등을 탐방하는 탐사단을 조직하여 정기적으로 현장 답사를 진행하였다. 다음 주제 강의와 특강, 대담과 탐방 등을 통하여 관련 주제를 심화하고 외연을 강화하였다.

이번 프로그램에서 다소 미진하게 다루어진 부분이 있다면 차후의 인물 연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이번 연구의 성과물들이 큰 안내 역할을 해주리라 기대한다. 우리 고장의 금석문과 향토사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가지신 참여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우리는 이렇게 했어요



- 주제** 강서의 비석 탐방
- 유형** 자유기획(기본형)
- 강사** 김용권, 김종명, 김우림, 김래정, 백낙춘, 송하경, 이미남, 정규승, 한종섭
- 내용**
- 1차 옛 양천의 역사와 지리
 - 2차 양천의 인물과 금석문
 - 3차 양천 소재 비석
 - 4차 대표가문과 이장묘역
 - 5차 기타 인물과 금석문
 - 6차 역대 현령과 금석문
 - 7차 | 특강1 겸재정선과 공덕비
 - 8차 | 특강2 허준가문과 묘소
 - 9차 | 대담1 금석문의 역사와 발굴
 - 10차 | 대담2 비문의 세계1
 - 11차 | 대담3 비문의 세계2
 - 12차 | 탐방1 개화산 탐방
 - 13차 | 탐방2 봉제산 탐방
 - 14차 후속모임
- 일시** | 강연 | 2022. 8. 5.(금) ~ 2022. 11. 4.(금) 10:00 ~ 12:00
 | 탐방 | 2022. 10. 28.(금) 09:00 ~ 13:00
 2022. 11. 4.(금) 09:00 ~ 13:00
 | 후속모임 | 2022. 11. 4.(금) 13:00 ~ 15:00
- 장소** | 강연 | 꿈꾸는어린이도서관 3강의실
 | 탐방 | 1차 개화산 / 2차 봉제산
 | 후속모임 | 꿈꾸는어린이도서관 꿈둥이책마루실

 **관장** 이경남 **담당사서** 정유진

 **홈페이지** lib.gangseo.seoul.kr

 **주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615

 **연락처** 02-3663-4025

박수근의 고향 “양구” 미술 속 인문학, 전지적 박수근 시점

양구교육도서관

한국도서관협회장상



양구교육도서관이 2022년 「길 위의 인문학」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관내 초등학생 3~5학년 20명을 대상으로 강연 4회, 탐방 1회, 후속 모임 1회로 총 6회에 걸쳐 진행하였다. 수업은 여름 8월부터 시작했다.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박수근” 주제의 인문학 강의는 학부모들의 입소문을 타고 여러 문의와 인기로 모두 선착순 마감이었다.

미술 속 인문학 전지적 박수근 시점은 양구의 역사를 보여주는 박수근 미술작품 속 이웃들의 삶을 통해 일상 속 삶의 가치를 찾고 어린이들의 인문학적 소양 함양과 자발적인 독서의 흥미를 유발하고, 우리 고장 배꼽 마을 양구와 박수근 작품세계 속 인간의 삶과 예술에 대한 인문학적 이해를 하고자 강연의 문을 열었다. 아이들이 지루한 강의식 수업을 듣는 것이 아니라, 강연을 듣고 내가 직접 체험해 봄으로써 박수근 미술을 이해하고 아이들의 수업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하였다. 홍보문 또한 박수근 미술작품의 질감을 표현하고자 노력하였다.

강연과 체험의 콜라보

첫 강연은 박수근의 양구 시절을 담은 역사 수업으로 시작했다. 박수근의 미술작품 속 시대는 우리 한국 근현대사에서 빠질 수 없는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에 대해 알아보고 화가 박수근이 살았던 시대를 아이들이 작품을 보며 간접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활동으로는 미래의 내가 살고 있는 시대 풍경을 그림으로 그려 보는 것이었다. 아이들은 미래 사람들의 삶을 생각해보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모든 것이 기계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풍경 등 아이들의 상상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시간이었다.

이어서 두 번째 수업은 『꿈꾸는 징검돌』의 저자 김용철 작가님의 강연이었다. 박수근의 이야기를 다룬 『꿈꾸는 징검돌』 그림책을 바탕으로 한 배꼽 마을 양구와 시골 소년 박수근의 이야기를 재미있게 들려주셨다. 양구가 고향이신 작가님의 양구와 박수근에 대한 애정의 깊이를 느낄 수 있는 수업이었다.

세 번째 수업은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다. 원래의 일정은 김용철 작가님과 박수근 미술관을 탐방 수업이었으나, 박수근 미술관의 대회 일정과 겹친 것이었다. 미술관의 공지가 임박해서 올라와 소식을 들을 수 있었다. 부랴부랴 아이들과 학부모들께 공지를 하여 강연은 일주일 뒤인 10월 첫째 주에 진행하였고 미술관 탐방은 아이들과 학부모, 작가님에게도 너무나 뜻 깊고 좋은 추억이 되었다. 박수근 미술작품을 감상하고 또, 김용철 선생님의 해석과 설명, 라키비움 앞 잔디밭에서의 스톤아트 체험은 아이들이 함께 박수근 미술을 직접 그려 보고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모두들 너무나도 잘 그렸지만 박수근이 그린 것처럼 우리를 매우 잘 표현한 아이가 있어, 선생님께 칭찬도 받고 아이들도 같이 구경하며 간식도 먹으며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생각했던 것보다 아이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돋보였던 시간이었다. 탐방이 끝나고 학부모분들에게 “아이들이 오늘 너무나도 재밌어했다”는 문자를 받으며 나를 더 행복하게 했다.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수업은 아이들이 기다리던 본격적인 미술 체험이 시작되었다. 서울에 미술 인문학 강연으로 유명한 '소통하는 그림연구소'의 강사 선생님을 초빙하여 박수근의 삶과 생애를 알아보고 박수근 회화의 특징을 이해하기 위한 강연이었다. 박수근의 밀레에 대한 오마주를 이해하고 나의 주변과 연관 지어 생각해보며 캔버스에 나의 일상의 한 장면을 박수근 작품 속 마티에르 질감으로 구현해 봄으로써 박수근 미술의 질감을 나타낼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다섯 번째 수업에서는 박수근과 교류했던 동시대 인물들을 살펴보고 박수근 작품에서 나타나는 일상의 오브제를 감상하였다. 미술 체험으로는 나의 일상의 물건 중 소중한 것을 생각해보며, 평범하지만 나의 소중한 물건을 수채화 기법을 적용하여 표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후속모임을 마지막 수업으로 지금까지의 강연의 이해를 바탕으로 아이들이 박수근의 그림책인 『바보온달』을 읽고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림책이지만 혹시 못 읽어온 아이를 위해 읽어 볼 수 있는 시간도 가졌으며 간식과 함께 독서퀴즈를 하며 재미있게 진행했다.

가족 모두의 「길 위의 인문학」

우리 양구교육도서관은 양구 시내에 위치하여 교통 접근이 편리하고 바로 옆에 아파트 단지가 있어 주말이면 도서관을 이용하는 가족들이 많다. 그래서 이번 「길 위의 인문학」 프로그램도 가족이 관심을 갖고 탐방을 다녀와서 고생했다는, 감사하다는 문자를 보내주신 학부모님들이 많이 계셨다. 또한 초록북(독서동아리)도 참여하는 영빈이, 영찬이, 민재, 지우. 형제인 줄 몰랐던 민아와 태유. 출석률이 너무 좋은 도윤이, 지율이, 가현이, 은율이, 하영이, 가람이, 가은이, 지민이, 소민이.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은 민정이. 장난꾸러기 민재. 서로 닮은 게 싫은 자매 도연이, 현서. 요즘 잘 안 보이는 서준이, 윤성이. 모두들 덕분에 알차고 재미있게 진행할 수 있어 오히려 고맙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다.

우리는 이렇게 했어요



주제 미술 속 인문학, 전지적 박수근 시점

유형 자유기획(보급형)

강사 김용철, 남선희, 서민지, 윤영내

내용 1차 시대공감: 박수근의 양구 시절

2차 <꿈꾸는 징검돌> 김용철 작가 강연

3차 박수근과 밀레 그리고 마티에르

4차 김용철 작가와 함께 떠나는 박수근 미술관 탐방

5차 박수근과 친구들 그리고 일상의 오브제

6차 <박수근의 바보 온달> 화가 박수근이 그린 고구려 이야기 독서토론

일시 | 강연 | 2022. 8. 13.(토) ~ 2022. 10. 22.(토) 16:00 ~ 18:00

| 탐방 | 2022. 10. 1.(토) 13:00 ~ 17:00

| 후속모임 | 2022. 10. 22.(토) 16:00 ~ 18:00

장소 | 강연 | 양구교육도서관

| 탐방 | 박수근 미술관

| 후속모임 | 양구교육도서관

 **관장 김훈** 담당사서 박지희

 **홈페이지** lib.gwe.go.kr/yglib

 **주소**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우정로 119번길 30

 **연락처** 033-482-0284

나무와 문화, 나란히 걷다

달성군립도서관 | 이운형

한국도서관협회장상 | 우수담당자 수상자



달성군립도서관은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의 원년부터 함께 하였다. 2014년 도서관 개관부터 사업수행기관으로 선정되어 사업을 충실히 운영했다. 2021년에는 자유기획 기본형과 심화과정 ‘읽고 쓰기’를 함께 진행하였고, 2022년에도 자유기획 보급형과 대상특화 과정을 함께 진행하였다.

달성군립도서관이 위치한 달성군은 옥포읍의 이팝나무 군락지, 하빈면의 하목정, 육신사(배롱나무 군락지) 등 주제와 관련된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문화유적지를 가진 역사·문화 도시이다. 이와 같은 달성군의 천연적인 지역적 인프라를 시민들을 위한 인문학적 소양 함양에 활용하기 위해서 나무와 역사, 문화라는 융·복합적 주제를 강연과 탐방으로 배치하여 통섭적으로 진행하고자 했다.

이번 「길 위의 인문학」은 목적은 두 가지이다. 먼저, 달성군의 군화(群花)이기도 한 이팝나무와 문화유적지인 하목정(霞鷺亭), 육신사(六臣祠)에 만개하는 배롱나무(백일홍) 등을 시민에게 소개하고 이를 통해 지역의 특색 있는 자연경관과 문화 유적을 알리는 정보제공이다. 둘째로는 정보제공과 함께 숲이 주는 공익적 가치와 이목을 끄는 스토리텔링으로 향토적 정신문화를 알림으로써 긴 사회적 거리 두기로 지친 마음을 치유하고자 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달성군의 인프라 활용으로 지역의 숲 전문가, 유교 문화 전문가를 초빙하여 담당사서, 독서문화팀 팀장, 관장님과과의 상의 끝에 프로그램 계획을 도출하였고, 탐방 장소를 선정했다.

「길 위의 인문학」 운영 기관으로 선정됨과 동시에 홍보를 진행했다. 오프라인 홍보를 위해 도서관 외부 현수막과 도서관 내부 배너 설치, 홍보 게시물 부착, 자료실마다 유인물을 비치하였고, 온라인 홍보를 위해 도서관 홈페이지와 관계기관에 홍보를 부탁드렸다. 달성군 블로그 기자단의 협조를 통해 블로그로 홍보를 하였고, 도서관의 SNS 채널(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을 활용하여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펼쳐나갔다. 달성군 소식지 <군민이 빛나는 달성>을 통해서도 홍보를 진행하였고,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배포했다. 참여자 연령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침 없이 2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했다. 총 5회로 2회의 강연, 2회의 탐방, 1회의 후속모임을 가졌다.

지역 숲의 숨은 이야기

진행은 강연 후 탐방으로 이루어졌으며 먼저, 1차 강연은 ‘나무로 만나는 세계’로 배롱나무, 이팝나무, 벚나무 등 계절을 알려주는 나무에 대한 강연이 진행되었다. 대구에서 가장 오래된 이팝나무가 가창면 행정리에 있다는 내용, 옥포읍 교항리 이팝나무 군락지가 수령 200년 이상의 이팝나무 40그루와 최근 심은 나무 500여 그루가 자라고 있다는 내용, 이팝나무와 얽힌 가슴 아픈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었다. 강연 후의 탐방은 5월 중순에 옥포읍 교항리의 이팝나무 군락지를 방문했다. 평소보다 높은 기온으로 인하여 이팝나무 개화 시기가 약간 지났으나, 숲 해설가인 예근수 선생님이 약이 되는 식물, 독이 되는 식물, 사람들이 많이 헛갈릴 수 있는 식물의 구분법 등 상세한 설명과 해설로 충실하게 탐방을 진행하여 주셨다. 이 탐방을 통해 지역의 멋진 자연환경 유산인 이팝나무 군락지를 처음 접해보는 분들도 많았다. 군락지 조성 때부터 마을 공동체 숲에 담긴 숨은 이야기를 되새기며, 길 위의 인문학이 추구하는 지역의 자연, 문화유산을 지역주민에게 연결한다는 의미도 발견할 수 있는 뜻 깊은 시간이었다.

2차 ‘나무로 만나는 인문학’ 강연에서는 대구향교 장의로 계신 송은석 선생님을 모시고 하목정과 육신사, 그리고 배롱나무에 얽힌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건축적 측면에서 하목정이 유·불의 도를 어떻게 이루어내는지, 조선의 인조 임금이 하목정에 다녀가고 이후 하목정의 창건주 이종문의 아들 이지영과 경연 자리에서 만나 나는 대화가 실제로 역사서에 남은 이야기인지 검증하는 시간을 가졌다. 문중의 구전을 신화, 전설로 치부하기보다는 사실 여부를 떠나 행간에 숨어있는 상징성을 읽어야 한다는 주장이 흥미로웠다. 하목정과 육신사의 입지를 풍수지리적, 자연 환경적으로 풀어서 설명하는 부분에 더하여 현풍곽씨 12정려각(玄風郭氏十二旌閭閣) 이야기까지, 효와 신의의 가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후의 2차 탐방에서는 육신사를 방문하여 보물 제 554호인 태고정(太古亭)과 평소 일반인에게는 공개되지 않는 사당 내부도 탐방하여 길 위의 인문학 탐방만의 특수성을 맛볼 수 있었다. 배롱나무의 붉은 꽃이 만개한 육신사 안의 광장에서 사육신이 어떻게 충

절과 신의(단심, 丹心)를 지키고 어떻게 목숨을 잃게 되었는지 자세한 설명도 들을 수 있었다. 육신사 기념관을 방문하여 각종 전시물의 해설을 경청한 뒤, 도곡재(陶谷齋)에서 박팽년 선생의 후손인 선생님도 만나 뵙고 육신사가 위치한 못골(묘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알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이후 후속모임에서는 1, 2차 강연과 탐방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시간과 함께 참여 소감을 작성하는 시간을 가지며 결과물을 제작하기로 했다. 결과물은 실제로 접한 나무와 숲, 문화유산을 대한 소감문과 토론, 탐방사진을 묶어 내는 소책자로 온라인 앨범 제작 사이트를 이용하였는데 마음먹은 대로 편집하기가 곤란하여 제작에 시간이 오래 소요되었다. 제작을 마친 후 참여하신 분들께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려 결과집을 나누고 감사를 드렸다. 2022년 「길 위의 인문학」 진행은 도서관이 중심이 되어 지역민들에게 지역의 숲과 지역 문화를 다시 한 번 살



펴보며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것에 의미가 있었다.



참여자 이야기

평소 도서관을 방문하던 중 게시판을 통해 길 위의 인문학을 알게 되었고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습득할 수 있어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인문학 강의가 개설되기를 바라며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다양한 종류의 강의를 개설되기를 희망합니다. 유익한 강좌들로 인하여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여자 1

푸르름이 짙은 7월의 끝자락에 다시 찾아온 도서관에서 마주한 인문학! 항상 숲을 보면서 몸과 마음이 치유된다는 생각만 했는데 선생님의 강의를 들으니 더욱더 신기하고 경이롭기까지 합니다. 인간들도 살아남기 더 성공하기 위해 전문분야를 쌓듯이 경쟁을 하는데 식물, 짐승들도 특히 식물들도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 가시도 있고 냄새와 독성을 가지고 자기를 방어하고 살아가는 걸 보면서 새삼 존경스럽기까지 합니다. 이름도 정겹게 얘기똥풀, 토끼풀 등입니다. 특히 토끼풀은 처녀와 아줌마가 표가 난답니다. 수정하지 못한 꽃은 위로 피고 수정이 된 꽃은 아래로 떨어뜨린대네요. 신기하지 않나요! 배우면 배울수록 빠져듭니다. 감사합니다.

참여자 2

도서관에서 보내온 안내 문자를 보고 참가했습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했던가요. 모르고 지나친 부분들이 전문가인 선생님의 상세한 설명을 들으니 좋았습니다. 숲 해설을 보며 더불어 사는 자연의 이치와 신비를 알수록 흥미롭습니다. 개인적으로 육신사에 갈 때는 수박 겉핥기식으로 보고 왔는데, 도서관에서 전문가와 함께 탐방을 가니 속속들이 볼 수 있고 상세한 설명도 들으며 볼 수 있어 좋았습니다. 육신사가 있는 묘골이 형성된 내력, 사당의 내력, 사당의 알묘와 태고정에 직접 들어가 본 경험, 그 외 많은 유적과 유물을 직접 보고 설명을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참여자 3

우리는 이렇게 했어요



주제 나무와 문화, 나란히 걷다

유형 자유기획(보급형)

강사 송은석, 예근수

내용 **1차 | 강연** 나무로 만나는 사계

탐방 나무로 만나는 사계 - 이팝나무 군락지 탐방

2차 | 강연 나무로 만나는 인문학

탐방 나무로 만나는 인문학 - 육신사 탐방

후속모임 나무로 만나는 인문과 문화의 숲

일시 | **강연** | **1차** 2022. 5. 7.(토) 10:00 ~ 12:00

2차 2022. 7. 16.(토) 10:00 ~ 12:00

| **탐방** | **1차** 2022. 5. 14.(토) 09:00 ~ 13:00

2차 2022. 7. 23.(토) 09:00 ~ 13:00

| **후속모임** | 2022. 7. 30.(토) 10:00 ~ 12:00

장소 | **강연** | 달성군립도서관 3층 시청각실

| **탐방** | **1차** 달성군 옥포읍 교항리 이팝나무 군락지

2차 달성군 하빈면 육신사

| **후속모임** | 달성군립도서관 3층 시청각실

관장 조병로 담당사서 이운형

주소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달구벌대로174길 10-13

홈페이지 library.daegu.go.kr/dalseonglib/index.do **연락처** 053-584-0011

취향의 발견과 기쁨, 사람과 마을을 잇다!

맨발동무도서관 | 고은영

한국도서관협회장상 | 우수담당자 수상자



「길 위의 인문학」은 2019년부터 맨발동무도서관의 대표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사회적인 이슈와 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맞추어 주제를 정하게 되는데, 특히 팬데믹이 시작되었던 2020년에는 <전환, 지속가능한 삶으로 가는 길!>이라는 주제로 환경과 삶의 전환에 대한 질문을 던지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았고, 2021년에는 <‘공존’의 연결술사가 되기 위한 지침서>로 ‘인간’ 중심이 아닌 ‘지구’ 중심적인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 공존을 이야기하며 생태감수성을 높이는 시간을 마련하였다. ‘코로나’로 인해 재난을 맞이한 이 시대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저마다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 속에 「길 위의 인문학」 프로그램이 있었다.

2022년에는 이의 연장선상으로 그동안 진행했던 ‘전환’, ‘공존’, ‘연결’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공동체’에 대한 주제를 떠올렸는데,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성의 발견과 성장을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의 자기 탐색과 이해, 관계력을 기반으로 하는 건강한 이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이음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인문학적 성찰과 기록을 통한 탐색, 그리고 비슷한 관심과 필요를 가진 사람들이 모인 다양한 취향공동체들의 연결임을 지난 「길 위의 인문학」 프로그램 참여자들을 통해 발견했기 때문이다. 도서관의 주 이용자 중 한 층인 중장년 여성들에게 삶의 전환에 대한 질문을 던지며 나와 연결되어있는 이웃과 마을에서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한 인문학적인 장과 도구들을 마련하고, 자기 기록화 작업을 하여 성장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기를 원했다. 또한 맨발동무도서관이 위치한 화명2동 대천마을은 재개발로 새로운 주민들이 이주해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린이들의 시선으로 마을을 잇는 마을설명서와 같은 기록작업을 하여 새로운 입주민들과 마을이 소통할 수 있는 매개를 만들고 싶었다.

이를 위해 춤, 음악, 걷기, 만다라워크숍, 글쓰기 등 다양한 문화예술도구로 취향공동체를 만들고, 주제별 강좌, 음악회, 탐방, 후속모임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나와 이웃을 발견하고 연결하는 장을 기획하였다.

연결의 취향공동체

〈취향의 발견과 기쁨, 사람과 마을을 잇다!〉라는 대주제 안에서 다섯 개의 주제별 강좌를 마련하였는데, 작가와 함께 도시의 옛길과 현재의 길을 사박사박 걸으며 삶을 돌아보는 〈걷기의 기쁨〉, 발레로 나의 몸과 마음을 들여다보는 〈양달리 발레〉, 도시에서 자립적인 삶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적정기술을 익히는 〈리틀 포레스트〉, 마을에서 살아가는 중장년들이 삶의 전환에 대해 질문하고 글을 써보는 〈기록하는 여자들_ 내게 말 걸기〉, 어린이들의 시선으로 우리 마을을 즐길 수 있는 활용법을 찾고 기록하는 〈어서와! 꿀잼 대천마을은 처음이지〉 이렇게 다섯 개의 취향공동체를 모집하여 평균 4회차, 글쓰기는 8회차로 진행하였다.



평소에 관심 있었던 주제 또는 관심은 있지만 시도해보지 못했던 다양한 분야들을 선택하여 신청한 참여자들은 그 안에서 비슷한 관심과 고민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 관계력을 키우면서 해당 주제들을 함께 공부해가는 길 위의 인문학, 길 위의 동반(道伴)이 되었다.

주제별 강좌를 모두 마친 다음에는 각각의 취향공동체를 이어주는 만다라 워크숍과 평온음악회, 그리고 탐방의 자리를 마련하여 다른 주제의 참여자들과도



만나게 하였고, 후속모임에서는 주제별 강좌를 통해 배우고 느꼈던 사례들을 서로 공유하며 긴 여정의 소회들을 나누기도 하였다.

확장되는 개개인의 사유와 공동체적 생각들

강좌마다 강사님이 소개하고 추천해 주신 책들을 함께 읽고 나누면서 해당 주제에 대해 더 깊게 알아가고 싶어 하는 참여자들이 있었고,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아도 열람실 내에 「길 위의 인문학」에서 다루고 있는 책과 자료들을 전시해 놓은 컬렉션에 관심을 보이는 이용자들도 많았다. 인문학적인 사유를 돕는 강좌, 실제로 몸을 움직여 참여하는 체험, 탐방이 조화롭게 이루어진 강연들이라 참여자들의 만족도도 높았다.

본인이 좋아하거나 잘 할 수 있는 것들로 자기를 탐색하고, 비슷한 관심과 필요를 가진 사람들과의 만남을 마련하는 것에 큰 중점을 두었는데, 이는 지난 「길 위의 인문학」 프로그램 참여자들과 이용자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기 때문이다. 걷기, 발레, 글쓰기, 그림 등 다양한 문화예술도구와 적정기술에 대한 관심과 요구들에 의해 마련된 프로그램에서 다양한 취향공동체가 만들어졌고, 수업이 진행되는 동안 참여자들과의 관계가 깊어지면서 개개인의 사유와 공동체적인 생각들이 확장되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후 관심을 넘어 심화로 이어가고 싶은 사람들도 있었고, 특히 ‘걷기’는 참여자들의 자발적인 의견을 반영하여 후속 동아리로 만들어질 예정이다. 걷기의 기쁨을 발견한 이들에게 도서관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길 위에서 인문학적 성찰을 돕는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다.



참여자 이야기

인문학이란 뭘까? 걸으면서 인문학이라... 막연하다. 말하지 않는 것에서 말을 하게하고, 들리지 않는 것에서 듣게 하고, 소통하지 않는 것에서 소통을 하게 하는 행위, 사고, 생각들이 아닐까? 그것을 얻기 위해서 걸어야 한다. 그러면 어떻게 걸어야 하는가? 걸으면서 바람을 느끼고 걷는 행위가 오늘 걸은 길이 내일은 또 다를 수도 있지만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도전하고, 깨지고, 다시 나아가고... 걸으면서 이런 복잡한 것들을 정리해 낼 수 있다. 그래서 계속 걸어야 한다. 작은 발걸음이라도 의미 있게! 맨발동무 도반들과 함께 걸을 수 있어서 좋았다.

참여자 1

발레는 예술이고 전공자가 하는 춤이라고 생각해서 문턱이 높았는데 이번 길 위의 인문학 프로그램을 통해 발레에 대한 이미지를 깬다. 요가만큼이나 몸에 집중하는 춤이면서 운동이었다. 일주일에 한 번이었지만 온전히 내 몸에 집중할 수 있어서 좋았다. 매 시간마다 몸의 모든 감각을 깨우고 몸의 환기를 하는 시간이었다. 세상을 알아가는 것만큼이나 나에 대해, 내 몸에 대해 알아가는 것도 중요하다는 걸 느꼈다. 몸을 통해서도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교류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참여자 2

길 위의 인문학 리틀포레스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동안 내용의 진정성이나 퀄리티에 놀라고 많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일상이 바쁘다는 이유로 성실하게 참여하지는 못했지만 참여하는 순간만큼은 따뜻함으로 꽉 찼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늘어나서 정과 온기를 나누는 분들이 늘어나면 좋겠습니다. 길 위의 인문학 파이팅!

참여자 3

나에게 글쓰기는 마음이 쪼그라들고 용기가 필요한 일이다. 이런 마음에서 조금이라도 자유로워지고 싶어 글쓰기 수업에 참여했는데 역시나 글쓰기는 체기가 느껴진다. 하지만 다른 분들의 글을 듣는 건 감동이었다. 자신의 삶을 자신의 목소리로 들려주는 시간은 나의 이야기, 나의 어머니 이야기, 나의 아버지 이야기, 나의 아이의 이야기였다. 아직 글로 표현하는 근력이 없는 내가 도망가지 않고 마무리한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다.

참여자 4

쓰기는 내가 공을 들이고 노력하는 일에 포함되어 있다. 나는 뭐든지 오랜 시간이 걸려서 되는 사람이었다. 내가 쓰고자 한 것은 집 이야기로, 산성마을에 이사해서 정착기까지 16년의 역사를 되짚는 일이었다. 그 당시 34살이었던 나는 현재 50살이 되었다. 바비킴 노래를 듣던 큰아이는 기타리스트가 되었고 둘째는 미술에 호기심을 가지는 아이로 성장했다. 푸름이는 3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그 자리에 상추가 들어왔다. 나는 10년을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새로운 출발을 즐기고 있다.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었다. 과거를 기억하며, 기록하는 행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다. 서툰 글을 쓰면서 든 생각은 집이 단순히 잠을 자는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진 공간이었음을 발견했다. 집이 나와 아이들, 마을 사람들, 친구들을 이어놓았다. 내가 현재를 살 수 있는 이유가 충분했다. ‘기록하는 여자들’과 함께하는 동안 깊이 울컥했고, 환하게 웃었다. 모두의 삶에 감동했다.

참여자 5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 과거와 현재의 무수한 연결들을 느끼는 순간들이었어요. 이런 연결들이 자주, 지속적으로 더 넓게 이어져서 인류가 자연과 함께 공존하는 날이 오기를 꿈꿉니다. 좋은 프로그램 기획해주시고 연결해주셔서 감사해요.

참여자 6

우리는 이렇게 했어요



- 주제** 취향의 발견과 기쁨, 사람과 마을을 잇다
- 유형** 특화기획(유형특화)
- 강사** 강수희, 김주영, 봄눈별, 박정윤, 박창희, 박혜수, 배정애, 유지황, 황경미
- 내용**
- 1차** 걷기의 기쁨_작가와 함께 사박사박 도시 걷기
 - 2차** 양달리 발레_발레로 들여다보는 나의 몸
 - 3차** 리틀 포레스트_도시에서 자립적인 삶을 고민하는 사람들의 적정기술 익히기)
 - 4차** 기록하는 여자들_마을에서 살아가는, 그리고 살아갈 사람들의 삶의 전화에 대한 질문과 글쓰기
 - 5차** 어서와! 꿀잼 대천마을은 처음이지_어린이들의 시선으로 우리 마을을 즐길 수 있는 활용법을 찾고 기록하는 작업
- 탐방** 가자, 팜프라촌으로!
- 평온음악회** 취향공동체를 이어주는 자연 만다라 워크숍과 평온음악회
- 후속모임** 따로 또 같이, 취향 공동체!
- 일시** | **강연** | **1차** 2022. 7. 24.(일) ~ 10. 16.(일) 10:00 ~ 15:00
- 2차** 2022. 8. 6.(토) ~ 2022. 8. 27.(토) 13:00 ~ 15:00
 - 3차** 2022. 9. 1.(목) ~ 2022. 10. 6.(목) 19:30 ~ 21:30
 - 4차** 2022. 8. 12.(금) ~ 2022. 10. 7.(금) 19:30 ~ 21:30
 - 5차** 2022. 9. 8(목) ~ 2022. 10. 6.(목) 14:00 ~ 16:00
- | **탐방** | 2022. 10. 8.(토) 8:30 ~ 18:00
- | **후속모임** | 2022. 10. 30.(일) 19:30 ~ 21:30
- 장소** | **강연** | 맨발동무도서관
- | **탐방** | 남해 두모마을(팜프라촌)
- | **후속모임** | 맨발동무도서관

관장 김부련 담당사서 고은영

주소 부산광역시 북구 양달로 64 대천천환경문화센터 2층

홈페이지 maenbal.org

연락처 051-333-2263







 **인문학,
과거-현재-미래를
함께하다**

‘징계 맹갱 외에 맞들’ 과거-현재 그리고 미래

김제시립도서관금구분관

한국도서관협회장상



징계 맹쟁 외에밋들...

대하소설 『아리랑』에는 “그 끝이 하늘과 맞닿아 있는 넓디넓은 들녘은 어느 누구나 기를 쓰고 걸어도 언제나 제자리에서 헛걸음질을 하고 있는 것 같은 착각에 빠지게 만들었다”고 표현되었다. ‘외에밋들’은 ‘너른 들’ 평야를 일컫는 말이니, 곧 ‘김제 만경 너른 들’이라는 말이다.

우리가 살고 있고, 살아가야 할 김제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지평선이 보이는 곡창지대다. 하지만 그 풍요로움 때문에 일제강점기에는 혹독한 수탈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다. 대하소설 『아리랑』은 김제를 무대로 일제 강점기의 생활상뿐만 아니라 일제의 압력과 양극화에 맞선 우리 민족의 저항, 투쟁 및 승리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어 이번 길 위의 인문학을 통해 김제 시민의 민족적 긍지와 자존심을 높이고자 하였으며, 결과적으로 대성공이었다.

김제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한 팀장님은 소설 『아리랑』을 읽고 김제 시민이 더 소중한 것이라고 한다. 그런 소설 『아리랑』을 같이 읽으면 어떻게 될까? 김제 시민 들끼리, 공직자들끼리, 학생들끼리, 부류를 달리하여 함께 읽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다.

김제 시민들끼리가 첫 시작이다. 김제 시민들과 김제 출신의 강사님을 모시고 김제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다. 작은 지역에 위치한 도서관에서 전체 12권의 책을 읽고 토론하는 인문학 수업이 진행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은 수강생 모집이 시작된 첫날에 사라져 버렸다. ‘계획된 또 다른 일정은 없는지’ 문의부터 ‘가족 단위로 수강하고 싶다’며 주말에 개설요청도 적극적으로 들어왔다.

지금 생각해보면, 보도자료나 홈페이지 공지뿐만 아니라 김제시 도로 위 안내

전광판을 활용한 것이 정말 탁월했다. 수강생 접수 기간부터 사업이 끝나는 날까지 끊임없이 노출시킨 것이 운영 기간 내 내 <아리랑> 관련 문의를 불러왔다.



김제지역의 절대자원, 아리랑

드디어 5월 19일 한 주에 한 권 읽기 첫 수업이 시작되고, 1권, 2권, 3권, 점점 회차가 진행될수록 수강생들은 끈끈해졌다. 토론 수업이기 때문에 간식을 듬뿍 제공하려는 운영자의 의지를 가볍게 웃어넘기듯 감자를 삶아오고, 앵두를 따오는 등 수강생들은 서로 서로 챙기기에 바빴다. 물론 책을 못 읽어 온 사람들을 위하여 줄거리 요약은 물론이며, 등장인물 관계도도 공유했다.

어느 정도 회차가 진행되고 서막함이 없어졌을 때 <아리랑 문학관>-<아리랑 문학마을>-<하시모토 농장>에 이르기까지 김제 지역을 중심으로 1차 현장 탐방을 추진했다. 운영 경비를 아끼고자 김제시에서 제공하는 시티투어 맞춤형 코스에 맞춰 추진하였는데, 운영경비로는 지출이 안 되는 항목이라 어설픈 시행착오는 있었지만 시티 투어버스를 홍보하는데 더욱 효과적이었다.



2차 탐방은 김제에서 물자(物資) 이동길을 따라 군산지역으로 갔다. 김제 ‘새창 이다리’에서 한 수강생이 찍은 유튜브는 우리들의 현장탐방을 더욱 생생하게 남겨주었다. 이날 현장 탐방을 다녀온 수강생들은 ‘<아리랑>은 김제지역의 절대 자원이다’라며 아리랑에 더 깊은 애정을 표했다.

아직 돌도 안 된 아이를 아기띠로 매고 수업에 참여하는 열정적인 수강생도 있는 반면에 수업 막바지로 가면서 책 읽는 것에 부담을 느낀 수강생도 생겼다. 솔직히 한 주에 한 권을 읽는다는 것은 대단히 부지런하고 강한 의지가 있어야 한다. 대단하게도 수강생 대부분은 책을 읽고 와서 참여했고, 심지어 책을 못 읽었



지만 수업은 꼭 참석해야 한다며 오셨다가 ‘창피하다’며 12권 끝까지 완독하겠다고 다짐하기도 했다.

마지막 수업시간에는 독립군가를 함께 불러보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애국가도 들어보았다. 역시나 한 수강생이 그 장면을 유튜브로 남겼으며, 그때나 지금이나 더욱 진한 감동으로 다가온다. 『아리랑』에서 조선 것이면 뭐든지 다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하시모토는 “서양 옷을 입고도 조선의 짙부체가 꽤 쓸만하다”고 말한다. 우리는 전주 부채문화관의 도움을 받아 꽤 쓸만한 나만의 부채 만들기를 후속 모임으로 진행했으며, 인문학 모임 함께하는 시간 동안 행복했고 언젠가 또 다른 인연으로 꼭 다시 만나기를 희망한다고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아리랑의 확장과 연결, 도서관의 지원까지

강연 및 토론 12회, 현장 탐방 2회, 후속모임 1회 등 총 15회 13주간 열심히 달려 무사히 끝났다는 안도감이 드는 반면, 어르신들의 생생한 경험담을 듣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쉬웠다.

금구도서관은 강의실이 없어 현재 이용이 적은 열람실을 강의실로 대체해서 사용 중이다. 수강생뿐만 아니라 열람실 이용자들의 배려 덕에 「길 위의 인문학」



강연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때마침 새로운 시장 취입에 맞춰 한 수강생이 ‘당선인에게 바란다’에 우리 수업을 홍보하였고 격려해주시라 요청했다. 그에 대한 응답으로 시장님이 실제로 수업 중 면담에 참여하셨다. 물론 책을 읽고 같이 토론한 것은 아니었으나, 금구도서관이 앞으로도 인문학 수업 등 여러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시겠다는 확답을 받은 것도 이번 「길 위의 인문학」 프로젝트의 결실이라 생각한다.

금구분관에서 시작된 아리랑은 김제시립도서관 본관으로 확대되어 아리랑 12권 읽기가 진행되었고, ‘소설 아리랑 릴레이 필사’와 같은 손끝으로 읽는 아리랑도 진행되었다. 아리랑으로 또 무엇을 할 수 있을지 행복한 고민의 시간이 펼쳐진다.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이어준다.

우리는 이렇게 했어요



주제 인문정신문화(1910~1945년 사회 양극화)

유형 특화기획(주제특화)

강사 조석중

내용 **1차~12차** 전 12권, 한주에 한 권 읽고 강연 및 토론

현장탐방 아리랑의 배경이 되는 장소를 탐방하여 그 시대의 역사를 글뿐만 아니라 체험을 통해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음

후속모임 아리랑에 나오는 우리의 좋은 것을 같이 공유하기(부채만들기), 줄거리 요약집 배포

일시 | **강연** | 2022. 5. 19.(목) ~ 2022. 8. 4.(목) 10:00 ~ 12:00

| **탐방** | 2022. 6. 4.(토) / 2022. 7. 2.(토) 09:00 ~ 17:00

| **후속모임** | 2022. 8. 11.(목) 10:00 ~ 12:00

장소 | **강연** | 김제시립도서관 금구분관 2층 열람실

| **탐방** | **1차** 김제 관내 / **2차** 군산 일대

| **후속모임** | 김제시립도서관 금구분관 2층 열람실

호모 레코르단스 (Homo Recordans),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역사문화유산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 | 최일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표창 | 우수담당자 수상자



2022년은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10주년을 맞이한 해였다. 동국대 중앙도서관은 대학도서관으로서 첫 참여가 가능했던 2016년부터 2022년도까지 7년 연속 함께한 「길 위의 인문학」을 돌아보는 것을 목표로 <호모 레코르단스(Homo Recordans): 기억하는 사람>이란 주제를 선정하였다. 오늘날 지역주민들이 기억해야 하는 역사문화유산을 인문학적 관점에서 본질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기획하였다. 그동안 ‘호모’를 모티브 삼아 다양한 인문학 주제를 지역주민에게 제공하였는데 지난 6년 간 다루었던 인문학 주제들(영화·과학·언론·예술·역사 등)과 연결하여 올해는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역사문화유산을 탐구하고 직접 체험함으로써 지역주민 참여자들이 다양하게 인문 향유방법을 경험하도록 하고, 현실의 문제를 역사문화 등의 인문학으로 돌아보아 삶의 지혜를 체득하는 시간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또한 대학 캠퍼스의 이점을 살린 인력과 인프라를 활용해 ‘역사문화유산’을 보다 다각적인 관점으로 심도 있게 다루며, 다채로운 인문학 콘텐츠를 준비하였고 주민들이 ‘기억해야 할 역사문화유산’을 3가지 소주제로 나누어 살펴봄으로써, 코로나·우크라이나 사태·역사분쟁·4차 산업혁명 등 오늘날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는 여러 문제에 대한 해결 실마리를 찾아보고 인문학적으로 성찰하는 계기가 되고자 하였다.

온몸으로 기억을 경험하고 기록하다

「길 위의 인문학」의 구성은 ‘누구를 기억할 것인가’,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무엇을 기억할 것인가’의 3차시로 강연과 탐방, 후속모임으로 이루어졌다.

1차시에는 온라인 강연을 중심으로 하여 참여자들이 역사문화유산을 어떻게 기억해야 하는지, 그 기초적인 인문학을 전달하였다. 그렇게 배운 지식과 관심을 가지고,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선정된 ‘조선왕릉’을 직접 탐방하게 하여 그 관심과 흥미를 고조시켰다. 특히 중점을 두었던 부분은 역사문화가 참여자 자신의 삶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체험하게 하는 것이었다. 참여자들이 역사적 장소에 도착하여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말하며 온몸으로 그곳의 기억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본 강연의 목적이었고, 많은 참여자들이 탐방 후기를 통해



그러한 목적이 달성되었음을 표현해 주었다.

2차시 주제는 오늘날 현실의 문제와 연결된 주제 ‘과학·질병·전쟁’이었다. 날마다 미디어를 통해 들려오는 소식들의 핵심 주제이기에 이것을 인문학적으로 고찰해 보는 시간은 중요하였다. 특히 2차시에는 6·25기념일이 강연 날짜와 겹쳐 있었기에 그날은 ‘전쟁과 평화’라는 주제로 오프라인 강연을 준비하여 그날의 의미를 더욱 특별하게 기억하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 2차시에는 탐방 장소를 전쟁기념관으로 정하여 6·25기념일에 앞서 진행하였다. 참여자들이 6.25전쟁을 기리는 장소를 미리 탐방하고 그 체험과 경험을 토대로 강연을 들음으로써 참여자들에게 더욱 그날의 역사적 의미가 기억되게 하기 위함이었다. 참여자 모두에게 탐방 후기를 받은 이유도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하는 것이야말로 기억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참여자 모두 그러한 의도를 잘 따라주어 ‘전시도록’이라는 소중한 기록물을 남길 수 있었다는 점이 이번 프로그램의 특징점이라 생각한다.

3차시에는 강연과 전시 모두 오프라인으로 진행하였다. 전시 준비를 위해 참여자, 강연자 모두 박차를 가하는 시간이었다. 강연 중 활동했던 체험 활동들, 민화



그리기·독립군 태극기 만들기 등은 마지막 전시회의 꽃인 후속모임 기획전시회 준비를 위해 참여자들이 계획된 강연 외의 별도의 시간을 내서 민화 작품 그리기 시간을 갖기도 하였다. 마침내 도서관과 강사의 적극적인 열정으로 모두가 최선을 다해 민화 작품을 완성, 성공적인 전시회를 개최할 수 있었으며 7년간의 프로그램 강연, 탐방 및 전시회 활동 동영상을 제작하여 후속모임 기획전시회에서 내내 상영하였다.

마지막 후속모임은 지난 7년간 참여하였던 강사님과 참여자들을 초대하여 참여 소회를 발표하고, 참여자들이 직접 만든 작품과 도록, 영상물 등의 전시를 즐기는 모습이 이번 프로그램의 가장 의미 있는 성과라고 생각한다. 이번 동국대 중앙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프로그램은 길 위의 인문학의 취지를 가장 잘 실천했다고 생각한다.





강연자 이야기

2021년에 이어 2022년에도 동국대 중앙도서관과 인연을 맺으며 올해는 도서관과 함께 프로그램을 기획·진행하였습니다. 특히 2022년은 길 위의 인문학 10주년을 맞이한 뜻 깊은 해였기 때문에 강연 참여자들이 함께 보고 듣고 즐기며 길 위의 인문학을 기념하길 바랍니다. 특히 본 프로그램의 담당 사서인 최일우 과장님이 대학 도서관으로서 사업에 참여할 수 있었던 2016년부터 2022년 현재까지 총 7회 모두를 기억할 수 있는 주제를 선정하여 마지막 후속 모임 때 기념전시회 개최를 해 보자고 제안하였습니다. 2022년 「길 위의 인문학」 주제가 <호모 레코르단스(Homo Recordans): 기억하는 사람>으로 선정되어 그에 맞는 역사문화 주제로 강연을 준비·진행하였습니다.

저는 ‘역사문화시민연대 간사’로서 역사를 처음 접하는 시민들이 박물관, 역사유적지 등에서 우리나라의 역사문화를 직접 보고 느끼며 체험하는 현장체험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기억과 역사’에 주목하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역사문화유산에 대한 강연과 탐방, 전시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의 핵심은 참여자와 함께 하는 ‘기획전시회’였습니다. 강연과 탐방의 시간 중 일부를 할애하여 참여자들 모두가 전시 준비를 함께 하였다는 점이 본 프로그램에 참여한 강연자로 가장 뜻 깊은 부분입니다. 기회가 주어진다면 앞으로도 전국의 여러 도서관들과 함께 길 위의 인문학 프로그램에 동행하였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정호경(역사문화시민연대 간사)



참여자 이야기

2022년 5월부터 7월까지 우리 가족은 더웠던 날씨가 럽 아주 핫한 시간을 보냈다. 동국대학교 도서관 프로그램 <호모레코르단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역사문화유산”에 참여했기 때문이다. 온라인 수업과 대면수업을 연계하여 현장탐방이 진행되었는데 우리 가족은 현장탐방이 좀 더 기억에 남았던 것 같다.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발로 걷다 보니 생생한 체험이 되어 그랬으리라 생각한다. 홍유릉에서 고종의 무덤이 더 궁금하다며 조금 더 멀었던 홍릉으로 향하던 첫째와 동구릉에 들어서면서 홍살문에 대한 설명을 들었을 때 살을 맞을까 두려워하던 둘째의 모습이 우리 가족의 소소한 추억이 되었다. 가는 곳마다 선생님의 실감 나는 설명과 재미있는 미션활동에 열을 올리며 즐기는 아이들을 보며 부모의 부족함을 채워 주시는 선생님께 너무나 감사했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활동해온 사진, 영상 기록물들과 없는 숨씨지만 열심히 그렸던 아이들의 민화작품 전시회를 끝으로 한여름의 핫했던 프로그램이 마무리되었다. 프로그램을 듣고 나니 역사문화유산이 할머니가 들려주시는 옛날이야기처럼 친근하게 스며든 것 같아 기분이 좋았다.

참여자1

우리 가족은 올해 여름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아이는 가족, 친구들과 함께 참여한 2021년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프로그램을 통해 역사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역사학자라는 꿈도 함께 키웠습니다. 올해는 어떤 내용을 배우게 될지, 어떤 체험을 하게 될지 기대하며 <호모 레코르단스(Homo Recordans),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역사문화유산>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습니다.

김지은 선생님의 <질병과 치유> 수업은 코로나를 직접 겪고 있는 아이들의 삶과 연결되어 질병이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자랑스러운 우리나라 문화유산을 좋아하던 아이는 <세계문화유산> 수업에서 눈을 반짝이며 열정적인 박상혜 선생님의 설명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평소 가까이 있고, 중요하다고 느끼지만 깊이 알지 못했던 태극기와 독도에 관해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세심하게 설명해 주시는 최보영 선생님의 <태극기와 독도> 수업은 따뜻함이 느껴지는 수업이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태극기를 그렸

던 추억은 앞으로 태극기를 대하는 마음으로 간직될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의 백미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현장탐방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렵고 지루하게 생각할 수 있는 역사를 재미있고 생생하게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정호경 선생님의 능력은 탁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주위 친구들에게 소개하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세계문화유산 중 조선왕릉 탐방은 재미와 의미가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선대왕을 참배하는 정조가 되어 동구릉을 둘러보는 동안 아이들은 시간여행을 떠난 것 같이 몰입하며 즐거워했습니다. 다양한 미션과 게임을 통해 흥미 있게 조선왕릉에 대한 지식을 쌓는 시간은 아이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게 했습니다. 아이들이 직접 경험해 볼 수 없는 과거의 시간을 재미있고 의미 있게 접할 수 있도록 해주신 많은 선생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저희 아이의 꿈은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게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참여자 2

아이와 나는 일상에 묻혀 현재를 살아가다가 과거로 여행을 떠났다. 우리 역사 속에 잊혀져있던 그분들을 만나기 전 홍살문 앞에서 악귀도 물리치고 간담이 서늘해지는 이야기도 들으며 왕을 만나러 간다. 조선왕릉. 대지가 훌륭하다. 뛰어난 자연경관 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왕릉은 그를 섬기던 사람들이 찾고 찾아낸 장소였다. 자연이 만들어낸 그런 곳만 찾아 이상적인 자리를 선택했다고 한다. 그들의 업적을 기리고 존경을 표하기에 충분했다. 무덤 앞에 선 내가 한없이 작아보였지만 선조들의 업적은 너무나도 크고 지혜로워 마음 한편이 녹아내리는 듯하였다.

이석영기념관. 그리고 독립투사들이 간혀있던 감옥. 이곳에서 나의 조국, 나의 선조들은 학교 때 배운 지식으로 알고 있는 딱 거기까지만 자랑스러웠다. 하지만 오늘 난 그분들을 직접 만나고 왔다.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쳤던 그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온 것 같다. 똥물을 뒤집어쓰고 나무관에 간혀 고문을 당하고, 돌이 섞인 밥을 먹으면서도 오직 나라를 위해 만세를 외쳤던 그분들을 생각하니 마음이 울컥해지고 눈시울이 붉어졌다. 오늘만큼은 책으로 배운 역사가 아닌 가슴으로 배웠던 가장 기억에 남을 역사수업이었다.

이렇게 가슴으로 배우는 역사수업을 아이들이 어떻게 잊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한 곳 한 곳 지나치지 않고 정성스럽게 수고스럽게 설명해주시는 선생님들의 모습 또한 너무나도 인상 깊었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위해 애써주시는 분들이 계시기에 세계가 기억하는 사람들이 더욱 빛을 발하는 것 같다. 애써주시고 준비해주신 모든 선생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참여자 3

우리는 이렇게 했어요



주제 호모 레코르단스(Homo Recordans),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역사문화유산

유형 자유기획(기본형)

강사 김지은, 박상혜, 송치중, 정호경, 최보경

내용 제1주제 누구를 기억할 것인가?

1차 | 강연 | 우리 역사의 선조들

2차 | 강연 | 강연 대한의 독립운동가

탐방 | 세계가 기억하는 사람들

제2주제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3차 | 강연 | 과학과 문화

4차 | 강연 | 역사를 기억하는 방법

5차 | 강연 | 전쟁과 평화

탐방 | 근대의 남산길, 아픔을 기억하다

제3주제 무엇을 기억할 것인가?

6차 | 강연 | 세계문화유산

7차 | 강연 | 태극기와 독도

후속모임 | 기억과 회상(기획전시회)

일시 | 강연 | 2022. 5. 14.(토) ~ 7.23.(토) 10:00 ~ 12:00

| 탐방 | 2022. 5. 28.(토) 08:30 ~ 15:30 / 2022. 6. 18(토) 09:30 ~ 14:30

| 후속모임 | 2022. 7. 30.(토) 10:00 ~ 12:00

장소 | 강연 | 동국대 중앙도서관 세미나실

| 탐방 | 1차 | 동구릉, 홍유릉, 이성영역사기념관

2차 | 전쟁기념관 상설전시관, 옥외전시관, 평화의 광장

| 후속모임 | 동국대 중앙도서관 2층 MASIL

관장 오병욱 **담당사서** 최일우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3가 26번지 동국대학교

홈페이지 lib.dongguk.edu

연락처 02-2260-3457

우리는 아직 길 위에서 서 있다

더불어숲도서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기획의 시작은 언제나 필요와 요구에서

더불어숲도서관은 사립공공도서관이다. 1994년에 마을 주민을 위한 작은 문고로 시작해서 2008년 사립공공도서관이 되었다. 국공립도서관보다는 규모가 작지만 작은도서관보다는 큰 편이다. 또,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사립도서관이지만 공공도서관이기에 스스로 느끼는 책임감도 결코 적지 않다. 그러다 보니 점차 높아지는 지역주민들의 수준 높은 인문학프로그램 참여욕구를 인지하면서도 사립공공도서관의 여건상 강연 개설 등의 어려움이 있었다. 물론 가장 큰 문제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산이었다. 적극적으로 방법을 찾던 중에 2015년부터 길 위의 인문학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다.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은 질적·양적 지원이 보장되는 사업으로 주민들의 인문학적 소양을 기르고 지역의 평생교육기관으로서 지역의 인문학 활성화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안고 시작되었다.

2022년은 <삼국유사, 오늘에 닿다>라는 이름으로 진행되었다. 먼저 전년도 참여자와 도서관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역사’라는 키워드가 도출되었고 운영위원들의 열띤 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주제가 결정되었다. 코로나19는 우리의 삶을 여전히 흔들고 있었고 소통과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이 시기에 삼국유사를 다시 꺼내든 이유는 역사를 통한 치유와 위로의 힘을 믿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 지역과 이웃한 군위군은 <삼국유사>의 고장이라 불리고 있다. 이처럼 가까이 있는 <삼국유사> 속에서 오늘의 고단함을 보듬고 극복할 수 있는 힘의 뿌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로 기획을 시작하였다.

전문 강연과 연결한 현장 탐방

사실 진행의 어려움은 어느 도서관이나 비슷하지 않았을까? 우리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강사를 포함한 참여자들의 당일 참석 여부가 불확실했고 그로 인한 고민이 가장 컸다. 특히 더불어숲도서관은 도서관 사정상 좁은 공간에서 진행하다 보니 참여자들의 안전이 늘 걱정되었다. 그럼에도 강연과 탐방 모두 참여자들에게 호응이 좋았는데 아마도 자발적인 적극적 참여자들이라 가능한 답변이었을

것이다. 거리 현수막 게재, 홈페이지나 밴드, SNS홍보 등으로 참여자를 모집하지만 사실 가장 영향력이 있는 것은 기존 참여자들의 입소문이다. 접근성이 좋은 마을의 도서관에서 접하는 전문적이고 수준 높은 인문학프로그램에 대한 참여자들의 평가는 늘 정직하다. 그래서 더욱 주제와 구성과 강사 섭외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더불어숲도서관 2022년 「길 위의 인문학」 프로그램은 전체를 3회차와 후속모임으로 나누어 진행하고 각 회차는 두 번의 강연과 한 번의 현장탐방으로 구성하였다. 두 번의 강연은 실내 강연으로 주제와 관련해 대학에서 역사를 교육하고 연구하는 교수 중심으로 섭외를 진행하였고, 강연으로 들었던 <삼국유사> 속 유적지를 직접 찾아가는 탐방은 여행과 역사 관련 현장 전문가를 섭외해 진행하는 것으로 지역의 역사적 뿌리를 대면하고 지역의 정체성을 이해하는 역사 인문교육의 장으로 연결하였다.



누구에게나 익숙하고 모두가 알고 있는 것 같은 <삼국유사>를 전문가의 눈으로 다시 보고 오늘을 사는 현대인의 마음으로 깊이 읽고 그 현장을 느린 걸음으로 함께 걸어보았다. 그 과정이 더디고 어렵긴 했지만 혼자가 아니어서 즐거운 여정이었다.

늦은 밤까지 이어졌던 실내 강연은 20대 대학생부터 60대까지 다양한 연령이 함께했고 탐방은 초등학교생들이 가세해 시끌벅적하고 생기발랄하게 진행되었다.



2022년 더불어숲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은 각 활동의 긴밀성에 집중했다. 주제 강연과 탐방의 연결성을 중시하였고 회차별 참여자들의 의견 수렴 후 다음 회차에 즉시 반영하였다. 참여자뿐만 아니라 참여 강사들의 의견 수렴에도 신경을 썼다. 또, 후속 활동으로 만들어진 소모임은 학습회나 지역의 동아리 등으로 지속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모임장소나 주제도서, 멘토링을 지원하기도 했다.

그런데 연말에 생각지도 못한 큰상을 받았다. 상을 받는다는 것은 즐거운 일이면서도 부담스러운 일이다. 상을 받을 만큼 잘한 것인지 돌아보게 되고 앞으로는 얼마나 더 잘해야 하나 걱정도 된다. 그래도 응원과 칭찬을 받은 이 시간만큼은 즐기면서 다음을 생각하려고 한다. 앞으로도 길 위에서의 여행은 계속 될 테니까.



참여자 이야기

나는 엄마랑 역사탐방을 몇 번 갔다. 그중에서도 대왕암을 갔던 기억이 난다. 그날은 바람도 불고 미끄러워서 꼭대기까지 올라가기는 힘들었지만 올라가서 보니 정말 좋았다. 그리고 신기했다.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바다에 무덤을 만들었을까? 그리고 내려와서 바닷가에 갔는데 너무 조금 머물러서 아쉬웠다. 다음에는 짧지 않게 1박 2일로 갔으면 좋겠다.

참여자 1

나는 작년부터 더불어숲도서관 「길위의 인문학」에 참여했다. 대학교수 등 전문가들의 강연도 듣고 탐방에도 참여했는데 올해는 일을 시작해서 저녁 강연에만 참여했다. 역사를 전공하는 교수님들의 전문적이고 열성적인 강연은 좋으면서도 나를 부끄럽게 했다. 평소에 역사책을 많이 읽어서 우리 역사에 대해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이제부터라도 역사를 제대로 알기 위해 공부해야겠다는 다짐도 했다. 내년에도 더불어숲도서관이 더 멋진 인문학강연을 준비해줄 것이라고 믿으며 감사하다는 마음을 전한다.

참여자 2

「길 위의 인문학」 강연을 듣고 단편적이며 뒤죽박죽으로 기억하고 있던 우리나라 삼국시대에 대한 역사와 문화에 대한 지식들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었다. 학창시절 외우기만 했던 역사공부가 아니라 재미있게 옛날이야기를 듣듯 배울 수 있어서 유익했다. 특히 수업을 들은 후, 바로 그 현장을 탐방해 설명을 들어서 더욱 기억에 남는다.

참여자 3

우리는 이렇게 했어요



- 주제** 삼국유사, 오늘에 닿다
- 유형** 자유기획(기본형)
- 강사** 권혜정, 손흥호, 윤정원, 이동주, 이성철, 이영호
- 내용**
- 1차** 삼국유사 다시 열기
 - 강연** 삼국유사에 대하여/ 삼국유사 깊이 읽기
 - 탐방** 삼국유사, 자취를 따라 걷다 보면
 - 2차** 그날의 이야기, 시간을 품어 역사가 되다
 - 강연** 삼국유사 이야기 만들기
 - 탐방** 삼국유사, 오늘에 닿다
 - 3차** 오늘을 걷는 삼국유사
 - 강연** 역사와 설화의 사실관계, 미륵사를 중심으로
 - 탐방** 삼국유사 속 백제를 만나다
 - 후속모임** 역사를 담은 그릇, 사람이야기
- 일시** | **강연** | **1차** 2022. 6. 8. / 6. 15. 19:00 ~ 21:00
 | **2차** 2022. 9. 14. / 9. 21. 19:00 ~ 21:00
 | **3차** 2022. 10. 5. / 10. 12. 19:00 ~ 21:00
 | **탐방** | 2022.6.18. / 10. 1. / 10.15. 08:00 ~ 20:00
 | **후속모임** | 2022. 10. 19. 10:00 ~ 12:00
- 장소** | **강연** | 더불어숲도서관
 | **탐방** | 울산 일대 / 공주, 부여 일대 / 익산일대
 | **후속모임** | 더불어숲도서관

만남과 헤어짐의 미학

익산시립황등도서관

한국도서관협회장상



2016년 먼지역에 소규모 도서관으로 개관한 황등시립도서관은 주민들의 독서 함양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강좌를 진행하고 있다. 지역 문화에 대한 이해와 인문학적 소양을 키울 수 있도록 노력하는 중에 5회 연속 「길 위의 인문학」 공모사업에 선정되었다. 예산이 전액 지원되는 고품격 프로그램을 접하면서 지역주민의 수준 높은 욕구에 부응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수강생의 만족도가 월등히 높은 「길 위의 인문학」 프로그램을 지속해서 운영하기 위한 황등도서관의 노력은 공모사업 신청은 물론 다양한 주제 선정의 모색이다. 그동안의 「길 위의 인문학」은 “자연과 함께 살고 싶은 우리 땅”, “우리강산에서 만나는 동학이야기”, “힐링 그림책” 등의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2022년에는 <만남과 헤어짐의 미학 - 고려·조선 시대의 묘지명과 시서화(詩書畵)를 통해 본 우리 민족의 정서>라는 내용으로 기획되었다. 주제 선정에 앞서 먼저, 예전 공모사업 결과 보고를 참고하며 수강생들의 평가를 염두에 두었다. 수강생들이 어떤 주제, 어떤 내용의 구성에서 만족도가 높았는지에 대해 고민을 했다. 두 번째는 주제의 다양성과 통합적 사고능력 배양에 집중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기간 지속되는 코로나19의 팬데믹 상황 속에서 우리 일상 가운데 가장 타격을 입은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해 주목하였다.

자연스러운 만남과 교제가 배제된 암울한 현실에서 옛 문인들이 만남과 헤어짐에 관한 여러 가지 감정들을 어떻게 표현하였는지, 삶과 죽음을 바라보는 태도는 어떠하였는지, 구체적인 작품과 시대적 배경 사료를 통해 인문 과학적으로 분석하였다. 우리 민족의 고유한 인간미와 정서에 대해서 깊게 공감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만남과 헤어짐의 미학>이라는 주제로 「길 위의 인문학」을 기획하였다.

문인들의 작품에서 배우는 삶과 사상

사실 「길 위의 인문학」 프로그램을 별다르게 홍보한 적은 없다. 먼저 참여했던 수강생들이 다시 참여하고 지인을 데려오는 과정으로 순환되었다. 이는 그만큼 인지도와 만족도가 높은 프로그램임을 증빙한다. 전체 구성은 3차의 강연과 탐방, 후속모임으로 진행했다.

1차시 강연에서는 고려시대 묘비명을 통해 선조들의 삶과 죽음에 대한 겸허한 태도, 사회와 문화의 특성을 전반적으로 파악하는 시간을 가졌다. 2차시 강연에서는 조선시대 묘지명에 나타난 선인들의 정신세계를 살펴보고 성리학적 사회상을 이해하는 수업이었다. 인습에 얽매었던 처절한 시대적 상황이 무척 안타까움을 주었다.



조선시대 문인들이 남긴 계회도(契會圖)와 송별시를 알아보고 작품에 드러난 인간미와 서정을 공감한 3차 강연에서는 뛰어난 표현력과 작품성에 긍지와 자부심을 느끼는 시간이었다.

탐방의 시간에서는 부여 부산서원과 대재각, 백마강 일대, 부여박물관을 답사하며 역사적 사료를 확인하고 조선 중기 문인의 삶과 사상을 엿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후속모임에서는 시대적 상황과 선진들의 생각을 바로 알고 수강생 각자의 견해를 밝히며 열띤 토론이 이어졌으며, 우리의 이야기를 역사에 남기는 의미로 지인에게 편지를 쓴 화첩 만드는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다른 시·공간의 역사로 현재를 살아가다

주제에 포함하고 있는 역사와 시 문학, 미술사와 미학이 어우러진 융합 인문학적 관점이 제시되었다.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의 묘지명과 시서화 작품을 직접 만나며, 당시의 사회와 문화적 특성, 개인의 사상과 의지를 구체적이고 포괄적으로 살펴보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역사적 사료를 확인하는 탐방 시간에는 조상의 사상과 각자의 견해를 밝히며 강사와 수강생의 토론이 이어지면서 시·공간에서 펼쳐진 역사와 오늘날 내가 살아가는 현재를 주체적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미래를 총체적으로 조망하는 해안이 정립되어 가는 과정을 경험하였다. 유익하고 질 높은 프로그램을 함께 경험한 수강생들의 기쁨은 프로그램 운영을 계획한 사서와 강사에게까지 전이되는 행복감이었다.

모든 수강생이 프로그램 종료를 아쉬워했지만 특히 첫 수업 시간에 코로나로 참석하지 못했던 수강생은 애석한 마음을 되풀이해서 표현했다. 좋은 결과를 얻어 상을 받을 수 있었던 것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2023년에도 황등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프로그램에서 다시 만나자고 약속하는 수강생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참여자 이야기

강사와 수강생이 서로 존중하며 역사에 대한 견해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수업이었습니다. 유익한 수업, 재미있게 공부하면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수업 횟수가 너무 적다는 것입니다. 수업 횟수를 6~7회 정도로 확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여자 1

길 위의 인문학을 통해 진행된 강연들은 모두 한결같이 내실 있고 유익한 내용입니다. 더 많은 시민들이 함께하는 프로그램이 되기를 바랍니다.

참여자 2

좋은 프로그램을 기획해주신 「길 위의 인문학」 도서관 담당자분들을 비롯하여 황등도서관 선생님들, 강의해주신 이지영 교수님 감사합니다.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우수프로그램이기에 계속 수강하고 싶습니다. 내년에도 수강합니다.

참여자 3

쉽고 재미있게 강의해주신 강사님을 비롯하여 황등도서관 선생님 감사해요. 우리 선조들의 만남과 헤어짐에 대한 정서를 깊이 있게 공부하면서 장단점을 알게 되고 본받을 점을 적극 수용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좋은 프로그램 수강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여자 4

우리는 이렇게 했어요



주제 만남과 헤어짐의 미학

-고려·조선 시대의 묘지명과 시서화를 통해 본 우리 민족의 정서

유형 자유기획(보급형)

강사 이지영

내용 **1차** 고려시대 묘지명을 통해 선조들의 삶과 죽음에 관한 겸허한 태도, 사회와 문화의 특성을 전반적으로 파악

2차 조선시대 묘지명에 나타난 선인들의 정신세계를 살펴보고 성리학적 사회상을 이해

3차 조선시대 문인들이 남긴 계획도와 송별시를 알고 작품에 드러난 인간미와 서정을 공감

4차 부여 부산서원과 대재각, 백마강 일대를 답사, 조선 중기 문인의 삶과 사상을 엿볼 수 있는 시간

5차 지인에게 편지를 쓴 화첩을 만들며 오늘을 사는 우리의 역사 남기기 및 프로그램 총평

일시 | 강연 | 2022. 9. 2.(금) ~ 2022. 9. 23.(금)

| 탐방 | 2022. 9. 30.(금)

| 후속모임 | 2022. 10. 7.(금)

장소 | 강연 | 황등도서관 강의실

| 탐방 | 부여 부산서원, 대재각, 백마강, 부여박물관

| 후속모임 | 황등도서관 강의실

그림책으로 만나는 우리 근현대사

양양교육도서관 | 김현혜

한국도서관협회장상 | 우수담당자 수상자



양양교육도서관은 강원도교육청 소속기관으로 양양군에 위치한 유일한 공공 도서관이다. 교육청 소속인 만큼 매년 학교 독서·인문교육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는데, 주어진 여건에 비해 학교에서 바라는 프로그램의 수준이나 지원 규모는 해마다 커지고 있는 추세이다. 반복적으로 운영되는 자체 프로그램 외에 지역 청소년들의 인문학적 시야를 넓힐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순 없을까 고민하던 차에 길 위의 인문학 사업에 자유학년제 청소년 대상특화형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프로그램 주제는 ‘한국 역사’를 중심으로 선정하였는데, 그림책을 매개체로 하여 일제강점기-해방과 독립-분단-현대 민주주의에 이르기까지 한국 근현대사의 주요 장면을 소개하며 책 읽기와 역사를 어려워하는 학생들도 부담 없이 참여하도록 기획했고 지식 전달보다는 역사적 맥락을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학교와 연계하여 「길 위의 인문학」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자유기획형과는 많은 부분에서 차이가 있다. 경험상 자유기획형은 사업 운영 기관 선정 후에도 도서관 사정에 따라 운영계획이나 강사진 변경이 어느 정도 가능하지만 참가학교를 우선 섭외해야 하는 대상특화형의 경우 운영 내용에 대해 사전에 학교와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담당자의 자유도는 낮추고 완성도는 높여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또한 프로그램이 학교 교육과정의 일부로 편성되어 운영되는 만큼 사업 운영의 모든 방면에서 학교와 학생들의 여건과 편의를 1순위로 고려하고자 하였다. 일례로 참가학교 중 도서관 휴관일인 월요일에 프로그램 운영을 희망하는 곳이 있어 담당자가 매주 휴일에 출장을 다니며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했다.

과거와 현재, 미래 역사의 고민 시간

〈그림책으로 만나는 우리 근현대사〉는 1학기 현남중학교, 2학기 양양중학교 자유학년제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는데 각 학교 특성에 따른 분위기가 매우 두드러지는 것이 재미있었다.

우선 현남중학교의 경우 강릉시와 인접한 양양 남부 지역에 위치한 전교생이 20명이 채 안 되는 소규모 학교로 학생들이 이미 서로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프로그램 첫 시작부터 강사와 담당자의 특별한 노력 없이도 자연스러운 분위기가 조성되었고 학생들의 참여가 비교적 적극적이었다. 현남중학교는 5월부터 7월까지 6회차의 프로그램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방대한 우리 근현대사를 모두 다루기에는 한계가 있어 제주 4·3사건, 4·19혁명, 광주민주화운동, 촛불 시민운동 등 현대사의 굵직한 몇 가지 사건들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횡수가 적은 대신 수업의 밀도는 높았다. 지난한 우리 현대사를 통해 학생들은 민주주의를 향한 우리 국민들의 열망과 희생을 알게 되었고, 앞으로 스스로가 만들어갈 역사에 대해서도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8월부터 11월까지 9회차 프로그램을 진행한 양양중학교는 학급 수 16개로 학교 규모에서부터 현남중학교와 큰 차이가 있었다. 참가 학생들도 여러 반에서 자유학년제 프로그램으로 「길 위의 인문학」을 선택한 학생들이 모인 것이기 때문에 학생들 사이에서 약간의 긴장과 어색함이 흐르기도 했다. 또한 당시 학기 중임에도 불구하고 학교 외벽 공사가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안전과 소음 문제로 인해 갑작스러운 일정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담당자와 강사진에 혼란이 자주 발생했고, 유난히 많았던 월요일 공휴일로 인해 프로그램의 연속성이 저하되는 등 어려운 점이 많았다. 이러한 악조건 속에서도 강사님들의 열정적인 강연을 밑거름으로 조선 후기와 일제강점기에 이르기까지 우리 역사를 조망하며 과거를 통해 현재를 이해하는 성찰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역사의 의미와 삶의 성찰

〈그림책으로 만나는 우리 근현대사〉의 가장 큰 특징은 일방적인 강의만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학생 스스로 배우고 느낀 점을 표현하고 기록하도록 하는 것이다. 매시간 강연 후 강연 내용 중 인상적이었던 부분 또는 학생 개인의 감상을 글과 그림으로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했다. 처음에는 쓰기와 그리기를 부담스러워하던 학생들도 회차가 진행될수록 차차 자신만의 언어와 표현법으로 다채로운 작품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다. 이렇게 만들어진 작품들은 후속모임에서 학생들의 손을 통해 판화 작품으로 재탄생했다. 그림을 목판에 옮기고 조각도로 한 땀 한 땀 파내는 과정은 결코 쉬운 작업이 아니었지만 학생들이 저마다 역사의 한 장면을 마음에 새기고 그 역사적 순간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되돌아보는 뜻 깊은 시간이었다고 생각한다.



프로그램 첫날, ‘역사’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는지 묻는 질문에 ‘암기과목’, ‘외울 것이 많아서 부담스럽다’, ‘어렵다’는 대답들을 했다. 이러한 반응은 역사를 시험을 위해 공부하는 교과목 중 하나로 인식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역사는 단순한 과거의 축적이 아니라 앞선 시대를 살아간 수많은 사람들의 삶의 결과이기에, 단순히 지식을 쌓는 공부에 그치지 않고 내가 살아가는 현재와 스스로의 삶을 성찰하는 거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번 〈그림책으로 만나는 우리 근현대사〉 프로그램을 통해 참가 학생들이 잠시나마 역사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보고 바람직한 역사 인식을 싹 틔우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란다.

우리는 이렇게 했어요



- 주제** 그림책으로 만나는 우리 근현대사
- 유형** 특화기획(대상특화)
- 강사** 강무홍, 김은의, 박정선, 이창숙, 원혜영, 정란희
- 내용**
- 1차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와 한국 현대사의 파고
 - 2차 제주 4·3
 - 3차 깨어나는 민주주의
 - 4차 5월 광주와 분출되는 시민의 힘
 - 5차 촛불 시민운동과 세계화 시대의 한반도
 - 6차 | 후속모임 | 내가 뽑은 한국 현대사 한 장면
 - 7차 오리엔테이션
 - 8차 역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
 - 9차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하여
 - 10차 곡물의 역사로 본 문명의 흐름
 - 11차 조선독립과 임시정부
 - 12차 근대화시기의 생활상
 - 13차 깨어나는 여성들
 - 14차 일제강점과 민족의 수난
 - 15차 | 후속모임 | 내가 뽑은 한국 현대사 한 장면
- 일시** | 강연 | 2022. 5. 11.(수) ~ 2022. 11. 7.(월)
 | 후속모임 | 2022. 7.1.(금) / 2022. 11. 14.(월)
- 장소** | 강연 | 현남중학교, 양양중학교
 | 후속모임 | 현남중학교, 양양중학교

훈민정음, 그 숨은 비밀을 찾아서

은평구립도서관

한국도서관협회장상



은평구립도서관은 2010년부터 올해까지 2020년을 제외하고 매년 아홉 번의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을 운영하고 있다.

세계의 언어학자들로부터 높은 과학성과 우수성을 가졌다고 평가받는 한글은 창제 역사와 원리가 기록으로 남아 있는 유일한 글자이기도 하다. 창제와 반포 시기는 정확히 실록에 기록돼 있지만, 창제 과정은 구체적으로 남아 있지 않아 여전히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하여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누구나 알고 있는 듯하지만 잘 모르기도 하는 훈민정음의 창제와 보급에 관련된 쟁점을 주제로 역사적 의문을 들여다보고 싶었다.

인연의 시작

2019년 많은 이의 인기를 얻고 있는 송강호 배우와 박해일 배우가 주연을 맡은 <나랏말싸미>란 영화가 개봉했다. 한글 창제 주역이 세종대왕이 아니라 이름도 낯선 승려라는 영화가 굉장히 파격적으로 느껴져 눈길을 끌었다. 영화 <나랏말싸미>는 개봉 전에는 저작권 문제로 갈등이 있었고 개봉 후에는 역사 왜곡 논란에 휩싸이며 조기에 종영되었다. 아쉽게도 나는 이 영화를 보지 못했다.

영화에서는 박해일 배우가 연기한 ‘신미’라는 이름 낯선 승려가 등장한다. 신미, 과연 그를 한글 창제의 주역이라고 말하는 이유와 역사적 근거는 무엇일까?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훈민정음 창제와 반포에 관한 다른 시각도 알아보고 싶어졌다.

영화가 조기 조영될 만큼 파장이 컸던 ‘역사 왜곡’이라는 예민한 문제가 「길 위의 인문학」 사업에서도 벌어질까 걱정은 되었지만, 도서관이기에 열린 시각으로 여러 의견과 주장이 무엇인지 알아볼 수 있다고 생각되었다. 그래서 저작권 문제로 갈등이 있었던 출판사에 무작정 연락을 넣었고 그렇게 박해진 작가님과 정영애 선생님과의 인연이 시작되었다.

마침 은평구 지역 주민으로 거주하시며 훈민정음을 수년간 연구하신 박해진 작가님과 전직 초등교사이셨던 정영애 선생님은 한글을 진심으로 사랑하시고, 꾸준히 발로 뛰며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셨다. 한글 창제와 관련된 쟁점을 살펴보고 역사적 의문을 들여다보며, 세계 속으로 퍼져가고 있는 한글, 우리글과 말의



소중함을 되새겨보고자 하는 우리의 취지와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겠다는 생각에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른다.

오직 백성을 위한 불굴의 신념으로 탄생해 찬란한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훈민정음. 불교가 한글창제·보급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왜 불교경전부터 한글로 옮겨졌는지, 모두가 알고 있는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와 함께 숨은 조력자였던 신미대사의 업적을 알아보며 그동안 조명되지 못했던 한글 창제와 반포 과정에서 불교의 역할을 되새겨 보는 시간을 가졌다.

주제에 대한 배경 지식을 이론적인 강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탐방과 함께 직접 보고 느끼고, 사색할 수 있는 인문학 경험을 통해 우리 일상 속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지역의 공간, 인물, 자연에서 역사의 의미를 생각해볼 수 있도록 계획하고 진행했다.

교과서에서는 배울 수 없었던 프로그램 강연과 더불어 한국 건축물에 조예가 깊은 강사의 설명이 곁들여져 평소에 무심코 지나쳤던 조선시대 건축의 미와 그 의미까지도 알아볼 수 있어 더욱 유익하고 흥미롭게 다가왔던 것 같다. 특히 아동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7~9회차 강연에서는 온갖 줄임말과 외래어가 섞인 요즘 말을 살펴보면 우리말 바로 쓰기와 한글의 위대함에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강연이었으며, 아이들이 한글문화의 가치와 정체성을 수립하는데 뜻 깊은 시간이었다.



길 위의 인문학을 위한 끊임없는 고민

훈민정음의 창제를 극렬히 반대했던 성리학자들 송유억불에 꺾박받던 불교가 한글 창제와 보급에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아이러니한 역사를 되짚어보며 역사가 기록하지 못했던 세종대왕과 한글창제의 일등공신 신미대사와의 인연에 대해 생각해보며, 백성을 위해 뜻을 모아 나라의 글자를 만든 그 시간과 증거를 통해 ‘한글이 세종의 천재성에서 기인한 독창적이고 과학적 문자’라는 한글신화가 옳은 것인지에 대해서도 진지한 질문을 던져보는 것은 어떨까.

돌이켜보면 코로나로 인한 탐방 취소 등 미흡한 부분과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그래도 후속모임에서 강연 종료 시점에는 글꼴에도 관심이 생겼다는 참여자의 모습, 비가 왔던 탐방이 오히려 무더웠던 여름에 시원했던 기억으로 남는다고 말해주는 참여자의 모습을 보며 꽤나 의미 있는 시간으로 다가왔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 뿌듯했다. 앞으로도 은평구립도서관은 지역주민과 함께 소통하고 공부하는 길 위의 인문학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고민하고 노력할 것이다.



강사 이야기

지난 2022년 10회에 걸쳐 「길 위의 인문학」 강의를 통해 훈민정음과 관련한 이야기를 펼쳤다. 도서관 관계자들의 헌신적인 협조가 있었다. 『훈민정음』 해례본은 어떤 책인가, 「훈민정음 창제 때 무슨 일이 있었나?», 「세종과 세조를 도와 훈민정음 창제와 보급에 힘쓴 혜각존자 신미」 등에 대해 강의했다. 훈민정음의 역사를 누구나 알고 있는 듯해도,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면 알려지지 않은 많은 사실이 숨겨져 있다. 이 알지만 모르는 사실을 대중들과 공유하기 위해 정성을 쏟았다. 1443년(세종 25) 창제와 1446년(세종 28) 확정해서 펴낸 『훈민정음』 해례본의 참의미와 혜각존자 신미 등 불교계의 고승 대덕과 김수온은 훈민정음 보급과 확산의 주역들이었음을 강의에 참여한 이들과 함께 호흡할 수 있었던 소중한 자리였다.

훈민정음의 역사를 몇 회의 강의로 정리해서 펼치기는 쉽지 않다. 강의에 참여한 청중들의 목마름을 다 적셔줄 수 없어 안타까웠다. 반응은 뜨거웠는데, 강연자는 그 욕구를 다 충족시켜 줄 시간이 매번 부족했다. 기회가 열린다면 지속적이고, 깊이 있는 훈민정음의 역사와 관련된 이야기 마당을 펼칠 수 있기를 바란다.

『훈민정음의 길』 저자 박해진



참여자 이야기

훈민정음은 우리의 얼입니다. 말과 글에는 얼이 깃들어 있으니까요. 이 소중한 말본을 우리는 잊고 지냅니다. 공기의 고마움을 잊고 지내듯이. 디지털시대에 한글보다 적합한 문자가 있습니까? 지구촌 최고의 언어를 세상에 펼칠 때입니다. 가로쓰기는 물론이고 세로쓰기도 자연스러운 문자. 동서고금에 유래가 확실한 문자는 한글이 유일합니다.

우리는 생활 속에서 한글의 가치를 키워가야 되겠습니다. 10년 후면 지구촌의 언어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우리끼리 이념논쟁 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의 시선을 밖으로 향해야 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가령 자동차 명칭, 아파트 명칭이 영어식, 유럽식 일색입니다. 이름도 성과 이름을 뒤집어쓰는 걸 당연시합니다. 한글이 아니라 훈민정음이어야 한다는 주장. 자음과 모음이 아니라 부음과 모음이어야 한다는 말씀에 동의합니다. 평소 신미대사의 역할이 궁금하던 차에 강연에서 많이 알았습니다. 한글의 숨겨진 산파였다는 것을.

세종은 CEO였고 기획자였지만, 숨겨진 산파는 혜각존자 신미대사였던 거죠. 왕의 역할도 하기 바쁜 세종이 산스크리트어나 잡다한 지식을 체득할 여유는 없었을 겁니다. 저는 역사의 이면을 잘 살펴보려합니다. 한글의 세계화에 훈민정음 창제과정의 역사체계를 바로 세워야겠습니다. 세계최고 문자로 자리매김 할 시절이 올 것입니다. 훈민정음 연구가 봄을 이룰 때가 올 것입니다.

참여자 1

더운 여름날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을 제공해준 도서관에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훈민정음”은 학창시절부터 익히 들어왔던 것이지만, 제대로 이해도, 이에 대한 감동도 전혀 없이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훈민정음의 그 가치와 과학성과, 그 고마움... 그리고 선조들의 지혜와 현명함을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평소 자주 가던 경복궁이었는데도 전문적인 선생님의 해설을 들으며 거닐 때는 마치 처음 온 것만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계단 하나, 기왓장 하나, 기둥 하나의 배치에도 옛 선조들의 지혜와 그 시대의 시대상이 녹아있다는 것이 참 놀라웠고, 이러한 배움을 많은 은평구민들이 함께 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번 인문학 프로그램도 꼭 참여하고 싶습니다.

참여자 2

우리는 이렇게 했어요



주제 훈민정음

유형 자유기획(기본형)

강사 박해진, 정영애

- 내용**
- 1차 훈민정음 해례본은 어떤 책인가
 - 2차 훈민정음 창제 때 무슨 일이 있었나?
 - 3차 훈민정음 창제의 현장을 찾아서
 - 4차 흔들리는 조선, 세조와 훈민정음
 - 5차 세종, 세조를 도와 훈민정음 창제와 보급에 힘쓴 해각존자 신미와 간행한 언해불전, 인수대비와 궁중 여인의 언문
 - 6차 원각사탑과 훈민정음
 - 7차 훈민정음이 걸어온 가시 발길
 - 8차 훈민정음이 걸어갈 밝은 미래
 - 9차 BTS와 세계 속의 한글
 - 10차 훈민정음, 그리고 한글 그 이후

일시 | 강연 | 2022. 6. 15.(수) ~ 2022. 7. 6.(수) 19:00 ~ 21:00

2022. 7. 13.(수) ~ 2022. 8. 7.(일) 11:00 ~ 13:00

| 탐방 | 1차 2022. 6. 26.(일) 13:00 ~ 17:00

2차 2022. 7. 16.(토) 10:00 ~ 14:00

| 후속모임 | 2022. 8. 13.(토) 11:00 ~ 13:00

장소 | 강연 | 은평구립도서관

| 탐방 | 경복궁, 인왕산 일대

| 후속모임 | 은평구립도서관

관장 권영관 담당사서 남윤창, 정세연

주소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78가길 13-84

홈페이지 eplib.or.kr

연락처 02-385-1671

미래자서전으로 진로를 기획하라

순천시립도서관연향관

한국도서관협회장상



연향도서관 <미래자서전으로 진로를 기획하라>는 2018년부터 「길 위의 인문학」으로 선정되어 운영해온 프로그램이다. 청소년 특화 도서관으로 연향도서관의 대표 프로그램이었고 순천에서 책쓰기 사업에 매진하며 그 중요성은 더 높아졌다. 오랜 기간 진행해 오면서 기획에서 큰 변화를 주기보다는 강사님과 참여자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하였다.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도서관에서 공통적으로 겪는 문제는 ‘학생들을 어떻게 참여시킬 것인가’일 것이다. 특히 우리 프로그램은 책쓰기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더욱 높은 프로그램이었다. 학생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순천의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돌면서 교사와 학생들에게 기존 참여자들의 책을 보여주며 프로그램의 장점을 설명하였다. 가장 홍보 효과가 좋은 방법은 기존 수강생과 학부모님들의 추천이었다. 그리고 기존에 참여하였던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친구들에게 알려주고 한 번 더 참여하고 싶다고 친구들을 데리고 와 주었다. 자녀들의 긍정적인 변화를 겪었던 학부모님들도 주변에 권유해주시면서 학생들의 모집에 큰 도움이 되었다. 또한 2022년에는 대상을 초등학교 6학년으로도 확대하여 더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었다.

그렇게 모집한 수강생들과의 첫 수업에서 참여 이유를 물어보면 부모님의 권유로 어쩔 수 없이 왔다는 친구들이 많았다. 그 외에는 친구의 추천과 본인의 필요로 참여한 친구들도 있었다. 스스로 필요하다고 생각한 친구들은 꿈이 없어서 고민이라며 이 과정을 통해 꿈을 찾을 수 있다는 기대로 참여한 친구들이었다. 그렇게 수업을 시작하면 부모님의 권유로 시작한 아이들을 어떻게 20주라는 긴 시간을 끌어 나갈지는 강사님의 몫이 컸다. 메인 강사로서 아이들의 글쓰기를 전반적으로 참여한 임재성 강사님은 열성적으로 학생들을 지도해주셨다. 이미영 강사님은 학생들의 글을 봐주시고 끝까지 할 수 있도록 긍정적인 격려를 해주셨다.

한 권의 책으로 풀어내는 ‘나’

미래자서전 쓰기는 청소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과정을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인생을 계획하고 설계하여 꿈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을 이미 이룬 것처럼 상상하여 태몽부터 유언장까지 한평생을 글로 풀어내 한권의 책으로 만든다. 이를 위해 강의 초반에는 수강생들의 ‘나’를 찾아가는 과정으로 진행된다. 워크북을 통해 나라는 사람이 어떤 성향인지,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알아보고 진로에 대해서도 탐구하는 시간을 갖게 된다. 미래자서전을 쓰기 위해 지금까지의 삶을 되돌아보는 과정도 진행하는데 태몽이나 어렸을 때의 일을 부모님께 물어보면서 부모님과 이야기하면서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도 한다.

이렇게 과거를 돌아보고 자신의 진로도 생각해보며 글쓰기 수업도 곁들여 글을 쓸 준비를 하게 된다. 유아기부터 청소년기는 지금까지의 삶을 돌아보며 쓰지만 그 다음부터는 자신의 미래를 상상하며 글을 쓰게 된다. 막연하게 꾸던 꿈과 진로를 더 깊이 성찰하며 자신이 어떤 노력을 얼마나 더 해야 하는지 꿈을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하는 단계이다. 이때부터는 글쓰기 강의를 곁들이기는 하지만 강의에서도 참여자들의 글쓰기로 이루어진다. 학생들이 글을 쓰고 강사님의 피드백을 통해 글을 수정하며 마무리 하는 것이다. 강사님은 학생들을 격려하며 참여자들이 끝까지 글을 쓸 수 있도록 독려하였다.





이런 글쓰기 활동을 통해 글쓰기 능력이 향상되기도 하지만 미래자서전의 가장 큰 장점은 '치유'이다. 자서전을 쓴다는 것은 자신의 내면을 모두 드러내야만 하는 활동이다. 자신의 고통을 모두에게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쓰기를 거부하고 포기하는 학생들도 더러 있다. 하지만 이 과정을 이겨낸 친구들은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후속모임은 모두가 한 권의 책을 완성하고 받아 보는 출판기념회로 이루어졌다. 출판기념회에는 가족, 친구들이 참석하여 책을 완성한 친구들을 축하한다. 완성된 책을 처음 받은 학생들은 기뻐하면서 책에 사인을 하고 참여한 분들에게 책을 선물하는 등 지금까지의 고통을 보상받는다. 부모님들도 우리 아이가 이렇게 끝까지 완성할 줄 몰랐다면 기뻐하며 강사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했다.

자서전을 통해 꿈을 꾸다

이 프로그램은 꿈이 없거나 목표가 뚜렷하지 못한 많은 청소년들의 고민을 듣고 함께 나누기 위해 시작했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니 모집부터 결과물을 내

기까지 쉬운 과정이 없었지만 프로그램 마지막에는 감사를 표하는 참여자와 학부모님들을 보면 뿌듯해졌다. 특히 올해에는 어느 때보다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여 10명이 미래자서전을 완성하여 기쁨이 더 큰 해였다. 이렇게 상까지 받게 되어 더 뜻 깊은 해가 되었다. 앞으로도 이 프로그램을 지속하여 많은 학생들이 책을 쓸 수 있도록 하고 성장한 후에도 자신의 자서전이 삶의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



참여자 이야기

전 올해 자서전 프로젝트에 참가해 제 첫 번째 책을 내게 된 백시후입니다. 자서전을 쓰기 전과 쓰고 난 후의 저는 정말 많이 달라졌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자서전을 쓰기 전에 대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서전을 쓰는 것은 제 인생에서 이미 예정된 일이었던 것 같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만큼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사실 자서전을 이렇게 진지한 마음으로 대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전 자서전 프로젝트를 가벼운 마음으로 신청했었습니다. 그냥 ‘꿈이 생기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요. 하지만 막상 강의를 듣고 직접 글을 써보는 과정을 거치며 점점 진지한 마음으로 바뀌었습니다.

꿈만 생겨도 좋겠다는 바람이 있었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니 미래자서전을 쓰며 가장 크게 얻은 것이 있다면 내면을 드러낼 수 있는 용기를 가지게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전엔 스스로 내면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혼자 생각하고 해결하면 될 줄 알았다.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혼자 1년, 2년을 안고 있었습니다. 가끔 찰나 해결되는 듯했는데 그것은 완전한 해결은 아니었습니다. 자기 세뇌를 했습니다. 항상 제자리인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무에게도 말하진 못했어요. 이렇게 꺼림직한 모습을 말해버리면 절 떠나가 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버림받을 것 같았어요.

자서전을 쓰며 제 모습을 솔직하게 털어냈습니다. 예전 기억들을 끄집어내고 살살이 파헤치고 상처를 직면했어요. 전 정체성을 많이 고민했었습니다. 겉모습과 속 모습이 너무나도 다른 저에게 많은 혐오감을 느꼈습니다. 정체성에 대한 당시 고민들을 글로 털어놓을 때면 불안하기도 했어요. 그 때의 감정이 곧잘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또다시 고민하면 어떡하지. 또다시 그러면 어떡하지. 또다시 나에 대해 의문이 생기면 어떡하지.’ 두려웠어요. 이입이 되어 운적도 있습니다. 입맛 하나 없고 온종일 우울할 때도 있었어요.

글을 다 썼어요. 감정들이 천천히 놓여갔습니다. 한데 엉겨있던 물감처럼 까맣던 걸 객관적으로 각각 볼 수 있는 위치가 되니 편안해진 것이었어요. 그냥 그 속에서 나오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생각의 회로를 조금만 바꾸면 되는 것이었어요. 정말 힘든 그 한 발자국을 옮겨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발자국을 옮겨 준 것은 바로 자서전이었어요. 내면 상처를 직면하게 해주는 것만으로도 많은 변화가 일어났어요. 절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어요. 무작정 자기 비하만 했는데 그럴 수도 있었겠네. 저 자신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법을 배워나가게 됐습니다.

미래에 대한 저의 태도도 바뀌었어요. 막연하게, 흐릿하게만 대충 생각했었습니다. 자서전을 쓰며 구체적이고 명확한 미래가 점점 그려져 갔습니다.

자서전을 쓰지 않았다면 전 지금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을까요? 아마 지금과는 정말 다를 것 같아요. 늘 슬프기만 했을 수도 있어요. 매순간 초조하고 불안하게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던 건지도 모릅니다. 숨겼던 생각들을 드러낼 때를 자서전으로 온 그 기회를 잡은 것 같아요.

미래가 변화하는 자서전을 쓴 사람이라는 말을 하고 들을 수 있어 정말 기쁩니다. 나중에 커서 청소년기를 돌아봤을 때 가정 먼저 생각나는 일은 바로 자서전을 쓴 것일 것 같습니다. 힘든 과정이지만 모든 사람들이 한 번씩 하면 정말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변화에 자신도 놀라게 되니 모두 한번 도전해보면 좋겠습니다.

참여자 1

미래자서전을 쓰게 된 계기는 호기심이었다. 학교가 끝나고 도서관에서 문자가 와있었는데 미래자서전으로 미래를 기획하라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선착순이라고 했다. 얼른 엄마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그날 미래자서전 쓰기를 신청했다. 첫 수업은 일이 있어서 가지 못했다. 그 뒤로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빠지고 거의 다 수업을 갔다. 수업을 듣는 아이들은 부모님이 억지로 보냈을 수도 있다. 하지만 난 내 의지로, 내가 원해서 신청을 했다. 엄마는 이런 수업이 있었는지도 몰랐다고 했다.

책을 쓰면서 느낀 점이 있다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은 ‘책을 쓰는 것은 정말 힘들다’이다. 막상 글을 쓰면 잘 안 써진다. 무엇을 써야 할지가 막막했다. 지금은 조금 나아졌지만 초반에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것 같다. 어릴 때 작가가 꿈이었지만 글 쓰는 것이 이렇게나 힘든 일인 것을 처음 알았다. 게다가 내 미래의 이야기를 쓰면서 상상해서 쓰는 것이 나를 더 힘들게 했다. 도서관에 있는 책들

의 작가들이 대단하다는 생각도 들었다. 작가들이 책을 쓰면서 창작의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지가 느껴졌다. 내가 책을 내보니 크게 공감이 된 것 같다.

미래자서전을 쓰기 위해서는 부모님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 특히 유아기를 쓸 때 많이 도움이 되었다. 유아기 시기는 내가 기억이 별로 안 났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미래를 쓸 때도 부모님의 도움을 받았다. 나보다 많이 사셨기 때문에 더 아는 것이 많았다. 부모님은 내가 힘들어 할 때마다 위로를 많이 주었다. 미래자서전을 쓸 때 고민을 많이 했다.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물어보기도 했다. 친구들이 대답을 잘 못해주었지만 친구들이 격려를 많이 해주어서 힘이 났다. 미래자서전으로 나의 미래를 생각하며 계획하면서 내 스스로 고민을 많이 한 것 같다. 나의 미래에 대해 더 깊게 생각할 수 있는 과정이었다.

미래자서전에 바이올리니스트가 되는 삶을 살아보았다. 바이올리니스트가 되려면 더 열심히 연습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공부도 더 열심히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학교 수업을 지금도 열심히 듣고 있지만 더 자세하게 집중해서 수업을 들어야 되겠다고 다짐을 했다. 지금까지 이 책이 나올 수 있게 해주신 분들께 감사합니다.

참여자 2

사실 전 미래자서전의 첫 수업을 들 때부터 다짐했습니다. 꼭 나의 책을 내겠다고 말이죠. 전 다른 사람들이 자신만의 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매우 부러웠어요. 그래서 저만의 책을 꼭 내겠다고 다짐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어렸을 때부터 글쓰기나 책 읽는 것을 좋아해서 책을 쓰는 것에 자신감도 있어 나름대로 당당하게 강의실에 들어섰었습니다. 하지만 다들 너무 열정적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본래 활발하고 말도 많은 성격인데, 아는 사람이 한 분도 없고 긴장도 많이 해서 경직된 상태로 매주 수업을 들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글을 쓰며, 책을 만들며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다는 말은 거짓말일 것입니다. 하지만 힘들었던 만큼 큰 뿌듯함을 느꼈고, 큰 자부심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강사님의 말씀에 작가님 험담도 많이 하고, 짜증도 많이 내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칭찬 한 번을 받을 때마다 저는 책 5페이지를 똑 똑 만들어냈습니다. 글이 많이 늘었다고 이야기를 들으면 글을 쓰는 내내 기분이

좋았습니다.

제가 이 수업을 신청한 가장 중요했던 이유는 저의 꿈을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꿈이 수시로 바뀌었습니다. 7살 때부터 가수, 승무원, 작가, 우주 비행사 등등. 꿈은 정말 많았지만, 그 꿈이 오래 간 적은 없었습니다. 학교 내에서는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철든 학생으로 보아 임원도 맡았는데, 저는 그만한 대우를 받을 만큼의 성품이 되지 못했던 거 같아 불안하기도 했죠. 그래서 저는 저의 미래의 꿈을 꼭 가지고 가고 싶었습니다. 실제로 자신만의 확고한 꿈을 가진 사람들을 볼 때마다 부러워했습니다. 당당해 보이는 모습이 멋졌거든요. 사실 검사라는 직업도 제 자의가 아닌,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추천해서 얻게 된 직업이지만, 이렇게까지 책을 써보니 저의 꿈인 검사를 꼭 이룰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글을 쓰면서 온전한 저의 모습을 발견하고, 저의 성격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또 저의 끈기를 시험해 볼 수 있었고, 저의 꿈을 향해 더 노력할 수 있었습니다. 힘들었던 만큼의 대가라고 생각하고 감사히 받는 중입니다. 항상 노력했던 과정은 그만한 결과를 낳는 거니까요.

참여자 3

우리는 이렇게 했어요



주제 미래자서전으로 진로를 기획하라

유형 특화기획(대상특화)

강사 이미영, 임재성

내용 1차 4차 산업혁명시대 왜 미래자서전이 필요한가?

2차 나는 누구인가?

3차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이해하기

4차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5차 롤 모델 선정하고 만나기

6차 삶과 세상을 효과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

7차 생각을 글로 표현하는 기술

8차 미래자서전을 완성하는 능력

9차 내 미래자서전 설계도 그리기

10차 유아기쓰기 첨삭 및 피드백

11차 유년기쓰기 첨삭 및 피드백

12차 소년기쓰기 첨삭 및 피드백

13차 청소년기쓰기 첨삭 및 피드백

14차 청년기쓰기 첨삭 및 피드백

15차 중년기쓰기 첨삭 및 피드백

16차 장년기쓰기 첨삭 및 피드백

17차 노년기쓰기 첨삭 및 피드백

18차 퇴고의 법칙

19차 내 책 최종 점검 및 디자인

20차 출판기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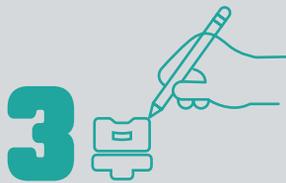
일시 | 강연 | 2022. 5. 28.(토) ~ 2022. 10. 15.(토)

| 후속모임(출판기념회) | 2022. 11. 5.(토)

장소 | 강연 | 연향도서관

| 후속모임(출판기념회) | 연향도서관





 **인문학,
찬란한 인생을
꿈꾸다**

3부 인문학, 찬란한 인생을 꿈꾸다

위로와 희망의 인문학

성산도서관

한국도서관협회장상



성산도서관은 2011년부터 성산인문학, 2019~2020년에는 인문독서아카데미까지 인문학강좌를 운영하였으며, 「길 위의 인문학」은 2014년부터 선정되어 실시해 왔다. 성산도서관의 2022년 길 위의 인문학은 코로나19로 인해 힘들었던 지난 3년간을 생각하며 ‘위로’와 ‘희망’이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 그래서 3차의 주제를 중심으로 총 10회의 강연과 탐방, 후속모임을 준비했다.

먼저, 제1주제는 <희망이란 무엇인가?: 한국인은 무엇을 희망해도 좋은가?>로 코로나19로 인한 집단 우울증 등 병적 증후군을 극복하기 위한 여러 노력들, 특히 조수미와 안드레아 보첼리의 공연처럼 ‘희망의 낙관적 의미구조와 치유 기능’을 공유하고, 시민들의 삶을 좀 더 풍요롭게 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울산대 교수님께 듣는 그리스인과 유대인의 희망이야기부터 서양의 희망철학과 한국의 희망사상으로 한(恨)에 대해서 인문학적으로 강연을 구성했다.

제2주제로는 <인문학과 독서치료에 대해: 마음을 열고 나를 바로 바라보기>로 독서치료 개요와 인문학과 독서치료의 연결고리를 이해하고 이를 통해 마음을 열고 나의 감정을 다루면서 위로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였다. 제2주제도 부산대 강사님께 듣는 총 4강으로 인문학과 독서치료, 나의 감정과 부정적 정서를 바라보고, 사회 속에 나, 가족 속의 나를 보는 것으로 ‘나’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졌다.

3주제는 <여행 ‘나의 특별한 순간’을 만드는 이야기>로 이제 ‘나’에 집중하는 여행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우리는 거리두기와 위생수칙을 지키는 일이 일상이 되었고 언제 어디를 갈지, 갈 수 없게 될지 모르는 시기를 지나왔다. 시간이 나면 계획 없이 갑작스레 여행을 떠날 수도 있고, 나를 위로하고 치유하는 누구보다 중요한 ‘나의 특별한 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 여행인문학 전문 강사를 모셔서 도보와 기차로 떠나는 인문학 여행의 강연과 삼랑진으로 떠나는 탐방과 후속모임을 가졌다.

이 세 가지 주제를 통하여 <위로와 희망의 인문학>으로 다시금 대면 강좌와 탐방으로 시민들에게 따뜻한 위로가 될 수 있길 바란다.

‘나’에게로 집중하는 시간

〈위로와 희망의 인문학〉이라는 큰 주제 아래 총 12회(강연 10회, 탐방 1회, 후속모임 1회)를 운영하였다. 1주제는 고대 그리스, 고대 조선의 희망신화, 계몽주의철학자 칸트와 마르크스주의자 에른스트 블로흐의 희망 철학, 추사 김정희 선생의 희망 사유까지, 희망 철학을 통한 현재를 극복하고 미래의 희망을 이야기해보고자 하였다. 2주제는 다양한 주제 도서 전시와 함께 자기 생각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위로가 필요한 나에게, 서로에게 진정한 의미를 다시금 새기고 서로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마련하였다. 3주제는 먼저 철학자들의 여행을 통해 인문학으로 살펴보는 여행의 의미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삼랑진으로 떠나는 인문학 여행 탐방을 통해서서는 실제 여행을 느껴보고, 후속모임으로 여행에서 그린 그림을 함께 공유하고, 여행을 하며 느꼈던 감정, 생각 등을 서로 나누고 한 편의 여행 후기를 만들어 보도록 하였다.





뜨거웠던 인문학 열기

거리두기 및 방역을 확실히 하며 지역 주민을 직접 만나는 대면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잦은 강연 취소와 일정 변경 등으로 우울감과 피로감을 느꼈을 지역 주민의 요구에 맞추어, 인문학 강좌 본연의 특성을 살리는 친근하지만 깊이 있는 강좌가 되었으면 하였다.

6월부터 한여름 7월까지 1주제와 2주제를 연달아 8강을 진행하면서, 2022년은 진정한 위로와 희망에 대해 생각해보는 깊이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랐다. 3년 넘게 이어질 것이라 생각지 못했던 코로나 상황에 도서관도 많은 변화를 겪었고, 「길 위의 인문학」도 강연 일정 변경이나 탐방 일정 연기, 수강률 저조 등으로 지역 주민들도 담당자들도 모두 힘 빠지는 시기를 지나왔던 터라 2022년은 인문학으로 위로받고 새로운 일상으로 희망을 가득 안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했다. 1, 2주제 연강을 통해 심리적 위로를 받고 마지막 3주제 「여행 나의 특별한 순간의 이야기」를 통해서 「길 위의 인문학」의 본래 취지대로 제대로 힐링하는 시간을 만들고자 했다.

다행히 마지막 3주제가 시작될 즈음인 9~10월에는 코로나 상황도 많이 좋아졌고, 수강생들의 열기는 뜨거웠으며, 탐방 또한 45인승 버스를 빈 좌석 없이 꽉꽉 채울 만큼 열기가 대단했다. 코로나 이전 길 위의 인문학 열기가 다시 살아나는 듯 했다. 탐방에서도 수강생들이 쭉스러워 하지도 않고 풍경 그림을 적극적으로 그리셨고, 후속모임 마지막 강의에서는 자신의 생각을 열심히 말씀하시며 감사 인사 또한 빼놓지 않으셔서 너무나 감사할 따름이다. 부디 우리 도서관에서 <위로와 희망의 인문학> 시간이 되었기를 바란다.



참여자 이야기

“넌 모르잖아, 알록달록한 세상” 색약을 콤플렉스로 가진 가해자를 자극하기 위한 드라마의 대사입니다. 어쩌면 흑백의 세상에 익숙한 우리를 일깨우는 대사이기도 합니다.

‘여행, 나의 특별한 순간을 만드는 이야기’에 오른 날, 12색 색연필과 A4지 크기의 스케치북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알록달록한 세상을 향해 길 위의 서재로 나서며 특별한 순간을 스케치해보라고 했습니다. 초등학교 이후 이렇게 알록달록한 선물은 오랜만이라 더 설레는 여행이었습니다. 용왕의 아들이 머물러 쉬었다는 만어사에 우리도 잠시 머물러 쉬었습니다. 수많은 물고기가 돌로 변했다는 돌을 두드리면 종소리가 난다고 했습니다. 물고기를 물고기로 두드리면 종소리가 아니라 물소리가 물결로 퍼질 것 같은 생각을 하며 다시 살아나 펄떡거리는 물고기가 강으로 향하는 스케치로 손이 바빴습니다. 그 후, 용왕의 아들이 아닌 저는 사람으로 귀가를 했고 천연의 세상 속에 색맹이라 12가지 색을 입히지는 못했습니다. 책만 보는 도서관에서 책도 보는 도서관으로 오늘도 여행을 만납니다. 알록달록 다양한 세상의 이야기를 도서관이라는 배낭을 통해 여행을 만나는 설렘을 누리고 있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는 모두의 공간으로 철학이 숨 쉬고 예술이 꿈틀거리는 ‘뉴욕 라이브러리에서’라는 다큐를 보았습니다.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런 멋진 공공도서관의 미래가. 누군가의 흑백세상을 알록달록한 천연의 세상으로 보여주는 도서관이 있고 그 길 위에서 함께 하자고 손을 건네는 ‘길 위의 인문학’이 있습니다. 길 위에서 길을 놓친 그 길 따라 당신을 기다리는 알록달록한 서재가 있습니다.

참여자 1

이번 주제는 <여행 나의 특별한 순간을 만드는 이야기>로 박은샘 선생님과 함께 했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도보로 떠나는 인문학 여행~유명한 철학자의 여행 이야기와 국내 도보 여행지 소개. 두 번째 시간은 기차로 떠나는 인문학 여행~우리나라 기차 역사와 미국, 독일 기차 여행 이야기. 가만히 앉아서 여행을 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소개한 곳을 다녀온 선생님에 대한 부러움도 있었죠. 세 번째 시간은 삼랑진으로 떠나는 인문학 여행~드디어 밀양으로 탐방을 다녀왔습니

다. 장소는 직원관지-만어사-영남루-안태호. 청명한 하늘과 서늘한 바람, 그리고 따뜻한 가을별 아래. 여행은 더할 나위 없이 좋았습니다.

만어사. 처음 본 절경에 신비롭다는 느낌! 만어사에 대한 선생님의 이야기는 참 재미있었습니다. 옛날에 동해 용왕의 아들이 자신의 수명이 다한 것을 깨닫고 낙동강 건너에 있는 무척산이란 곳의 신승(神僧)을 찾아가 새로 살 곳을 마련해줄 것을 부탁했다고 합니다. 신승은 용왕의 아들에게 가다가 멈추는 곳이 바로 그곳이라고 말해주었고, 용왕의 아들이 길을 떠나자 수많은 고기떼가 그의 뒤를 따랐는데, 그가 멈춘 곳이 만어사라고 합니다. 만어사에 이르자 용왕의 아들은 큰 미륵돌로 변했고, 그를 따르던 수많은 고기들 또한 크고 작은 돌로 변했다는 전설입니다. 어떤 돌에서는 종소로도 난다고 합니다. 미륵돌의 크기에 놀라고, 만어석이 펼쳐진 산의 절경에 더 놀랐습니다. 그때 선생님께서 자유롭게 앉아서 그림을 그려보라고 하셨습니다. 간만에 스케치북을 펼치고, 모두 김홍도가 되어 봅니다. 새로운 경험, 가족여행을 떠난다면 꼭 이런 시간을 가져볼 것을 강추드립니다.

성산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을 통해 다녀 온 여행은 늘 감동이었고, 이번에도 역시 행복했습니다. 가까운 장소, 새로운 발견, 그리고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는 진짜 특별한 여행이었습니다. 좋은 시간 만들어주신 도서관측에도 항상 감사드립니다. 내년 여행도 슬쩍 기대해 봅니다.

참여자 2

우리의 삶에 행복을 찾는 가장 빠른 방법이 여행이라고 생각한다. 일상에서 벗어난 기쁨을 성산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얻었다.

‘삼랑진으로 떠나는 인문학 여행’ 탐방을 주제로 박은샘 선생님의 여행이라는 화두로 여러 철학자들의 도보여행과 그들의 책 소개와 독일과 미국의 기차여행의 티켓 구매 방법과 지도로 상세히 알려주며 여행의 맛을 전달해 주었다. 마지막 강의 일주일 전에 버스를 이용해 가까운 밀양으로 여행을 다녀오게 되었는데 첫 여행지인 직원관지에서 내려다본 시원스러운 낙동강 줄기를 보며 들뜬 마음과 인우회 회원들과의 수다로 한층 가까워진 순간들이었다. 삼랑진에 위치한 만어사는 처음 가본 생소한 장소였으며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생각지도 못한 광

경에 놀랐었다. 용왕의 아들과 그를 따르던 물고기들이 변하여 돌이 되었다는 만어석을 도서관에서 내어주신 스케치북과 색연필로 첩첩이 쌓인 검은 돌들을 서툰 솜씨로 그리다 보니 미소가 절로 생겼던 행복한 순간이었다. 이후 영남루로 향했는데 직접 강을 내려다볼 수 있는 조선시대 지어진 누각 안에서 보자니 이 고풍스러운 건축물에 압도되었다. 이곳의 풍경이 집에서 느끼는 공기의 질과 달라 사소한 근심에서 벗어나 새로운 생각을 새로운 장소에서 하게 되었던 여행이었다. 그 새로운 생각은 지금 행동으로 옮겨 그림을 배우는 중이다.

참여자 3

강사님이 모두들 강의 준비를 열심히 해주셔서 지루한 줄 모르고 오후의 식곤증도 못 느끼고 잘 들었다. 경험을 토대로 한 강의는 더할 나위 없이 이해되었고, 다만 아쉬운 게 있다면 강의 수강생 연령대를 고려하여 좀 더 스토리가 있는 강의였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위로와 희망의 인문학’으로 나에게 대해 알고 또 나눌 수 있었다. 고로 내가 멋진 사람이란 사실을 새삼 깨달았다. 내 안에 든든한 자신감, 자존감, 장점을 되돌아보고 꼭꼭 다지는 기분이었다. 나에게 좋은 기대감을 갖고 있는 스승을 만나는 좋은 시간이었다. 특히, 밀양 삼랑진 탐방은 정말 좋았다. 장소, 설명, 그림 다 좋았다. 준비해 주신 도서관 측에 감사드리고, 열정적으로 설명해주신 강사님께도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

참여자 4

우리는 이렇게 했어요



주제 위로와 희망의 인문학

유형 자유기획(기본형)

강사 김진, 고혜림, 박은샘

내용 **1차** 희망이란 무엇인가? - 한국인은 무엇을 희망해도 좋은가
2차 인문학과 독서치료에 대해 - 마음을 열고 나를 바로 바라보기
3차 여행 '나의 특별한 순간'을 만드는 이야기

일시 | **강연** | 2022. 6. 9.(목) ~ 2022. 6. 30.(목)
 2022. 7. 6.(수) ~ 2022. 7. 27.(수)
 2022. 9. 27.(화), 2022. 10. 4.(화)

| **탐방** | 2022. 10. 11.(화)

| **후속모임** | 2022. 10. 18.(화)

장소 | **강연** | 성산도서관 성산홀

| **탐방** | 밀양 일원

| **후속모임** | 성산도서관 성산홀

평화와 인류애의 가치, 세계는 왜 싸우는가

울산남구신복도서관

한국도서관협회장상



지금 이 순간에도 총성이 멈추지 않는 지구 건너편 땅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으로 인해 우크라이나라는 국가, 그리고 국제분쟁에 대한 관심이 날로 커지고 있고, ‘세계는 왜 싸우는가’라는 질문이 다시 화두에 올랐다. 최근 이슈인 동유럽을 비롯한 세계 각지의 국제분쟁 실상을 역사, 지리, 현지 르포 등 여러 각도에서 심층적으로 살펴보고 싶다는 마음으로 이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와 거리가 가장 먼 유럽을 시작으로 아프리카, 중동, 동남아시아, 한국에 이르는 순서로 시점을 좁혀감으로써 지구 반대편의 불행이 결코 멀리 있지 않음을 깨닫고 평화의 가치에 대하여 충분히 숙고할 수 있는 시간을 수강생들과 함께 갖고자하였다.

전쟁과 평화, 희망과 절망

‘세계는 왜 싸우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해답의 실마리를 찾기 위한 첫 번째 여정으로 참극의 현장에 뛰어들어 국제분쟁을 직접 취재한 저널리스트를 통해 현지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어보고자 하였다. 국제분쟁에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존재하지만 평온한 삶에서 하루아침에 분쟁에 휘말린 현지 사람들의 고통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 국제분쟁을 이해하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했다. 전쟁과 평화, 희망과 절망이 교차하는 비극의 현장과 현지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폭력, 죽음이 난무하는 처참한 전쟁터의 참상과 진실을 마주보고, 국제 사회의 일원으로서 다른 나라의 고통에 공감하고 평화와 인류애의 가치에 대해 숙고하는 시간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두 번째 여정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중 일어난 인류 사상 최대이자 최악의 전쟁인 독일-소련 전쟁을 살펴보고자 했다. 독일의 소련 침공과 소련의 반격, 제2차 세계대전의 종결과 냉전의 시작을 살펴봄으로서 당시 세계정세 흐름과 동유럽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고, 이 전쟁이 독일과 소련뿐만 아니라 세계사의 판도를 어떻게 흔들여 놓았는지, 왜 우리와도 무관하지 않은 전쟁이었는지를 알아보았으며, 강연과 연계된 현장탐방으로 서생포 왜성(西生浦倭城)과 울주민속박물관을 방문하여 주제에 대해 이해도를 한층 더 높였다.



세 번째 여정에서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관계를 더 면밀하게 살펴보고자 하였다. 우크라이나는 서유럽과 러시아, 아시아를 잇는 통로이고 우크라이나 방향에 따라 동서 힘의 균형은 달라졌다. 러시아혁명을 기점으로 혁명 전후의 우크라이나를 비롯한 세계 각지의 분쟁을 역사와 지정학적으로 접근해봄으로써 지리가 가진 힘에 대해 이해하고 국제분쟁을 보다 폭넓은 시야로 바라보고자 하였다.

불안했던 최고의 강사 섭외, 인문학의 열의로 이어져

이 프로그램을 준비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순탄하지 않았던 강사 섭외 과정이었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이 한창 뉴스를 도배하던 시기에 국제분쟁으로 프로그램 주제를 정하고 여러 도서관과 서점을 들락거리며 자료를 모았다. 한 서점에서 보물찾기처럼 발견한 책이 바로 프로그램의 대표 주제도서인 <세계는 왜 싸우는가>였다. 앉은 자리에서 책을 술술 읽어내고 국제분쟁을 주제로 하려면 무조건 김PD님을 섭외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다. 어렵게 연락처를 수소문 했지만 알게된 정보는 지금 폴란드로 취재를 가셨다는 사실과 이메일 주소 뿐이었다. 출강 요청 메일을 보내고 전전공공 기다리기를 며칠, 드디어 PD님과

연락이 닿았다. 혼란스러운 취재 현장의 사정과 시차 때문에 메일과 카톡으로 아주 느리게 대화를 주고받으며 프로그램의 윤곽을 만들어갔다. 하지만 취재가 언제 끝날지, 또 언제 다른 취재가 잡힐지 모르는 미지수의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확실한 것은 없었다.

혹시 일정이 엇갈려 섭외가 불발되면 어찌지 하는 불안감이 해일처럼 나를 덮쳐왔지만, 다행히 운영계획 단계에서 PD님이 취재를 마치고 입국해서 일정을 확정할 수 있었다. 단 또 다른 취재 때문에 연속 4일 강연이라는 제안을 받았다. 처음 있는 일이라 당황스러웠지만 이런 기회가 다시 오지 않을 거라는 생각에 4일 연강을 수락하게 되었다. 일주일에 한번 있는 강연을 주 1회씩 모두 참석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런데 화, 수, 목, 금 연달아 4일 동안 강연을 운영하면 수강생들의 출석률이 과연 유지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들었다. 뻘뻘한 일정 때문에 혹시 발생할 지도 모르는 노쇼에 대응하기 위하여 1차 프로그램은 1회씩 나누어 신청을 받았다. 그런데 예상 밖으로 4일 모두, 혹은 하루를 제외하고 3일을 신청해주신 수강생들이 많았다. 다시 한 번 수강생들의 열의를 확인하고 기운을 끌어 모아 마지막 차시까지 뚝뚝하고 철저히 준비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이 발발한 무렵 이 프로그램을 기획하였는데 프로그램을 마무리한 시점에도 아직 총성이 멈추지 않아 마음이 무겁다.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세계는 왜 싸우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각자만의 해답을 찾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평화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 함께 되새겨볼 수 있어 의미 있었고, 프로그램 참여자 선생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신복도서관 주임님과 직원들의 전폭적인 지원 덕분에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다. 멀리 울산까지 강연을 위해 달려와 주신 김영미 PD님과 류한수 교수님께 특별히 감사드리고, 바쁘신 와중에도 멋진 강연을 해주신 김이재 교수님, 탐방과 후속모임을 탄탄히 꾸려 주신 이수정 해설사님께도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다. 또 새롭고 유익한 모습으로 인사드릴 것을 약속드린다.



참여자 이야기

막연히 알고는 있었지만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하여 외면했던 문제들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고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우리는 결국 연결되어 있음을 알았다. 김영미 피디님의 강의가 전쟁을 겪는 피해자 특히 약자의 삶을 이해할 수 있는 강의였다면 류한수 교수님의 강의는 현대 사회가 겪는 전쟁이라는 문제가 얼마나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 일어나는지 보다 거시적이고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강의였다. 강의를 듣고 나니 그동안 어떻게 하면 나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두 행복해지는 삶을 살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울산 국제 개발 협력센터에서 주관하는 세계 시민 교육 강사 양성 과정을 듣고 수료하게 되었다. 이는 김영미 피디님이 분쟁지역을 다니는 이유이자 류한수 교수님이 역사를 연구하고 알리는 이유와 닿아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초·중·고등학교에서 세계 시민 교육을 하며 자라나는 아이들이 세계 사람들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빈곤과 불평등을 함께 해결하고 서로 도울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보고 싶다.

참여자 1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은 시점에 이런 강의를 듣게 되어 슬프기도 하면서 뜻 깊은 기회였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환경에 더욱 고마움을 느끼게 되었다. 또한 어떤 이유나 어떤 형태의 폭력이나 살상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더욱 절감하였다. 하루빨리 전쟁이 끝나기를 바란다.

참여자 2

김영미 PD님의 생생한 취재후기! 정말 유익하고 많이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강연을 들으면서 전쟁이 남의 나라 문제가 아니구나. 나중에 내 자식, 후손이 겪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니, 침묵하지 않고 목소리를 높여야 국민들이 움직이고 국가가 움직이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각 나라별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보며 교육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표현의 자유가 없다면 인간의 존엄성이 상실되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지 김영미 PD님의 취재이야기를 들으니 마음

에 남습니다. 또한 언론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깨달았습니다. 앞으로 다음 세대를 위한 책임과 고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 강연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참여자 3

전쟁, 기아, 난민, 죽음, 살인, 총... 이 지구 곳곳에서 벌어지는 참상에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소셜, 언론을 통해 간간히 알았던 사건들이 PD님의 생생한 경험으로 듣게 되니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도 닥칠 수 있는 위험이란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탐욕은 끝도 없음에 나 자신도 되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너무나 위험하여 수없이 죽음의 위협까지 느꼈을 텐데도 불구하고 인간에 대한 인류애와 측은지심으로 또 그곳으로 떠났던 PD님의 용기에 큰 박수를 보냅니다. 그곳에서 만났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따뜻한 대한민국을 알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울산까지 오셔서 해 주신 진솔하고 진정성 있는 강의는 큰 감동이었고 재미있었습니다.

참여자 4

전쟁에 대한 정보와 이야기들을 신문이나 뉴스로만 접했었는데, 이론으로만 이해했던 정보들이 직접 경험에 의한 이야기로 들을 수 있는 값진 강의였습니다. 서양인 기준의 관점이 아니라 그 나라의 문화와 관습을 제대로 알 수 있었고, 전쟁이라는 일어나면 안 되는 상황들이 계속 벌어지는 중동국가들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더 넓은 견문을 얻을 수 있었고 잘못 알고 있는 정보들을 바르게 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참여자 5

우리는 이렇게 했어요



주제 세계는 왜 싸우는가: 동유럽에서 우리나라까지 거꾸로 보는 국제분쟁

유형 자유기획(기본형)

강사 김영미, 김이재, 류한수, 이수정

내용

- 1차 동유럽 분쟁 이야기와 전쟁터에서 만난 사람들
- 2차 아프리카 분쟁 이야기와 전쟁터에서 만난 사람들
- 3차 중동 분쟁 이야기와 전쟁터에서 만난 사람들
- 4차 아시아 분쟁 이야기와 전쟁터에서 만난 사람들
- 5차 독소전쟁1: 나치 독일의 소비에트 연방 침공
- 6차 독소전쟁2: 소비에트 연방의 저항과 반격
- 7차 서생포 왜성, 울주민속박물관(탐방)
- 8차 독소전쟁3: 제2차 세계대전의 종결과 냉전의 시작
- 9차 러시아 혁명 이전 시기 우크라이나-러시아의 역사
- 10차 러시아 혁명 이후 시기 우크라이나-러시아의 역사
- 11차 지도로 읽는 국제분쟁
- 12차 | 후속모임 | 울산의 목소리로 전쟁과 평화를 노래하다

일시 | 강연 | 2022. 6. 14.(화) ~ 2022. 7. 27.(수) 14:00 ~ 16:00

| 탐방 | 2022. 7. 1.(금) 14:00 ~ 18:00

| 후속모임 | 2022. 7. 29.(금) 14:00 ~ 16:00

장소 | 강연 | 신복도서관 2층 시청각실

| 탐방 | 서생포 왜성, 울주민속박물관

| 후속모임 | 신복도서관 2층 시청각실



관장 조해숙 담당사서 김선혜



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신복로72번길 18-13



홈페이지 ulsannamgu.go.kr/library



연락처 052-226-2362

신화, 인간의 삶을 말하다

광양시립중앙도서관

한국도서관협회장상



광양중앙도서관은 2014년도부터 길 위의 인문학 사업에 참여해오며 주로 지역공동체의 이야기를 다뤘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이번 「길 위의 인문학」의 포커스를 지역에서 ‘나’ 스스로에게 맞춰보고 싶었다. 그래서 ‘나는 왜 살아가는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는 과정으로 다가가 보고자 했다. 그 답을 찾는 방법으로는 ‘신화’를 택했다.

신화는 특정 민족과 국가에 한정되지 않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인류의 보편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다. 그리고 익숙하고 친근한 소재라는 점에서 신화를 중심으로 강연과 탐방을 진행한다면 인문학에 대한 심리적 장벽을 낮춰 참여자들의 관심과 흥미를 끌어낼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이 들었다. 이렇듯 인문학적 사유의 근원이라 할 수 있는 신화를 재해석하고, 신들에게 비추어 보는 인간의 모습을 통해 삶의 지혜를 배우고자 <신화, 인간의 삶을 말하다>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총 10회로 구성된 이번 프로그램은 세 가지의 대표 주제를 정해 진행했다. 첫 번째는 ‘인문학의 눈으로 보는 신화’라는 주제로 왜 인문학을 신화를 통해 다루는지에 대한 개괄부터, 두 번째는 ‘미술과 문학으로 만나는 그리스신화’, 세 번째는 ‘신화의 재해석, 일상 속 신화 들여다보기’와 같이 신화를 더 깊이 고찰하며 그 속에 숨겨진 의미를 발견하고 실천적 고민을 논의할 수 있도록 전체 과정을 구상했다.

특히 신화는 여러 주제 분야를 다루기 위한 매개체로 좋았다. 문학부터 사학, 철학, 미술, 종교 등 다양한 주제를 통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기 때문에 두 번째 주제는 아예 ‘그리스 로마 신화’를 한 꼭지로 정해 여러 인문 고전과 미술 작품도 소개하며 유익하기도 하지만 재미도 있는 강연을 진행하고자 했다.

일상에서 신화 찾기

코로나19 이후에 길 위의 인문학 프로그램을 전면 대면 강연으로만 진행한 것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참여자 모집부터 프로그램 마무리까지 무탈하게 진행하는 것이 목표가 되었다. 우선 대면 강연이라는 점에서 참여자들을 많이 불러오기 위해 각 주제별 강연을 맡아주실 해당 분야 전문가분들을 섭외했다. 신화 인문학을

연구하면서 다양한 강연 경험도 가지고 계신 안상헌, 박홍순, 김원익 세 분의 강사를 모셨다.

우리 민족의 문화와 정서가 담긴 삼국유사를 비롯해 서양문화의 원천인 그리스 로마 신화를 통해 나에게 필요한 신화는 무엇인지 다각도로 모색해보고, 우리 주변에서 자주 보아 눈에 익은 유명 상표나 로고 속에 깃들어 있는 재미있는 신화 이야기를 통해 현대에 재생산되는 신화의 가치를 생각해보기도 했다.

탐방은 김원익 강사님의 추천으로 인근 지역 하동의 지리산 삼성궁과 마고성에서 진행되었다. 단군신화가 깃든 삼성궁은 신화 속 여신 ‘마고’를 모시는 곳이다. 마고할미, 선문대 할망, 가이아 등 각 지역의 모(母)신을 비교하며 고대 신화에서 전승되는 문화적 가치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7월 말의 무더운 날씨 속 탐방이라 걱정이 많았는데 시원한 지리산 자락에서 이루어진 탐방이라 더위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 있었다. 코로나19로 인해 모두 오랜만의 야외 활동이었기 때문에 전체 과정 중에 호응과 만족도도 제일 컸던 날이었다. 그리고 이후 이루어진 후속모임으로 석 달간의 긴 여정을 마무리했다.



신선한 주제, 높은 만족도

이번 프로그램은 대면 강연의 장점이 잘 나타났다고 생각한다. 강사와 참여자 간의 소통이 활발히 이루어졌고 강의 참여도도 높았다. 도서관에서 신화 인문학은 처음 다뤘기 때문에 참여자들도 주제에 대해 신선해 했고 현장에서 접하는 만족도도 높았다. 입소문이 퍼지며 첫 회차에 참여자 18명으로 시작했던 것이 주제가 바뀌면서 참여자도 늘어나 서른 명 정원의 강의실을 꽉 채우는 광경도 볼 수 있었다. 강연 8회, 탐방 1회, 후속모임 1회로 이루어진 긴 호흡의 프로그램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던 것, 그리고 길 위의 인문학 우수도서관에 선정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열성적으로 참여해주신 강사님과 참여자들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벌써 다음 「길 위의 인문학」 프로그램을 기다리는 분들이 계신다. 앞으로도 참신하고 재미있는 주제를 통해 지역민에게 인문학을 쉽게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드리고 싶다.





참여자 이야기

우연히 도서관에 들렀다가 길 위의 인문학이라는 프로그램을 알게 되었다. 지루한 일상 속, 호기심 반 걱정 반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우연한 기회였지만 많은 것을 생각하고 깨닫고 나를 돌아보게 만든 좋은 시간들이었다. 특히 삼성궁을 다녀온 탐방이 기억에 남는다. 오랜만에 소풍을 다녀온 기분이었다. 반나절 동안이었지만 웃고 떠들고 좋은 공기도 마시고 참 좋았다. 다음번에도 참여해보고 싶고 다음엔 탐방도 많이 했으면 좋겠다.

참여자 1

책 속의 오래된 이야기라고 생각했던 신화가 여전히 우리 삶 곳곳에 스며들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신화 내용을 문학 작품과 그림 작품을 통해 재미있게 알게 되었고, 또 동서양의 신화를 비교하고 공통점을 찾으면서 삶의 태도도 배우고 나 자신도 성찰해보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앞으로도 풍성한 강연이 많이 생겨서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좋겠습니다. 좋은 강연을 들려주신 강사님들과 도서관에 감사드립니다.

참여자 2

이번 길 위의 인문학 활동은 신화를 주제로 한다고 했다. 어릴 적 그리스로마 신화를 읽고 꿈꾸었던 생각들이 떠올랐다. 어릴 적 느꼈던 점과 이번에 신화를 다시 읽고 느낀 점은 많은 차이가 있다. 이전에는 재미있는 이야기로만 생각했는데 신화는 다양한 인간군상이 녹아 있는 거울이고 나와도 비슷한 점을 찾을 수 있었다. 특히 시지포스와 나르키소스를 다룬 내용이 기억에 남는다. 다양한 주제로 강의를 들을 수 있어 너무 좋았고 귀한 시간이었다.

참여자 3

우리는 이렇게 했어요



주제 신화, 인간의 삶을 말하다

유형 자유기획(기본형)

강사 안상현, 박홍순, 김원익

내용 1차 인문학의 눈으로 보는 신화

1강 인문학, 왜 신화인가?

2강 삼국유사와 우리 신화 이야기

3강 그리스 로마 신화, 인간을 말하다

2차 미술과 문학으로 만나는 그리스신화

4강 시지포스와 나르키소스

5강 아킬레우스와 헥토르

6강 피그말리온과 아프로디테

3차 신화의 재해석, 일상 속 신화 들여다보기

7강 상표와 로고 속 그리스신화 이야기 1

8강 상표와 로고 속 그리스신화 이야기 2

9강 | 탐방 | 지리산 삼성궁과 마고성 탐방

10강 | 후속모임 | 한국의 테세우스와 페르세우스-유리왕자와 석탈해

일시 | 강연 | 2022. 5. 26.(목) ~ 2022. 7. 14.(목) 14:00 ~ 16:00

| 탐방 | 2022. 7. 21.(목)

| 후속모임 | 2022. 7. 28.(목)

장소 | 강연 | 광양중앙도서관 교육실

| 탐방 | 경남 하동 삼성궁

| 후속모임 | 광양중앙도서관 교육실

오늘부터 인생리셋! 인문학 삶의 무기가 되다!

의성군립도서관 | 김정미

한국도서관협회장상 | 우수담당자 수상자



2022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의 <오늘부터 인생리셋!>을 기획하던 당시에는 장기화된 팬데믹 상황이 앤데믹으로 전환되며, 전염병에서 이제는 해방되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에 부풀어있을 때였다.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면서 디지털 사용이 현격하게 늘어나고 이제는 ‘디지털 전환’이 일반적인 용어로 쓰이기 시작했다. 빠르게 디지털 시대로 변한 지금, 새롭게 다가오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노년층이 변화에 뒤쳐지지 않도록 인문학으로 새로운 삶의 방향을 배워보는 시간을 만들어보고자 강연의 전체 주제를 <인생리셋>으로 잡았다. 60세 이상을 타깃으로 한 2022년 <인생리셋>의 목표는 이전에 갖고 있던 생각과 습관을 과감히 깨트리고 새로운 삶의 루틴들을 만들어보는 삶의 전환점이 되는 인문학을 만들어가고자 하였다.

의성군립도서관의 2022년 「길 위의 인문학」은 ‘오늘부터 인생리셋’이라는 대주제 아래 <건강>, <마인드>, <디지털>이라는 키워드로 각각 1, 2, 3차시를 구성하였다. 1차시에서는 ‘헬시플레이저’와 같이 즐겁게 일상을 영위할 수 있는 트렌디한 건강관리 문화를 만나볼 수 있도록 ‘운동말고 바디리셋’이란 구성으로 3회의 강연을 실시했다. 3회 강연은 근육투자, 비건식사, 호흡혁명으로 근육과 식사, 그리고 노래로 배우는 호흡기술을 살펴보는 특강이었다.

2차시는 ‘멘탈관리법’을 테마로 예기치 못한 스트레스 상황을 유연하게 넘길 수 있는 자기조절 메커니즘을 심리학을 통해 알아보는 시간으로 ‘마인드리셋’을 주제로 구성했다. 2차에서는 힐링을 위한 ‘숲명’으로 탐방과 함께 2회의 강연이 있었다.



3차시는 코로나19를 지나는 사이 일상 깊숙이 들어온 ‘비대면 서비스’를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으로 배워보며 새롭게 변화하는 환경에 완벽 적응할 수 있는 ‘디지털리셋’을 주제로 강연을 편성했다. 3차시에도 3회의 강연으로 디지털 리터러시와 소통, 변화에 따라갈 수 있도록 디지털에 대한 강연을 실시했다. 2차시와 3차시 사이에 ‘나는 원하는대로 살라고 했다’라는 주제로 후속모임을 진행했다. 어르신들 중 심으로 실시된 인문학 강의였는데 인생리셋에 함께 호응해 주시고 치유와 새롭게 배움의 즐거움을 받았으며 만족도가 높았다.



어르신을 주인공으로 ‘관계’의 시간

고령화율이 40%가 넘는 지역 특성상 도서관을 이용하는 노년 인구 비율이 높은 편이다. 또한, 2018년부터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을 60세 이상 어르신에게 타깃팅을 해서 운영한 <노년 인문학>이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그 덕분에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에 참여하는 노년층의 비율과 관심도가 높아지고 ‘어르신’이 인문학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삶의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까를 주안점으로 두고 사업을 운영해 나가고 있다. 이를 통해 여타 인문학 사업과는 달리 2022년 사업에서 <디지털리터러시>라는 주제를 다루었고, 단순 문화강좌에 그치지 않도록 그간 단절되었던 ‘관계’들을 돌아보며 우리를 둘러싼 지역, 관계들을 돌아보는 시

간을 마련하였다. 그간 배우고 싶었던 부분을 시원하게 굽어준 디지털리터러시와 우리 주변에 있는 소중한 관계들을 되새겨보는 눈물 콧물을 쫓 뺀 감동의 시간에 참여한 어르신들께서 뜨거운 반응을 보여주셨고 저 또한 굉장히 뿌듯했던 프로그램이었다.

또, 2017년부터 햇수로 6년을 진행해 온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단순 강연식의 프로그램 운영은 자칫 지루하게 흘러갈 수 있었고, 코로나19로 인해 탐방프로그램 운영이 힘들었기 때문에 특히 특색 있는 체험프로그램 기획이 되도록 힘썼다. 가장 야심차게 기획해보았던 프로그램은 유현수 셰프와 함께하는 ‘비건식사’였다. 비건요리를 체험해보면서 단순 요리체험 뿐만 아니라 비건이 가진 사회적 의미를 돌아보고 공존의 가치와 함께 내 건강도 위할 수 있는 방식들을 배워볼 수 있도록 차시를 구성했고, 이 프로그램 또한 평소에 접해보지 못한 색다른 경험으로 인해 큰 호응을 얻을 수 있었다.





참여자 이야기

의성군립도서관에서 운영하는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애써주신 관장님과 직원분들께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 분들의 노력으로 지역 민소재지의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훌륭한 교수님들의 명강의를 듣고 항상 내 자신을 힐링할 수 있는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좋은 교육 덕분에 노년의 삶을 치유하면서 소통할 수 있고, 아울러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교수님들의 명강의가 나 자신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었고, “어떻게 인생을,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조금 덜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3차시 소통의 시작 온택트 강연 중 “시대의 흐름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지니고 있는 가족들의 모습에서 나는 누구와 함께 살 것인가?” 또 “타인들과 어떻게 행복한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라는 말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이 말과 강의를 곱씹으며 나에게 나 자신을 통찰하고 내 삶의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길잡이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근력 회복탄력성 강연 중 심리 상담을 통해 인생 2막의 아픔을 치유하는 사례들을 보면서 나는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면 감동을 줄 수 있고, 감동을 받은 사람은 변화한다는 내용을 매우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이 강의는 인생 후반기의 삶을 건강하고 행복하고 즐겁게 살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해주었는데, 이것이 어느새 70을 바라보는 저에게 많은 힐링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이가 들면서 우리 인간은 누구나 기쁨도 누리고 또한 상처도 겪게 된다는 말을 들으면서 나는 이 상처 앞에서 괴로워 말고 좌절 말고 다가오는 상처를 극복해야 함을, 또 이런 상처가 누구나 겪는 과정임을 자각하고 나 자신도 이런 모든 것을 받아들이면서 생을 꾸려나가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나는 이 상처를 치유하고, 나아가 나 자신의 수양과 실천을 통해 자기 공의의 길로 나아가며 살아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2022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오늘부터 인생리셋을 들었던 때를 생각하니 마음 속이 힐링으로 꽉 차오릅니다. 다가오는 2023년 한 해도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시간이 기다려집니다. 도서관 임직원 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한 날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근대 사회는 생활 향상으로 평균 수명이 남녀 80세를 기준으로 장수의 길로 나날이 연장되어 가고 있다. 나도 그 대열에 동참할 수 있을까? 몸이 불편한 나로서는 현재 75세, 앞으로 5년 후 80세 그때까지 살 수 있을까하고 착잡한 마음으로 많은 그림을 그려본다. 모두가 새로운 것들을 자기 지식으로 만들기 위하여 너무 힘든 시간들을 보낸다. 참석한 대다수의 사람들이 나와 같은 생각으로 값진 시간을 보내리라. 그러나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조금이라도 새로운 지식을 잘 배워 다짐하게 되니 정말 좋은 기회라고 다시금 생각한다. 각종 파트가 다른 내용의 인문학을 듣고 배우는 것에 깊은 감사를 느낀다. 이곳에 참석 못하는 사람들이 시간 아니면 취향이나 각자의 주어진 환경 차이 때문이었지만 참석 못 한 모두가 이 좋은 기회를 같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본다.

참여자 2

이성균립도서관이 2017년부터 시작한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은 2022년까지 유능한 강사진을 초빙하여 수강생들에게 흥미롭고 유익한 지식과 삶의 지혜를 제공한 야심찬 인문학 사업이었다. 평소에 인문학에 관심이 많아서 수강을 신청했지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자주 참석하지 못해서 훌륭한 강사님들의 강연을 많이 놓쳐버렸다. 하지만 시간이 나는 대로 톱툰이 강의를 경청하면서 나는 나 자신의 인생관과 가치관에 대해서, 그리고 삶에서 일어나는 문제와 대안들에 대해서 여러 관점에서 이해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내가 참석한 강좌 가운데 명강의가 많았지만, 특별히 기억에 남는 내용을 소개한다면 칠레시인 파블로 네루다가 말했다는 ‘우리가 아는 것은 한 줌 먼지만도 못하고, 짐작하는 것만이 산더미 같다. 그토록 열심히 배우지만 우리는 단지 질문하다가 사라진다’를 들으면서 인문학 강좌의 필연성을 느꼈고, 끊임없이 공부하며 살아야한다는 지혜를 배웠다. 그리고 ‘늘 주어진 순간 순간을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라’라는 니체의 말이 아직까지도 감동으로 남아있다. 이 외에도 올해 운영한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의 여러 강좌들은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많은 깨달음을 남겨 준 유익한 강의였다.

앞으로도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이 지역의 정체성을 살리면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인문학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지금까지와 같은 태도로 도서관이 지역 주민과 함께 노력한다면 이 프로그램이 이용자들에게 보람 있고 유익한 삶의 방향을 제시하고, 아울러 의성군립도서관이 지역문화 창달과 독서진흥의 산실로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마지막으로 이 기회를 빌려 손건옥 관장님의 열정과 도서관 직원들의 노고에 찬사를 보낸다.

참여자 3

우리는 이렇게 했어요



주제 오늘부터 인생리셋!

유형 특화기획(주제특화)

강사 이홍열 외 6명

내용 **1차** 운동 말고 바디리셋

강연1 지속가능한 내일을 위한, '근육 투자'

강연2 체험 건강하게! 맛있게! '비건 식사'

강연3 미세먼지에서 살아남기, '호흡 혁명'

2차 무너지지 말고 마인드리셋

강연4 마음의 근력 '회복탄력성'

강연5 오늘부터 둔감하게 '걱정연습'

강연6 탐방 일상 속 힐링타임 '숲멍'

후속모임 나는 '원하는대로' 살기로 했다

3차 포기하지 말고 디지털리셋

강연7 시야를 넓혀라 '디지털 리터러시'

강연8 소통의 시작 'ON택트'

강연9 변화의 시대 '존스러움을 힘하게!'

일시 | **강연** | 2022. 5. 13.(금) ~ 2022. 7. 2.(금) 14:00 ~ 16:00

| **탐방** | 2022. 6. 3.(금) 08:30 ~ 17:00

| **후속모임** | 2022. 7. 1.(금) 14:00 ~ 16:00

장소 | **강연** | 국립도서관 1층 강당

| **탐방** | 영주국립산림치유원

| **후속모임** | 국립도서관, 의성 청소년문화의집

인생을 클래식하고 찬란하게 보내는 법

대치도서관

한국도서관협회장상



클래식이라는 이름이 주는 이미지는 무겁다. 다소 차갑고, 조금은 고리타분하게 보인다. 하지만 그런 오래된 속에 품격이 있다. 우아함이 있다. 그렇기에 우리는 클래식이 가지고 있는 매력에 아직도 빠져있는 것이 아닐까 한다.

대치도서관은 2022년 <인생콘서트 : 클래식하고 찬란하게>라는 주제로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고전 음악의 매력에 대해 배우면서 나의 인생도 클래식처럼 품격 있고 우아하게, 하지만 고리타분하지는 않게 살자’는 큰 주제 아래 클래식, 오페라 그리고 한국가곡의 이야기를 담고자 하였다. 참여대상은 ‘어르신’으로 정하였다. 대치동 학원가로 대표되는 강남구의 교육특구 이미지 이면에는 강남구와 수십 년의 역사를 함께 한 어르신들이 계셨기 때문이라는 생각에서였다. 또한, 코로나19로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대부분의 문화프로그램이 비대면으로 전환되면서, 상대적으로 디지털 기기가 낯선 어르신들은 문화적으로 많이 소외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지역 어르신들의 마음을 클래식을 통해 치유하고 위로한다는 의미도 같이 담고자 하였다.

일상에서 듣는 인생콘서트

「길 위의 인문학」은 1차 <클래식토픽>, 2차 <명작 한국가곡>, 3차 <오페라 명작>의 총 3회차로 진행하고 마지막 후속모임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더욱 많은 분들과 참여 기회를 드리고, ‘인생콘서트’라는 제목에 맞게 다양한 장르와 내용을 담기 위해서였다.

1차로 진행된 <클래식토픽>은 지석영 피아니스트님께 부탁드렸다. 처음 기획단계에서 지석영 피아니스트님은 어르신을 치유하고 위로하고자 하는 우리의 기획의도에 깊이 공감해주시고, 혹시 피아노를 들여놓을 공간이 되는지 문의를 주셨다. 이왕이면 피아니스트가 직



접 연주하는 음악을 들려주는 것이 프로그램의 취지를 더 살릴 수 있지 않겠냐는 제안이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치도서관은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 2층에 위치하였고, 피아노를 들여놓을 만한 공간도 마땅치 않았다. 그렇다고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께 디지털 피아노로 요청 드리는 것 또한 어불성설이었다. 그래서 많은 논의 끝에 6월에 예정된 탐방 때 공연장에서 생생한 피아노 연주를 참여자들에게 직접 들려드리기로 결정하였다.

〈클래식토픽〉은 삶, 사랑, 영웅, 죽음, 판타지, 시, 자연 7가지 주제를 통해 클래식 작품과 그 작곡가에 대해 들여다보고 작품을 감상하며 사색하는 형식으로 구성되었다. 지식영 피아니스트님의 재치 있는 입담을 통해 시작된 강의는 이용자들에게 대호평이었다. 이따금 어떻게 아셨는지, 혹시 중간부터 듣거나 청강이 가능한지 문의하시는 분도 계셨다. 하지만 역시 제일 반응이 뜨거웠던 것은 아랍아트홀에서 진행된 탐방이었다. 1차 탐방은 실내악 콘서트 형식으로 기획되었다. 약간의 보슬비가 지나가듯 내린다는 일기예보가 있었으나 정작 당일에는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렸는지 비가 세차게 쏟아졌다. 탐방을 미루거나 장소를 변경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 계획대로 진행하기로 하였다. 오시기 불편하시지는 않을까, 비 때문에 다 못 오시는 건 아닐까 걱정하고 있으니 관장님께서 웃으시며 “오실 분들은 다 오시니 너무 걱정하지 마”라며 말씀하셨다. 다행히도 탐방 프로그램을 시작할 즈음에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셨다. 거리도 있고 매우 굵은 날씨에 오시기 힘드셨을 텐데도 모든 순간순간 정말 좋아해주셔서 뿌듯하였다.

2차로는 한국가곡을 주제로 〈명작 한국가곡〉을 진행하였다. 세계적인 김기선

테너님을 모시고 한국가곡을 시대별, 작곡가별로 살펴보는 형식으로 구성하였다. 단순히 가곡에 대한 지식만 쌓는 것이 아닌, 때로는 테너님이 불러주시는 가곡을 감상하고, 때로는 다 함께 불러보며 우리 가곡의 아름다움을 직접 느껴볼 수 있도록 하였다. 우리 가곡하면 오래



된 이미지를 떠올리곤 한다. 어찌면 그것은 우리가 배우는 가곡들이 대부분 일제 강점기 시절 만들어진 탓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슈베르트의 송어와 마왕을 들을 때는 그런 이미지보다는 아름답다는 느낌을 먼저 받는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김기선 테너님의 강의는 그 의문에 답을 해주는 강의였다. 우리 가곡도 충분히 아름답지만, 그저 접할 기회가 별로 없었기에 그런 이미지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그리고 과거에 머물러 있기만 한 것이 아닌, 지금도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시는 강의였다.

〈명작 한국가곡〉의 탐방은 거리콘서트로 진행하였다. 대치동 근처 영동5교 밑에는 작은 거리공연장이 있다. 공연이 없을 때는 양재천을 지나며 운동하는 시민들의 휴식처가 되어주는 공간이다. 구청에 허가 공문을 받고 혹시나 시민들께 불편을 끼칠 것을 염려해 미리 양해를 구하는 홍보물을 부착하였다. 김기선 테너님과 같이 활동하는 멜랑쉬 오페라단 분들이 불러주시는 노래에 길을 가던 시민들도 발걸음을 멈춰 공연을 감상하였다. 일반 시민들에게는 다소 생소할 수 있는 한국가곡을 주제로 공연했음에도 생각보다 큰 호응을 주셔서 가슴이 벅차올랐다.



3차 <오페라 명작>은 1차, 2차 강의의 성공적인 종료로 특히 더 많은 분들이 접수해주셨다. 대기자까지 접수가 완전히 마감된 후에도 계속하여 문의가 있었지만 장소가 협소하여 인원엔 제한을 둘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쉬웠다. 강의는 현역 소프라노이자 숭실대 박명숙 교수님이 맡아주셨다. 오페라의 역사와 발전을 당시의 시대상과 함께 살펴보고 오페라 극 중 주요 곡들을 함께 감상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고, 그 속에 담긴 우리네 인생을 같이 살펴볼 수 있도록 하였다. 강의는 호평이었다. 거의 빠지지 않고 강의에 참석하시며 사정이 생겨 빠지게 되더라도 후일 도서관에 방문해서 강의안을 꼭 챙겨가는 어르신들을 보며, 이 지역 어르신들의 인문학에 대한 요구가 얼마나 컸었는지를 새삼 짐작할 수 있었다.

우리 삶을 품위 있고 찬란하게

후속모임은 <천상의 향연>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었다. 강남구청과 콜라보로 진행되어 당초 예정보다 더 많은 분들을 모실 수 있었다. 클래식 연주, 한국가곡, 오페라의 콜라보레이션으로 진행된 해설이 있는 음악회로 모든 강사진들과 여러 유명 연주자, 성악가들이 함께하였다. 1부 진행은 1차 강연의 지식영 피아니스트님, 2부 진행은 2차 강연의 김기선 테너님께 부탁드렸다. 1부는 클래식 연주로 채워졌고, 2부는 오페라와 한국가곡 등 성악으로 채워졌다. 그리고 콘서트의 오프닝은 도서관을 이용하는 지역주민 학생의 피아노 연주로 시작하여 지역주민과의 연계를 강조하였다.

처음에는 후속모임인 만큼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수강자에 한하여 모집하려 하였지만,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변경하였다. 보다 많은 지역 주민들에게 인문학을 널리 알리고 나아가 생활 속에서 즐기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도서관에서도 코로나 이후로 오랜만에 이루어지는 큰 행사였기에 전 직원이 모여 심혈을 기울여 준비하였다. 공연장이 아닌, 구청 로비에서 진행된 행사였기에 행사 시작 몇 시간 전부터 무대와 좌석이 세팅되고, 리허설이 진행되어 구청 이용에 많이 불편했음에도 오히려 많이 이해해주시고 리허설이 너무 좋다고 현장에서 접수도 가능한지 많이 물어봐 주셔서 기운을 내서 준비할 수 있었다. 공연은 대



호평이었다. 2시간에 달하는 제법 긴 공연이었음에도 다들 끝까지 공연에 함께해주었고, 끝난 후에도 좋은 공연 감사하다, 혹시 내년에도 진행되는가 물어봐 주셨다. 담당자로서 정말 기쁘고 뿌듯한 순간이었다.

사람에게는 다양한 삶의 방식이 있고, 어떤 이에게는 삶이 쉬울 수도, 어려울 수도 있다. 하지만 삶을 멋지게 -품위 있고 찬란하게- 보내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은 모두가 동의할 것이다. 그런 멋진 삶을 보내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인생콘서트 : 클래식하고 찬란하게>라는 이름으로 2022년을 열심히 달려왔다. 부족한 담당자임에도 격려와 믿음을 주신 관장님, 프로그램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팀장님들, 동료 사서분들, 훌륭한 강의를 해주신 강사님들, 그리고 열심히 강의에 참석해주시고 격려의 말씀해주신 참여자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2023년도 좋은 인문학 프로그램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참여자 이야기

정말 재미있고, 평소 접하기 쉽지 않은 음악과 음악가들에 대해 공부할 수 있는 뜻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프로그램이 너무 짧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참여자 1

이렇게 좋은 강의는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힐링이 되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훌륭한 프로그램을 만났네요.

참여자 2

2회차 한국가곡을 수강하였습니다. 한국가곡은 자료 찾기도 쉽지 않고, 접하기도 쉽지 않은데, 훌륭한 강사님의 노래와 강의로 아침을 시작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이런 자리 마련해주신 대치도서관, 감사합니다.

참여자 3

우리는 이렇게 했어요



주제 인생콘서트 : 클래식하고 찬란하게

유형 특화기획(대상특화)

강사 지석영, 김기선, 박명숙

내용 1차 클래식토픽

2차 명작 한국가곡

3차 오페라 명작

일시 | 강연 | 1차 2022. 6. 9.(목) ~ 2022. 7. 21.(목) 10:00 ~ 12:00

2차 2022. 6. 13.(월) ~ 2022. 7. 25.(월) 10:00 ~ 12:00

3차 2022. 8. 8.(월) ~ 2022. 9. 26.(월) 10:00 ~ 12:00

| 탐방 | 1차 2022. 6. 30.(목) 10:00 ~ 12:00

2차 2022. 6. 27.(월) 10:00 ~ 12:00

| 후속모임 | 2022. 10. 20.(목) 19:00 ~ 21:00

장소 | 강연 | 대치도서관 문화교양관

| 탐방 | 1차 서초구 아람아트홀

2차 영동5교 밀 공연장

| 후속모임 | 강남구청 로비

관장 유순덕 **담당사서** 박현우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212 은마상가 2층 215호

홈페이지 library.gangnam.go.kr/dchlib **연락처** 02-565-6666

숲·생태·인간 공존의 미래를 꿈꾸다

기장도서관

한국도서관협회장상



부산 기장도서관은 지난 5년간 문·사·철 등 다양한 테마로 「길 위의 인문학」 사업을 운영해 왔다. 매년 새로운 주제로 지역민의 인문학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는 만큼 주민들 기대 또한 높다.

장기화되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며, 기장도서관의 「길 위의 인문학」은 작게나마 지역민들이 서로 만나 지식과 지혜를 채울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팬데믹으로 인한 문화 갈증을 해소할 수 있으면서 동시에 치유를 느낄 수 있는 인문학을 이곳 기장에서 찾아보고자 하였다.

기장군에는 잘 가꾸어진 숲이 두 군데 있다. 철마의 아홉산 숲과 치유의 숲이 그곳이다. 항상 사람과 공존하며 사람을 지켜주는 숲과 환경에서 답을 얻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람과 환경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으며, 우리 지역의 생태를 탐방하며 치유를 느낄 수 있는 인문학 프로그램을 만들자’라는 목표로 기획을 시작했다.

우선 환경의 문제에 대해 인문학자 및 환경과 연관된 분야의 다양한 전문 학자들의 다각적 견해를 듣기 위해 인문학연구소 소장님, 언론사 관계자, 환경공학과 및 자동차과 교수님 등 다양한 전문가를 섭외하게 되었고 흔쾌히 요청을 수락해 주셔서 자연환경에서 치유의 시간을 가져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었다.

일상에서 생각할 수 있는 미래

이렇게 시작한 길 위의 인문학 사업은 지역 주민들과 함께 환경을 공부하고 다양한 시각으로 자연을 보는 시간을 가지며, 공존의 미래를 함께 준비하자는 주제 특화 기획으로 크게 2차 주제로 각 강연 4회씩, 총 8회, 탐방 1회, 후속모임 1회를 진행하였다.

1차는 ‘소설과 영화로 맛보는 환경과 생태’를 대주제로 4회의 강연이 진행되었다. 첫 번째 강연은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로 인문학당 달리의 박선정 소장님과 함께 미국의 대표적 소설가인 돈 드릴로(Don DeLillo)의 『화이트 노이즈』와 『언더월드』를 통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들여다보는 강연이었다. 이어 두 번째 강연인 ‘지구가 조금 더 따뜻해지는 게

뭐가 문제야'를 통해 지구 온난화와 생태 변화에 대한 실질적인 가능성들을 다르크 로스만(Dirk Rossmann)의 환경 소설 『문어의 아홉 번째 다리』와 함께 풀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세 번째 강연에서는 '자연과 인간의 화해'를 주제로 장 지오노(Jean Giono)의 소설 『나무를 심은 사람』을 통해 우리가 망각하고 있었던 자연의 의미에 대해 함께 고찰해 보았으며, 네 번째 강연 '함께 산다는 것'을 통해 미야자키 하야오(宮崎駿)의 영화 <모노노케 히메(원령공주)>,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을 통해 공존의 의미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다.

2차는 '환경에 대한 통섭과 이해, 진정한 공존의 의미'를 대주제로 4회의 강연을 진행했다. 첫 번째 강연 '생태학을 들여다보는 과학철학적 시선'은 인저리타임 대표 조송현 교수님과 함께 지구라는 푸른 별에 살고 있는 인간과 자연에 대해 과학 철학적 시선으로 들여다보며, 자연과 싸우지 않고 함께 살아가는 공존의 가치를 다시 한번 일깨우는 시간을 가졌다. 두 번째 강연 '기후위기 시대, 세입자 지구인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뿐인 지구가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인간들의 모습을 통해 '다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경성대 환경공학과 김해창 교수님과 함께 고민해 보았다. 세 번째 강연은 '도시도 생명을 가졌다'를 통해 정달식 강사님과 함께 도시와 아파트가 주요 삶의 공간이 되고 있는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을 환경의 관점에서 새롭게 고찰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았다. 네 번째 강연 '자동차도 환경을 생각한다'는 자동차 공학과 교수님과 함께 지구 환경 오염의 주범 중 하나인 자동차에 대해 알아보며 자동차의 대안과 변화를 다루었다.





이후 탐방은 ‘자연에서 배우다’를 주제로 한 가장 아홉산 숲 탐방이었다. 여덟 번의 만남 동안 함께 나누었던 고민을 안고 다시 자연으로 들어가서 새롭게 자연을 배우고 익히고 느끼는 시간을 가졌다. 직접 숲으로 들어가서 그곳 자연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생명의 숨소리를 느끼며 공존에 대한 가르침을 얻고 이와 함께 ‘치유’ 또한 체험할 수 있었다.

모든 강연과 탐방을 끝낸 후의 후속 모임으로 ‘환경, 우리 몸과 밀착되어 있다’를 주제로 한 후속 모임이었다. 지금까지 배운 환경 문제의 팩트를 고찰하고, 이러한 환경문제들이 우리의 몸, 우리의 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 환

경과 함께 공존해야 하는 현대인들의 자세에 대해 함께 논의해보았다.

한여름 열기만큼이나 뜨거웠던 7월 개강을 지나 비오는 날의 아홉산 숲 탐방, 초가을의 후속모임을 끝으로 완전한 가을이 오고 프로그램을 마무리 할 시기가 다가왔다. 강연자, 수강생, 담당자 모두 길 위의 인문학을 통해 지구의 거주민으로서 인간이 어떻게 환경으로서의 지구와 함께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 다양한 고민과 시선으로 다가갈 수 있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인간 역시 자연의 일부라는 의미에서 결국 ‘어떻게 함께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고 그 속에서 인문학적 지혜와 해답을 얻을 수 있었다. ‘세상과 인간, 자연과 각 개개인,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이해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고민하게 만들어 준 시간이었다.

공존의 미래, 도서관에서 답을 찾다

「길 위의 인문학」은 기장도서관 대표 인문학 프로그램이며 도서관 이용자에게도 인정받고 있다. 그만큼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도 높다. 지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프로그램을 기획해야 하는 담당자로서 처음으로 환경과 관련된 인문학 프로그램을 기획하며 과연 기장도서관 이용자들이 관심 있어 하는 주제일지 불안과 걱정이 앞섰다. 하지만 도서관 이용자들의 배움에 대한 열정과 인문학에 대한 욕구는 담당자의 걱정을 잠재우기에 충분했다. 개강과 동시에 참가자들의 인문학에 대한 열기를 절실히 느낄 수 있었고, 매 수업 시간마다 열띤 질문과 토론으로 응답해 주었다. 더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가기 위해 기획부터 진행까지 쉽지 않은 고민과 여러 시행착오를 겪으며 힘에 부칠 때도 많았지만, 강좌가 끝난 후 참가자들의 ‘고생했다’, ‘고맙다’는 말 한마디는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되었다. 담당자가 느낀 위안처럼 참가자들에게도 「길 위의 인문학」이 늘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

「길 위의 인문학」사업의 가장 큰 주제는 공존이 아닐까 한다. 사람과 문학, 사람과 예술, 사람과 환경 등 모든 것이 공존하며 이룬 성과와 즐거움을 다 함께 공유하는 것이 이 사업의 가장 큰 목적이 아닐까 감히 생각한다. 그리고 그 즐거운 공존의 곁에 언제나 도서관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참여자 이야기

우리 환경과 생태에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에 대해 배울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습니다. 덕분에 한여름 더위도 잊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비오는 날 많은 분들과 함께한 아홉산 숲 탐방은 정말 좋았습니다. 좋은 기획으로 수고를 아끼지 않은 담당자분께 박수를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참여자 1

이번 길 위의 인문학에 참여하며 기장도서관의 인문학 프로그램의 질이 한층 높아졌음을 느꼈습니다. 앞으로도 양질의 프로그램을 기대하며 다음 길 위의 인문학에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합니다.

참여자 2

많은 지식을 전달해 주는 유익한 프로그램이었으며, 우리 아이들과 그 다음 세대를 위한 고민을 안고 이번 프로그램을 마칩니다. 길 위의 인문학 덕분에 매주 수요일 10시에서 12시가 기다려졌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흠뻑 빠져 있었습니다. 좋은 강의, 좋은 체험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여자 3

많은 관점에서 환경을 바라보게 해주는 좋은 수업이었다. 이번 강좌를 듣고 나서, 우리 후손에게 물려주기에 부끄럽지 않은 세상이 되도록 자연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경청하며, 그 속에서 사람과 자연이 함께 공존할 수 있도록 나부터 한걸음 한걸음 노력해야겠다는 다짐을 했다.

참여자 4



우리는 이렇게 했어요



- 주제** 숲·생태·인간 공존의 미래를 꿈꾸다
- 유형** 특화기획(주제특화)
- 강사** 박선정, 최정아, 조송현, 김해창, 정달식, 김용현, 장만태, 홍영삼
- 내용**
- 1차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 2차 지구가 조금 더 따뜻해지는 게 뭐가 문제야
 - 3차 자연과 인간의 화해
 - 4차 함께 산다는 것
 - 5차 생태학을 들여다보는 과학철학적 시선
 - 6차 기후위기 시대, 세입자 지구인으로 산다는 것
 - 7차 도시도 생명을 가졌다
 - 8차 자동차도 환경을 생각한다
 - 9차 자연에서 배운다
 - 10차 환경, 우리 몸과 밀착되어 있다
- 일시** | 강연 | 2022. 7. 6.(수) ~ 8. 24.(수), 10:00 ~ 12:00
 | 탐방 | 2022. 8. 31.(수) 09:00 ~ 13:00
 | 후속모임 | 2022. 9. 7.(수) 10:00 ~ 12:00
- 장소** | 강연 | 기장도서관 시청각실
 | 탐방 | 기장군 철마면 아홉산 숲
 | 후속모임 | 기장도서관 시청각실



관장 정종복 담당사서 지은영



주소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차성동로 126번길 13-5



홈페이지 library.gijang.go.kr/gijang/main.do



연락처 051-709-5332

그림책, 그 무한한 매력으로 풍덩!

서귀포기적의도서관

한국도서관협회장상



서귀포기적의도서관은 2004년 어린이 전문도서관으로 설립된 도서관이다. 내후년이면 20년이 되고 해마다 구입한 그림책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도서관이다. 해마다 아이들 수는 줄어들고 그림책은 0세부터 100세까지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책인데 많이 활용되지 못하는 것 같아 아쉬웠다. 그러던 차에 올해 이수지 작가의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상 수상을 계기로 그림책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커지기 시작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또한 도서관 공간의 일부를 그림책 강연 및 전시를 목적으로 하는 ‘그림책갤러리’라는 공간을 조성할 계획이어서 여러모로 그림책과 관련된 사업이 필요했다.

이런 분위기에서 2022년 서귀포기적의도서관에서는 <그림책, 그 무한한 매력으로 풍덩!>이라는 주제로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처음 기획하는 사업이다 보니 그림책 작가들을 섭외하는 것부터 탐방 장소 선정까지 어느 것 하나 쉬운 것이 없었다. 그림책 작가들을 섭외하기 위해 원주시 그림책 센터의 도움으로 처음으로 그림책 입문에 적합한 작가들을 추천받기도 하고 직접 작가의 인스타그램 소통을 통해 많은 도움을 얻어 강연을 기획하게 되었다. 그리고 강연과 함께 제주도에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작은 서점과 그림책 문화공간을 활용하여 탐방을 하고 그림책의 매력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함께 구성했다. 탐방 장소 선정을 위해 여러 그림책방이나 그림책 갤러리를 알아보던 중 전이수 갤러리라는 카페와 미술관을 겸하는 장소도 알게 되었다. 사업을 기획하는 단계에서 이러한 탐방장소들을 다니며 일정을 조율하거나 사전 현장 답사를 통해 신중하게 선정했다.

그림책의 세계, 작가의 이야기

서귀포기적의도서관에서는 총 10회로 강연 5회, 탐방 3회, 체험 1회, 후속모임 1회로 사업이 진행되었다. 1회차는 그림책 입문이라는 주제로 정진호 작가님을 모시고 강연을 진행했고 첫 강연이고 멀리서 오시는 만큼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셨다. 정진호 작가님도 건축에 대한 이야기, 그림책을 표지부터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보는 법, 작가님의 첫 그림책 『위를 봐요!』라는 책을 읽어주면서 어떤 관점에서 봐야 하는지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이야기해 주셨다.

2회차는 ‘그림책 심리학’이라는 주제로 신혜은 작가님을 모시고 강연을 진행했다. 이번 강연은 일반적인 강연과 다르게 ‘왼손으로 글 써보기’, ‘거꾸로 이름 써보기’ 등 참여자들의 참여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그리고 아이들뿐만 아니라 부모님들도 어린시절로 되돌아간다는 느낌으로 그림책에 접근하는 법에 대해 알려주셨다.



3회차는 첫 탐방으로 애월에 있는 ‘그림책방&카페노란우산’과 제주시에 있는 ‘복스페이스 고품’이었다. 그러나 이 장소에는 20명까지만 수용이 가능했기 때문에 50명 정원이었던 강연을 A, B조로 나눠서 탐방을 진행했던 것이 조금 아쉬웠다. ‘그림책방&카페노란우산’에서는 다양하게 전시된 그림책을 보고 책방지기 이진 선생님의 그림책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 그다음 탐방장소로 이동하기 전에 참가자들이 간식을 먹기 위해 이호해수욕장 근처에서 잠시 휴식시간을 가졌다. 그 후 2차 탐방장소로 이동하게 되었고 여기가 ‘복스페이스 고품’이었다. 여기서 김지연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통해 그림책은 작가와 독자가 서로 만나는 것이라고 하시면서 ‘책육아’, 즉, ‘페어런팅’의 개념을 설명해주셨다.

4회차는 원주시 그림책 센터장 이상희 작가님의 ‘그림책 일상예술’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이번 강연은 “그림책이란 무엇일까”란 의문으로 시작하여

다양한 그림책의 예술적인 면을 주로 다루었다.

5회차는 두 번째 탐방으로 함덕해수욕장 근처에 있는 ‘전이수 갤러리’라는 곳으로 한 15세의 어린 작가의 작품을 전시하고 카페와 함께 운영하는 곳이었다. 참여자들이 이번 사업에서 가장 기대를 했던 곳이기도 했다. 그만큼 다녀온 분들의 만족도가 가장 높기도 했다. 맨 처음 전이수 동화작가의 이야기 및 작품세계를 설명한 영상을 시청하고, 작가의 작품 전시 관람, 다양한 기념품을 입장권으로 구입하는 시간을 가졌다.

6회차는 마지막 탐방으로 ‘북타임’과 ‘북살롱 이마고’라는 동네책방을 방문했다. 도서관에 직접하여 버스로 1차 탐방장소인 남원읍에 있는 ‘북타임’으로 이동하여 직원의 이야기를 들으며 책방 구석구석을 둘러보았다. 아주 짧은 시간에 봐야 했기에 참가자들의 아쉬운 마음을 두고 다음 탐방 장소로 이동하게 되었다. 다음 탐방 장소는 ‘북살롱 이마고’였다. 북살롱 이마고 대표님이 4:3 사진을 겪은 어르신들과 나누었던 이야기를 들려주셨고 어르신들이 그때를 회상하며 만든 그림책도 소개해주셨다. 그러면서 기록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시면서 책방이 단순히 책을 전시한 공간이 아니라 지역사회 아카이브 센터로서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하셨다.



7회차는 정승각 작가님의 ‘우리 그림책 맛보기’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강연 초반부에는 권정생 작가님이 『강아지똥』 작품을 쓰기 위해 비오는 날 비를 맞아가며 그 촉감으로 쓰셨다는 이야기로 강연을 시작했다. 그리고 사찰이나 건 축물에 중심을 잡아주는 주춧돌의 의미를 설명해주셨고 작가님의 작품인 『까막 나라에서 온 삽사리』를 읽어주시며 작가님의 작품세계에 한층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다. 작가님의 섬 없는 열정으로 당초 12시에 끝나야 하는데 많은 참가자들의 질문시간까지 해서 12시20분에 강연을 끝마쳤다.

8회차는 동화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아동문학가로 활동하고 계신 김서정(김인애) 작가님을 모시고 ‘그림책의 역사’라는 주제로 “세계의 그림책과 인생 그림책” 강연을 진행했다. 작가님이 강연을 진행하는 동안 세계의 다양한 그림책을 소개해주 시면서 그림책이 쓰인 역사적, 문화적 배경까지 곁들여 설명해주셨다. 워낙 세계 의 유명한 그림책의 종류가 다양하다 보니 그 책을 다 메모하지 못할 정도였다.

9회차는 기적의도서관 그림책 동아리 회원인 장부경 선생님을 모시고 후속모 임을 진행하게 되었다. 강연이나 탐방 때처럼 많은 인원이 참석하지 못했지만 그 래도 그림책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주었던 참가자분들이 많이 참여해주셨다. 이 번 후속 모임에서 그림책 강연 및 탐방 프로그램을 통해 “일상에서 벗어나서 힐 링과 치유를 얻을 수 있었다.”라는 분도 있었고 “책 읽기를 즐겨하지 않았는데 이 번 기회에 그림책 읽기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말씀해주시는 분도 있었다.

마지막으로 10회차는 “그림책 만들기” 체험 과정인데 활발하게 미술 전시회를 개최하고 계신 김품창(김동수) 선생님을 모시고 손바닥 크기의 그림책을 만들어 보는 과정을 체험하고 그림책을 출판하는 과정을 열정적으로 이야기해주셨다.



담당자로서 좀 아쉬운 점은 장소를 섭외하는 과정에서 당초 기획했던 루씨손 아뜰리에에서 하기로 했지만 장소 대관료 부분을 생각지 못해 서귀포시 중앙도서관 시청각실을 빌려서 진행했다는 점이였다. 내년 사업에는 이러한 부분도 좀 더 신경 써서 사전 기획 단계에서부터 고려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림책의 매력을 발견한 시간

이번 서귀포기적의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이 가지는 특별한 의의는 2021년까지 모든 프로그램을 비대면으로 진행해온 것과는 대조적으로 대면 프로그램으로 진행했다는 점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담당 사서로서 그림책에 좀 더 깊이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제주도내 몰랐던 책방이나 문화공간들이 잘 조성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아울러 그림책이 어린이만의 전유물이라는 사고를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기적의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강연 및 탐방(체험), 후속모임을 통해 참가자들이 그림책에 대해 관심을 갖는데 기여하였으며, 이를 통해 삶에서 위로를 얻고 스스로를 이해하고 알아가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또한 그림책 동아리 2개가 신규로 개설되었고, 이분들이 길 위의 인문학 강연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고,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는 계기가 된 것 같아 뿌듯하였다. 앞으로 기적의도서관은 서귀포시 관내 공공도서관 중에서도 그림책을 특화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시민들이 그림책의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참여자 이야기

“낙점반”, “엄마마중”이라는 그림책의 내용이 지금의 아이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세계라 아이들에게는 그림책이 외면 받고 있지만 지금 현재 40~60대 정도 되시는 어른들의 어린시절 이야기라 더욱 공감이 되었다고 하셨다.

참여자 1

대부분의 참여자 분들이 입을 모아 전이수 갤러리 탐방을 할 때 전이수 작가가 너무 어린 작가라는 사실을 처음 알았다. 우리는 모두 그곳에서 일상을 벗어난 힐링과 치유를 얻게 되었다고 했으며, 앞으로 이런 프로그램이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입을 모았다.

참여자 2

책방지기의 삶이 궁금했었는데 이번 길 위의 인문학 탐방을 통해 책방지기의 삶과 그림책에 대해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사실 개인적으로 혼자 책방을 방문했을 때는 얻지 못하는 이야기를 얻을 수 있어 좋았다고 말씀하셨다.

참여자 3

우리는 이렇게 했어요



- 주제** 그림책, 그 무한한 매력으로 풍덩!
- 유형** 자유기획(기본형)
- 강사** 김서정, 김지연, 김품창, 신혜은, 이상희, 이진, 장부경, 정승각, 정진호
- 내용**
- 1차 | 강연** 그림책 입문
 - 그림책에 처음 입문하는 모든 이를 위한 강연
 - 2차 | 강연** 그림책 심리학
 - 그림책으로 나를 만나다
 - 3차 | 탐방** 그림책방 탐방_그림책방&카페노란우산, 북스페이스 공공
 - 책방지기의 이야기, 그림책 관련 질의 응답시간, 책방 탐방 등
 - 4차 | 강연** 그림책 일상예술
 - 아이와 함께 나를 돌보는 그림책
 - 5차 | 탐방** 그림갤러리 탐방_전이수갤러리
 - 전이수 작가 영상 시청, 전시물 관람하기 및 해설 듣기 등
 - 6차 | 탐방** 동네책방 탐방_북타임, 북살롱 이마고
 - 북타임에 있는 그림책에 대한 간단한 소개 및 어르신이 제작한 그림책 소개 및 전시 탐방 등
 - 7차 | 강연** 우리 그림책 맛보기
 - 『강아지똥』, 『금강산 호랑이』작가의 우리 그림책 맛보기
 - 8차 | 강연** 그림책의 역사
 - 세계의 그림책과 인생 그림책 만나기
 - 9차 | 후속모임** 그림책 공감하기
 - 그림책 입문 소감 나누기
 - 10차 | 체험** 그림책 만들기(체험프로그램)
 - 그림책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알고 내 이야기를 꺼내 엮어봄
- 일시** | **강연** | 2022. 5. 21.(토) ~ 2022. 7. 9.(토) 10:00 ~ 12:00
 | **탐방(체험)** | 2022. 6. 4.(토) ~ 2022. 7. 23.(토) 10:00 ~ 14:00
 | **후속모임** | 2022. 7. 16.(토) 10:00 ~ 12:00
- 장소** | **강연** | 서귀포기적의도서관 그림책갤러리
 | **탐방(체험)** | 그림책방&카페노란우산, 북스페이스 공공, 전이수갤러리, 북타임, 북살롱 이마고, 서귀포시 중앙도서관
 | **후속모임** | 서귀포기적의도서관 그림책갤러리



관장 정미숙 담당사서 부정현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일주동로 8593



홈페이지 jeju.go.kr/lib



연락처 064-760-3726

그림책의 딴 생각, 종이를 넘어 예술로 확장하다

청주기적의도서관

한국도서관협회장상



인문학의 시작은 편견 깨기로부터

“저... 청주기적의도서관은 어린이도서관이라던데... 어른이 갈 수 있어요?” 가끔 전화로 이런 문의가 올 때면 “물론 가능합니다”라고 반갑게 답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어린이도서관이라는 대문이 갖는 한계를 어떻게 낮추어야 하나... 고민될 때가 있다. 전문성을 위해 구분을 둔 것이 또 다른 편견을 내세운 꼴이라 할 수 있다. 그림책도 그러하다. 대부분 그림책이 유아를 위한 책이라고만 생각하여 초등학교에 진학하는 아이들이 자랑스럽게 “난 그런 책 안 읽어요”라고 말하기도 한다. 그나마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 자녀를 위해 읽어주던 학부모님들이 그림책의 가치를 느끼고 도서관에서 그림책 읽는 모임에 문을 두드리는 정도다. 그래서 이번 「길 위의 인문학」은 그림책이 갖고 있고 어린이도서관이 갖고 있는 편견을 깨야겠다는 생각에서 시작되었다. 그림책은 목표대상이 어린이를 대상으로 만들어진 책이긴 하지만 그 독서 매체로서의 가치는 어린이를 넘어 모든 독서 대상에게까지 확장될 수 있을 만하다는 데서 기획 의도를 정하고 단순히 그림+책이라는 의미를 넘어 철학, 문학, 예술의 영역에서도 독자적 가치를 논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프로그램을 기획하였다.

철학, 예술, 음악... 그림책 강연 맞나?

강사 선정하는 방법에 있어서 청주기적의도서관은 먼저 도서에 집중한다는 것이 특이할 수 있겠다. 강사를 먼저 생각하여 유명하고 강의 잘 하는 강사를 섭외하려하기보다 먼저 주제에 맞는 도서를 선정하여 강사 후보를 고르고 거기서 작가를 컨택하여 강사를 선정하려고 했다. 글을 잘 쓰는 작가가 강연을 다 잘한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책의 내용과 의도가 우리의 프로그램 주제와 맞다면 그 작가의 말을 들었을 때 좀 더 길 위의 인문학 프로그램의 주제를 잘 발현하고 그것이 또 참가자의 마음에 감동을 불러일으키는 것 같다. 그래서 철학, 예술, 음악 쪽으로 그림책과 연계하여 설명해 줄 수 있는 전문가들을 책을 통해 찾아보았다.

『예술을 묻다』 채운 작가님과 『중학교 토론학교: 예술과 아름다움』의 한지희 작가님 강연을 통해 그림과 예술이 갖는 철학적 가치에 대해 알 수 있었고 『음악으로 듣는 너의 이야기』 허클베리핀 그룹의 리더 이기용 작가님과 『음악은 사랑입니다』 홍준철 작가님 강연을 통해서도 음악이 문학, 그림과 만날 때의 시너지 효과에 대해 알 수 있었다. 『조용한 밤』 한성민 작가님, 『문장부호』 난주 작가님께서는 그림책이 어떤 각고의 노력과 고민의 과정에서 만들어지는지 알 수 있었으며 이상희 작가님이 센터장으로 계신 원주 그림책도서관을 방문하여 그림책도서관의 중요성을 깨달았으며 『오래된 그림책이 새로 태어나는 팝업북 만들기』 안선화 작가님과는 후속모임을 가지면서 파손되고 오래된 그림책이 새로운 그림책으로 다시 재탄생하는 과정에 대해 공부하였다. 이렇듯 이 강연들이 그림책 강연이 맞나 싶을 정도의 그림책의 시작과 끝까지 다룰 수 있는 가장 수준 높은 강사를 모셔 사업을 진행했다.





이런 수업이 어린이도서관에서 있는 줄 몰랐어요

성인대상으로 하는 그림책 프로그램 운영이라 진행 초기에 접수에 대한 걱정이 많았으나 접수 정원이 30명이었는데 26명이 접수를 하고 매번 20명이 넘는 인원이 참석해 주어서 그림책에 대한 관심이 많음을 느꼈다. 참여자 중 많은 분들이 퇴직하신 분들로 도서관에서 「길 위의 인문학」이라는 프로그램을 처음 알고 참여하는 분들이 많았으며 어린이도서관에서 이런 성인 대상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을 처음 아신 분들도 많았다.

프로그램이 종료된 이후에도 계속된 관심으로 청주기적의도서관 내 그림책 연구 동아리 조직에 대한 요청이 있어왔고 2023년에 그림책 동아리를 구축하는 데 까지 연계되었다.

그림책 속에 인생의 길이 있다

「길 위의 인문학」 담당자로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이렇게 우수도서관 수상까지 하게 된 것은 더 말할 것 없이 영광으로 생각되지만 앞으로 이보다 더 나은 프로그램 기획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도 느낀다.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인생의 반려가 될 수 있는 인문학의 씨앗을 뿌렸으면 한다. 청주기적의도서관 정창순 전관장님께서 도서관에서 근무를 하면서 그림책 연구 모임에 같이 참여해서 그림책을 읽었던 시간이 70 인생에 가장 즐거웠다는 말씀을 하신 기억이 난다. 그림책 속에 인생의 길이 있었다.



참여자 이야기

이미 믿고 듣는 프로그램이라고 소문난 ‘청주기적의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도서관의 대단한 기획력과 추진력으로 청주기적의도서관만의 색깔이 확실하고, 지방에서 쉽게 만날 수 없는 강사님, 작가님들을 만날 수 있는 엄청난 시간을 선물 받았습니다. 혼자, 어린이들과, 청소년들과, 어른들과 그림책을 만나며 그림책은 철학책이자 음악책이며 시집이고, 그 자체로 하나의 예술품이라는 생각은 해왔으나, 이번 <그림책의 판 생각>을 통해서 철학, 음악, 미술 등의 다양한 분야의 대단한 분들의 이야기를 만날 수 있다는 마음에 매시간 가슴이 두근 두근거렸고, 수업이 끝난 뒤에도 책을 찾아보고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뒤상의 ‘샘’에서 출발해 넥스트 랩브란트까지 철학적 사유의 즐거움을 선물해 주신 채운님, 질문으로 그림책 속에서 철학을 만나게 이끌어주신 한지희님, 음악 속 스토리에 집중하고 소리로 공간을 배치하는 것을 세심하게 관찰하게 만들어 주신 이기용님, 음악이 삶과 시를 만나 자기 삶을 사는 나를 향해 가는 모습을 보여 주신 홍준철님, 시 자체 혹은 형태 속에서 회화적 상상력을 꿈꾸게 만들어 주신 함기석님, 편견을 깨고 있는 다양한 그림책의 세계를 보여주신 난주님, 그림책을 보는 또다른 방법으로 업사이클링 팝업북을 만들어 볼 수 있는 시간을 선물해 주신 안선화님, 그림책을 펼칠 때마다 그 깊이를 떠오르게 해 울컥하게 만드신 한성민님의 멋진 강연들. 따뜻한 호응과 열정으로 함께 강의의 들은 분들과 이어진 탐방(원주 그림책센터, 뮤지엄 산)까지 더할 나위 없이 충만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시간들을 위해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참여자 1

넓디넓은 온라인 세상에 정보가 차고 넘쳐도, 지방에서 잘 기획된 강좌를 접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 제게 지난 여름에 만난 <그림책의 판 생각, 종이를 넘어 예술로 확장하다> 강의들은 정말 반가웠습니다. 첫 시간 채운 작가님의 첫 마디, “‘익숙하다’의 다른 말은 ‘좋다’”라며 “익숙함을 의심해 봐야한다.”는 말씀에 눈과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그것은 평안함에 젖어있던 제게 던져진 작은 조약돌 같았습니다. 90년대생 아이들을 키우고는 잊고 지낸 그림책들이 그동안 어떻게

발전해왔는지 알게 되었고, 다양한 생각들을 담기 위한 시도들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쓰임을 다하고 버려진 그림책들을 또 다른 예술활동의 재료로 활용하는 방법까지 배울 수 있었어요. 오랜 시간을 그림책을 알리는 데 헌신하신 이상희 관장님과의 만남도 감동적이었습니다. 강의 때마다 환한 미소로 맞아주시는 청주 기적의 도서관 관계자분들께도 감사드리며, 이번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참여자 2

직장생활 30년을 마치고 지금껏 직장 다니느라 못해본 새로운 곳을 찾다가 우연히 도서관 인문학 강의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젊은 엄마들이 많아서 쑥스럽기도 하고 처음으로 접해보는 분야여서 포기하고 싶은 생각도 들었는데, 강사님이 그림책을 읽어주고 그림의 의미를 설명해주면서 그림이 단순히 아이들에게만 재미를 주는 것이 아니라 나처럼 나이 많은 사람에게도 그 울림의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나의 옛날을 돌아보게 하고 인생을 생각하는 시간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점점 그 시간이 기다려졌습니다. 강의를 들으면서 손녀 손자가 생기게 되면 그 아이들에게 그림책을 읽어주고 책 읽어주면서 얘기하면 소통도 잘 될 것 같고 며느리에게도 좋은 시아버지로 남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재미있게 강의를 들었습니다.

원주에 단체로 버스를 타고 뮤지엄 산 박물관에서 난생 처음으로 어둠속에서 빛의 의미를 새겨보는 체험도 해보고 그림책과 그림 작품을 보는 색다른 경험도 하였습니다. 지나고 보니 음악 미술 철학 강의를 듣고 야외로 버스여행도 하면서 그 시간이 너무나 행복한 시간이었네요. 2023년에는 어떠한 프로그램이 진행될는지 기대되고 설렙니다.

참여자 3

지난해에 이어 올해의 기적의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프로그램 <그림책의 판 생각, 종이를 넘어 예술로 확장하다>는 이름에 걸맞은 넓고도 빛나는 시간으로 나를 채워주었다. 그림책으로 철학을, 그림책으로 음악을, 그림책으로 삶을 부드럽고도 날카롭게 드러내준 고마운 시간이었다.

특히 마크 트웨인의 『허클베리 핀의 모험』의 혁을 좋아하는 나는 밴드이름이 허클베리핀인 뮤지션 이기용에 처음부터 끌렸는데, 그를 통해 알게 된 악기 bass의 역할, 사람으로 치면 튀지 않지만 없으면 허전한, 그래서 꼭 필요한 존재라는 그 역할을 알고 난 후 음악을 더 깊게 입체적으로 즐길 수 있게 되었다. 아들과 Billie Eilish의 Bad Guy 음악이야기와 정 많고 따뜻한 사람과도 같은 악기, 모두를 풀어주는 악기 bass 역할 이야기도 함께 나누며 공감의 시간도 가졌었다. 이 모두가 그림책이 가져다준 선물 같은 시간이었음을 고백하고 감사드린다.

참여자 4

우리는 이렇게 했어요



- 주제** 그림책의 딴 생각, 종이를 넘어 예술로 확장하다
- 유형** 자유기획(기본형)
- 강사** 난주, 안선화, 이기용, 채운, 한성민, 한지희, 함기석, 홍진철
- 내용**
- 1차** 예술로 표현되는 그림책 철학의 세계
 - 예술로 철학 읽기 1, 2
 - 철학을 담은 그림책
 - 2차** 그림책, 그림을 넘어 예술로 확장하다
 - 음악과 함께하는 이야기의 힘
 - 클래식 음악과 그림책의 만남
 - 3차** 그림책, 종이를 넘어 예술로 확장하다
 - 문학과 예술의 만남
 - 그림책, 편견을 깨다
 - 새로운 시도의 그림책
 - 후속모임** 그림책 다시보기
- 일시** | 강연 | 2022. 6. 16.(목) ~ 2022. 7. 15.(금)
 | 탐방 | 2022. 7. 21.(목)
 | 후속모임 | 2022. 7. 14.(목)
- 장소** | 강연 | 청주시립도서관 1층 다목적홀
 | 탐방 | 원주 복합문화교육센터 그림책박물관, 뮤지엄 산
 | 후속모임 | 청주시립도서관 1층 다목적홀

우리는 “읽고 쓰는 사이”

교하도서관

한국도서관협회장상





교하도서관은 2014년부터 길 위의 인문학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연속해서 8번째 진행하고 있다. 그래서인지 교하도서관은 인문학 프로그램에 대한 이용자들의 관심과 열의가 높은 편이다. 다양한 프로그램 중 지역주민들의 호응이 높은 공모사업의 하나가 「길 위의 인문학」이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심혈을 기울여 주제를 정하고 있다. 이번 주제를 정하기 위해 도서관 프로그램 전체를 살펴보았다. 그 중 독서문화프로그램을 진행해보니 유독 글쓰기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높았다. 그래서 일상 속 글쓰기를 통해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읽고 쓰는 사이’를 기획하였다. 함께 쓰고 합평하며 서로의 감상을 나누고 객관화된 시각으로 ‘나’와 ‘타인’의 글을 바라볼 수 있도록 글쓰기의 발전적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역시나 길 위의 인문학 사전접수를 시작하는 날 오전부터 이미 참여 인원이 마감될 정도로 인기가 많았다. 결국 사전 접수 당일 대기자까지 마감이 되었고, 꼭 듣고 싶으니 취소하시는 분이 나오면 연락 달라는 전화까지도 받았다.

소통하는 글쓰기

“읽고 쓰는 사이”는 여섯 번의 강연과 네 번의 워크숍을 통해 읽는 재미와 글 쓰는 법을 탐색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2021년 교하도서관에서 연을 맺은 유재영 작가님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에 연락을 드렸고, 흔쾌히 응해주셔서 메인 강사님이 되어 네 번의 워크숍을 맡아주셨다. 덕분에 참여자들은 작가의 글쓰기 지도와 첨언으로 자신의 이야기가 글이 되어 의미를 찾게 되는 여정을 경험하게 되었다. 또한 다양한 장르별 강사님을 모셔 관심 분야의 전문가에게 직접적인 조언을 구하고 영감을 얻을 수 있도록 6명의 작가님을 초청하였다. 여섯 번의 강연은 열린 강연으로 기획하여 워크숍 참가자 외에 추가로 인원을 받아 더 많은 분들이 강연을 들을 수 있도록 조정하였다. 박미라, 정여울, 김미월, 김혜진, 정소연, 김흔비 작가를 모시는 과정에서 많은 노력이 필요하였으나 참가자들의 만족도가 높아 힘들었던 과정은 잊고 결과적으로 뿌듯한 기획이었다고 자부한다.

유재영 작가님은 1편 이상의 글이 완성될 수 있도록 대면으로 진행하는 강연 외에도 밴드로 소통하며 참가자들이 중도 포기하지 않도록 글쓰기 전 과정을 격려와 지도를 해 주셨고, 사업 종료 후에도 후속 모임으로 동아리를 구성하여 멘토로 활약 중이다. 워크숍 전날까지 참가자들이 한 편의 글을 써서 작가님께 메일로 보내면 작가님이 편집하여 밴드에 공유하고, 담당자는 워크숍날 출력을 해서 함께 나눠보는 과정을 거쳤다. 강제하지는 않았으나 참가자분들 모두 약속 일자에 맞춰 한 편의 글을 써서 보내주셨다. 네 번의 글쓰기 워크숍은 단순 글쓰기 수업이 아니라 쓴 글을 읽고 합평하는 시간을 가져 적극적으로 참가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는데, 상대방의 글에 대한 솔직한 감상과 공감하는 자세는 타인을 이해하고 참가자들을 더욱 돈독하게 해주었다. 이번 「길 위의 인문학」

은 5개월에 걸친 긴 호흡의 프로젝트였지만 중도 포기자가 적은 것은 글쓰기에 대한 참가자들의 높은 열의와 함께한 작가님들의 진심어린 응원 덕분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든다.



‘읽고 쓰는 사이’는 아직도 진행 중

탐방은 교하 가까이 있는 파주출판단지로 가서 ‘장서인 만들기’ 체험활동을 진행하였다. 글쓰기 워크숍을 진행하면서 다들 1편 이상의 글을 완성하였기에 완성된 자신의 글에 직접 만든 장서인을 찍음으로써 화룡점정의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하였다.



후속모임은 교하도서관에서 추진하는 「북그라운드」 축제에 맞춰 일정을 잡았다. 「북그라운드」는 ‘책’을 매개로 4개의 테마별 프로그램을 연중 추진한 결과물과 성과를 지역주민들과 협업해 한 자리에서 펼치는 도서관과 마을의 축제다. 그중 ‘책을 쓰다’ 테마에서 ‘읽고 쓰는 사이’를 테마로 북토크 시간을 가져 후속모임을 진행하였다. 유재영 작가님이 준비해 주신 북퀴즈와 북토크와 함께 그간의 소감을 나누면서 모두가 화기애애한 시간을 보냈다.

이렇게 후속모임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참가자들이 먼저 동아리를 만들 수 있는지 문의가 왔다. 담당자로서 무척 반가운 소식이었고, 유재영 작가님이 멘토로 활동해 주신다고 하니 더없이 감사했다. 그렇게 자발적으로 모여 구성된 ‘읽고 쓰는 사이’는 교하도서관에 동아리로 등록하여 월 2회 만남을 가지면서 계속해서 글을 쓰고 서로의 글에 대해 공감과 격려를 지금도 이어가고 있다.

담당자로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할 수 있는 기회뿐 아니라 우수한 성과도 거둘 수 있게 되어 더없이 영광인 사업이었다. 앞으로도 지역주민들의 인문학 정신을 고취하고 인문학을 일상화할 수 있도록 길 위의 인문학 공모사업에 참여하고자 한다.



참여자 이야기

함께 10주동안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기뻐했습니다. 강의 오시는 작가님들 자신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해법 제시해주셔서 유용했어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작가님을 직접 만나는 소원풀이도 했구요. 워크숍 이끌어주신 유재영 작가님, 제출된 글에서 인상적인 문장을 뽑아주시고 맞춤형 책도 추천해주셔서 감사했어요. 적은 인원도 아닌데 일일이 피드백하는 정성을 보여주셔서 감동받았답니다.^^ 수업 기획하고 원활히 진행해주신 사서 선생님들께도 감사 인사드리고 싶어요. 이러한 일부러라도 자주 교하도서관을 찾아오고 싶어요. 무엇보다도 제가 사는 근방에 이토록 글 잘 쓰는 언니, 동생들이 있다는 사실에 괜히 뿌듯한 시간이었습니다.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도서관에서 자주 뵙길 기대합니다.

참가자 1

오늘도 즐거웠습니다. 오늘 강의까지 일곱 명의 작가님을 만났네요. 감사합니다. 한 분 한 분의 작가님이 모두 훌륭하셨습니다. 책도 좋았고, 강의도 즐거웠습니다. 교하도서관에서 정말 훌륭한 프로그램을 기획하셨습니다. 일곱 명의 작가님이 모두 고루 고유의 색을 내며 저희에게 빛을 비추었습니다. 그건 아름다운 무지개였어요. 어느 색이 더 좋은게 아니고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내서 교하도서관에 뜬 일곱 색깔 무지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가자 2

우리는 이렇게 했어요



- 주제** 읽고 쓰는 사이
- 유형** 자유기획(기본형)
- 강사** 유재영, 박미라, 정여울, 김미월, 김혜진, 정소연, 김흔비
- 내용**
- 1차 | 워크숍1 | 이야기를 짓는 일곱가지 방법
 - 2차 | 특강 | 치유하는 글쓰기 : 읽는 법, 쓰는 법
 - 3차 | 워크숍2 | 참가자 글 합평
 - 4차 | 특강 | 나와 당신의 삶은 어떻게 쓰여질까요
 - 5차 | 특강 | 소설가의 읽고 쓰기
 - 6차 | 특강 | 아동·청소년 작가의 읽고 쓰기
 - 7차 | 워크숍3 | 참가자 글 합평
 - 8차 | 특강 | SF작가의 읽고 쓰기
 - 9차 | 특강 | 에세이 작가의 읽고 쓰기
 - 10차 | 워크숍4 | 참가자 글 합평
- 일시** | 강연 | 2022. 6. 16.(목) ~ 2022. 9. 1.(목) 10:00 ~ 12:00
 | 탐방 | 2022. 9. 15.(목)
 | 후속모임 | 2022. 10. 29.(토)
- 장소** | 강연 | 교하도서관
 | 탐방 | 파주시 출판단지
 | 후속모임 | 교하도서관

독자에서 작가로, 생각에서 세상으로 〈제주독립출판〉

탐라도서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나만의 책을 만드는 일

세상에 ‘책’이 존재하는 목적은 무엇일까? 책의 이미지를 생각해보면 네모반듯한 종이에 글을 잔뜩 써서 묶어낸 모습이 먼저 떠오른다. 그 판형과 디자인은 제각각이지만 책은 결국 누군가에게 읽히기 위해 만들어졌다. 책은 불특정한 다수의 사람들에게 읽히기 위한 목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주요할 것 같다.

그렇다면 ‘나의 책’을 만든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책을 만들려는 사람들의 마음은 모두 조금씩 다르다. 단순히 물성의 종이 창작물이라는 책의 매력에 끌리는 사람도 있고, 깊이 담아둔 나의 생각을 세상에 내보이고 싶은 사람, 소중한 누군가와 추억을 책으로 남기려는 사람 등. 그렇지만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글로 풀어내어 누군가에게 읽힐 준비를 한다는 점에서는 모두 같다. 이번 사업에 참여한 수강생들은 이처럼 모두 다르지만 같은 마음으로 나만의 책을 만들어냈다.

26회차 프로그램 완주하기

올해 세 번째로 진행된 ‘독자에서 작가로, 생각에서 세상으로 <제주독립출판> 사업은 ‘나만의 책 만들기 프로그램’이다. ‘책 만들기’라는 말에는 물성의 책 한권이 나오기까지 모든 지난한 과정이 포함되어 있다. 참여 수강생이 직접 원고를 쓰고, 할 수 있는 만큼 교정과 교열을 해보고, 서툴지만 인디자인 프로그램을 사용해 페이지를 나눠 글을 넣는 편집과 디자인을 진행한다. 마지막으로 인쇄를 위한 종이를 고르고, 인쇄의 컬러 범위를 정하는 과정 모두 오롯이 책을 만드는 수강생의 몫이다. 종종 ‘그냥 원고만 써서 인쇄소에 넘기면 어떨까요?’ 묻는 수강생들도 있지만, 결국엔 모두들 나름의 방식으로 자신만의 책을 만들어냈다.

26회차 프로그램이란 도서관에서는 잘 시도하지 않는 정말 긴 차수다. 회차가 길어질수록 수강생의 중도 탈락률이 높아지기 때문인데, 이 사업만큼은 늘 가장 높은 출석률과 완주율을 보여 매년 놀랐다. 1기에는 30명 중 25명, 2기에는 25명 중 21명, 3기 역시 25명 중 21명이 책을 완성했다.

프로그램 구성은 일반적이지만 강사님들의 역량이 뛰어났다는 점이 주요인 같다. 원고 작성, 글쓰기 부분을 맡은 장보영 작가님은 따로 개설한 네이버 카페에



서 수강생들의 과제물을 매주 확인하고 일일이 피드백하며, 수강생들이 원고를 완성해나갈 수 있도록 이끌었다. 인디자인 프로그램 수업을 맡은 오도영 디자이너는 온라인 줌(ZOOM)으로 수업한 내용을 녹화해 카페에 게시하고, 수강생들이 필요한 부분을 반복해 공부할 수 있도록 독려했다. 비공개로 개설한 네이버 카페는 수강생들이 서로의 글을 읽고 응원을 보내며 함께 힘을 낼 수 있었던 중요한 공간이었다. 처음 콘텐츠 정하기와 원고 제목 정하기에 참여한 동네책방 서점원들과의 팀별 수업도 수강생들의 고민과 궁금한 점을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작가가 된 독자들과 책이 된 생각들

담라도서관에서 ‘독자에서 작가로, 생각에서 세상으로 <제주독립출판>’을 주제로 사업을 진행한 지 올해로 3기를 맞았다. 처음 사업을 시작했던 2020년에는 사업을 무사히 마칠 수나 있을지 걱정이 한가득이었는데, 어느덧 3년째라니 감개 무량하다.

현재까지 프로그램을 완주하고 책을 발간한 수강생은 총 67명, 책은 67종이다. 모두 다른 판형과 내용의 한정판 책이지만, 특히 올해는 눈에 띄고 마음에 남는 책들이 많다. ‘앨리스(가명)’ 작가님의 『우리는 모두 집에 산다』는 장애인 거주 시설에서 일하며 경험한 일들과 생각을 담아낸 책이다. 근래 높아진 장애인 거주 시설에 대한 부정적 시선에 대해 우리 모두 나름의 집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담담히 답하는 듯하다. 이 외에도 난임의 경험을 담은 에세이집 강미선 작가의 『기적이 내게로 왔다』와 크론병이라는 난치 질환을 앓고 있는 간호사의 투병기를 담은 고윤아 작가의 『안녕, 크론씨』, 할머니의 옛 이야기를 제주 사투리 그대로 손녀가 들고 기록한 『제주 할망 자서전』 등은 판매용으로 재출간해도 손색없을 만큼 특별한 작품들이다.



3부 인문학, 친밀한 인생을 꿈꾸다





참여자 이야기

출간기념회를 진행할 때, 참여 수강생분들이 자신의 책을 소개하면서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소감을 한 마디로 표현 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재미있는 단어들이 많아서 소개한다. ‘스트레스’, ‘날벼락’, ‘독보적이다’, ‘신기함’, ‘참 놀랍고 고마운’, ‘뿌듯함’, ‘재밌었다’, ‘좋은 성찰’, ‘운명’, ‘오롯이’, ‘뿌듯함’, ‘덕분에’, ‘감사한: 인생의 중요한 꼭지를 찾아낸 것 같다’, ‘기록은 기억을 지배한다’, ‘판타스틱’ 등이다.

글을 쓰는 행위는 자신을 성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내면의 깊은 생각을 꺼내어 글로 묶어 책으로 만들어낸다는 경험은 개인에게 어떤 경험보다 의미 있고 소중한 것이라고도 짐작한다. 앞으로도 작가가 된 독자들이 글로써, 자신의 책으로써, 스스로를 마주하고 세상으로 더 멋지게 나아갈 수 있기를 응원한다.

참가자

우리는 이렇게 했어요



- 주제** (제3기) 독자에서 작가로, 생각에서 세상으로 '제주독립출판'
- 유형** 특화기획(유형특화)
- 강사** 강영규, 김은영, 오도영, 이나현, 장보영, 장효정, 정보배, 정원경, 황남희
- 내용**
- 1차** 독립출판물이 뭐가요?
 - 강연1 독립출판물 정의, 다양한 판형의 독립출판물
 - 2차** 어떤 책을 만들고 싶으세요?
 - 강연2 콘텐츠, 주제 정하기
 - 3차** 글쓰기 연습을 해 봅시다
 - 강연3 글을 쓰는 자세와 태도
 - 강연4 좋은 글이란?
 - 강연5 주관적인 글쓰기
 - 강연6 다양한 글쓰기 연습
 - 강연7 묘사와 설명의 기술
 - 강연8 나만의 표현 찾기
 - 강연9 꾸준히 쓰는 습관 기르기
 - 강연10 바른 문장이란
 - 탐방11 1차 동네책방: 서점원의 이야기
 - 강연12 퇴고와 피드백1
 - 강연13 퇴고와 피드백2
 - 4차** 책이름 작명소
 - 강연14 제목 정하기
 - 5차** 이제 책을 만들어 봅시다
 - 강연15 책의 구성, 디자인 기획
 - 강연16 인디자인-작업 환경
 - 강연17 인디자인-샘플 페이지
 - 강연18 인디자인-내지 디자인 1
 - 강연19 인디자인-내지 디자인 2
 - 강연20 인디자인-내지 디자인 3
 - 강연21 인디자인-표지 디자인
 - 강연22 인디자인-작업마무리
 - 강연23 인쇄와 제작
 - 탐방24 2차 동네책방: 유통관련 이야기
 - 6차** 완성

일시 2022. 5. 15.(일) ~ 2022. 11. 13.(일) 15:00~17:00
장소 | 강연 | 온라인(zoom) 및 탐라도서관 다목적실 대면 진행
 | 탐방 | 1차 나이롱책방, 이후복스, 라바복스
 2차 보배책방, 무명서점
 | 후속모임(출간기념회) | 탐라도서관 세미나실

 **관장** 강재식 **담당사서** 정선주

 **홈페이지** www.jeu.go.kr/lib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정원로 50

 **연락처** 064-728-83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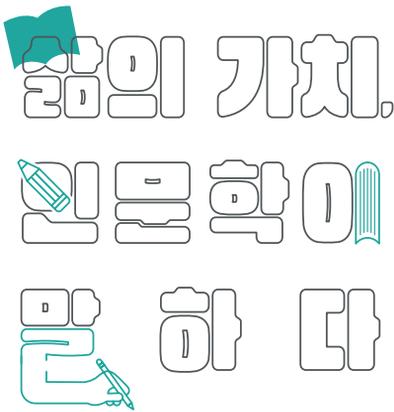
2022년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사업 우수도서관 수상기관 목록

	수상명	유형	도서관명	담당자명	본문 페이지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자유기획 (기본형)	더불어숲도서관	오명순	90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특화기획 (유형특화)	도봉문화정보도서관	이용운	10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특화기획 (유형특화)	탐라도서관	정선주	196
4	한국도서관협회장상	자유기획 (기본형)	강서구립 꿈꾸는어린이도서관	정유진	44
5	한국도서관협회장상	자유기획 (기본형)	광양시립중앙도서관	배화준	144
6	한국도서관협회장상	자유기획 (기본형)	교하도서관	백송희	190
7	한국도서관협회장상	자유기획 (기본형)	마포구립서강도서관	송미선	18
8	한국도서관협회장상	자유기획 (기본형)	명곡도서관	양혜정	-
9	한국도서관협회장상	자유기획 (기본형)	서귀포기적의도서관	부정현	174
10	한국도서관협회장상	자유기획 (기본형)	서울특별시교육청 남산도서관	유현주	26
11	한국도서관협회장상	자유기획 (기본형)	서창도서관	이정선	32
12	한국도서관협회장상	자유기획 (기본형)	성산도서관	송선화	128
13	한국도서관협회장상	자유기획 (기본형)	울산남구신복도서관	김선혜	136
14	한국도서관협회장상	자유기획 (기본형)	은평구립도서관	정세연	108
15	한국도서관협회장상	자유기획 (기본형)	청주기적의도서관	이지연	182
16	한국도서관협회장상	자유기획 (보급형)	김포시고촌도서관	이미희	-
17	한국도서관협회장상	자유기획 (보급형)	양구교육도서관	박지희	52

	수상명	유형	도서관명	담당자명	본문 페이지
18	한국도서관협회장상	자유기획 (보급형)	익산시립황등도서관	이명숙	96
19	한국도서관협회장상	특화기획 (대상특화)	대치도서관	박현우	158
20	한국도서관협회장상	특화기획 (대상특화)	순천시립도서관연향관	김명선	116
21	한국도서관협회장상	특화기획 (주제특화)	기장도서관	지은영	166
22	한국도서관협회장상	특화기획 (주제특화)	김제시립도서관 금구분관	백승현	74
23	한국도서관협회장상	특화기획 (주제특화)	수성구립용학도서관	성연지	38

2022년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사업 우수담당자 수상자 목록

	수상명	유형	도서관명	담당자명	본문 페이지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표창	자유기획 (기본형)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	최일우	80
2	한국도서관협회장상	자유기획 (보급형)	달성군립도서관	이운형	58
3	한국도서관협회장상	특화기획 (유형특화)	맨발동무도서관	고은영	64
4	한국도서관협회장상	특화기획 (대상특화)	양양교육도서관	김현혜	102
5	한국도서관협회장상	특화기획 (주제특화)	의성군립도서관	김정미	150



책의 가치,
읽은 학이
문하 다

이 책은 2022년 도서관「길 위의 인문학」우수도서관과 우수담당자로 선정된 26개 도서관 사례를 모아 출판하였습니다.

발행일 2023년 1월
발행처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도서관협회
홈페이지 <https://www.libraryonroad.kr>
제작 계문사

ISBN 979-11-6357-511-5 93020

이 책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는 저작물입니다.
무단 전재와 복제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도서관협회



9 791163 575115

ISBN 979-11-6357-511-5

비매품/무료

93020

